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The Policy Directions to relieve  
the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박태선 | 이미영 | 한우석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The Policy Directions to relieve the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 연구진

연구책임 박태선 연구위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한우석 책임연구원

■ 외부자문위원

정우형 명지전문대학 교수

양승길 국토교통부 주무관

■ 연구심의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원섭 국토연구원 본부장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발간사

20세기가 개발과 성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는 개인의 지적·정신적·행위적 소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엔총회에서 “문화와 발전”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삼을 정도로 문화의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문화융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설정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문화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이른바 문화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격차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지역 간 문화격차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국내외 사례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화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 편의시설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지에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유사한

문화시설들을 설치하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콘텐츠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문화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를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나아가야 한다. 문화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관련법률 및 계획들 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필요한 용어정의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를 삶의 깊은 곳까지 끌어들여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국토공간 어느 곳에서나, 국민 누구나가 문화를 통해 윤택하고 품격있는 삶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태선 연구위원, 이미영, 한우석 책임연구원, 안용익 연구원, 김지애 인턴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정우형 교수님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양승길 주무관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평균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중대도시의 문화적 여건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며, 분석항목 간의 도시 간 격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남
- ②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이용하여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문화시설로의 접근성과 문화시설 간의 연계활용을 고려한 문화시설의 위치·규모·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③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관련 법·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① 복합문화시설의 확충 : 문화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빈도와 이동거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합문화시설을 확충
- ② 인접지역 문화시설 공동이용 : 시설의 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낮은 문화시설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인접지역 문화시설의 공동이용방안을 강구
- ③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 : 문화향유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향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방안을 마련
- ④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보 : 제공주체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문화정보를 전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⑤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용 :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과 연계
- ⑥ 문화시설의 관리방식 개선 : 문화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위탁관리방안의 도입을 검토
- ⑦ 지역문화관련 법규 개선 : 지역문화와 관련된 법률 및 계획 간의 위계를 재정립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개선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세기는 생명 존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화의 시대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민행복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의 범위와 도시의 규모에 따른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와 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시간적으로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분석은 전국 230개 시군자치구를, 지역주민 면담조사는 사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한 조사양식을 이용하여 1:1로 심층 면담조사하였음
  - 지역 간의 생활문화격차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문헌조사, 통계조사, 지역주민 면담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2. 국내외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 동향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68년 문화공보부 발족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관련법규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지역문화를 육성·활성화하기 시작하였음

- 1990년대에는 문화와 지역발전의 연계를 통한 문화복지를, 2000년대에는 문화와 도시재생의 결합을, 2010년대에는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를 도모하였고, 최근에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정책의 지향점이 불분명하고, 지역의 특성과 비계량 요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며, 지역문화정책 추진부처 간의 협력체계도 미흡

□ 주요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를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그동안의 정책에서 문화시설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지역문화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분담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음
- 지역문화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고 있음
- 지역문화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매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3.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공급차원에서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수요차원에서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평균(절대적 격차)과 변이계수(상대적 격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조사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통계분석결과와 지역주민 면담조사가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계획하였음

####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분석목적	분석관점	분석방법	분석항목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공급차원)	통계자료 분석	-문화시설의 개수 -문화시설의 면적	-문화프로그램수 -연간 문화공연일수	-문화시설 직원수 -운영예산 규모	-관람객 수 -문화시설당 집객력 -프로그램당 집객력
	문화향유 만족도 격차 (수요차원)	지역주민 면담조사	-선호시설 방문횟수 -시설이용 만족도 -시설로의 접근성	-선호콘텐츠 활동빈도 -문화활동의 행태 -문화활동 제약요인	-활동의 지역적 범위 -인접시설 이용도 -만족도 제고 항목	-문화인식 및 체감도 -향유의지와 수요 -활여가능 시간비용

#### □ 문화향유기회 여건을 도시규모별로 통계분석한 결과,

- 인구 30만 명 이상인 중대도시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며, 분석항목의 도시 간 격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30만 명 이하인 중소도시나 군급도시보다는 문화향유 기회 여건이 양호하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지만 분석항목의 도시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군급도시는 다른 도시규모에 비해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불리하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작으며, 분석항목의 도시 간 격차도 특광역시 자치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국 84개 군급도시의 91.7%인 77개 군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시설인 영화관이 없는 이른바 “문화시설 사각지대”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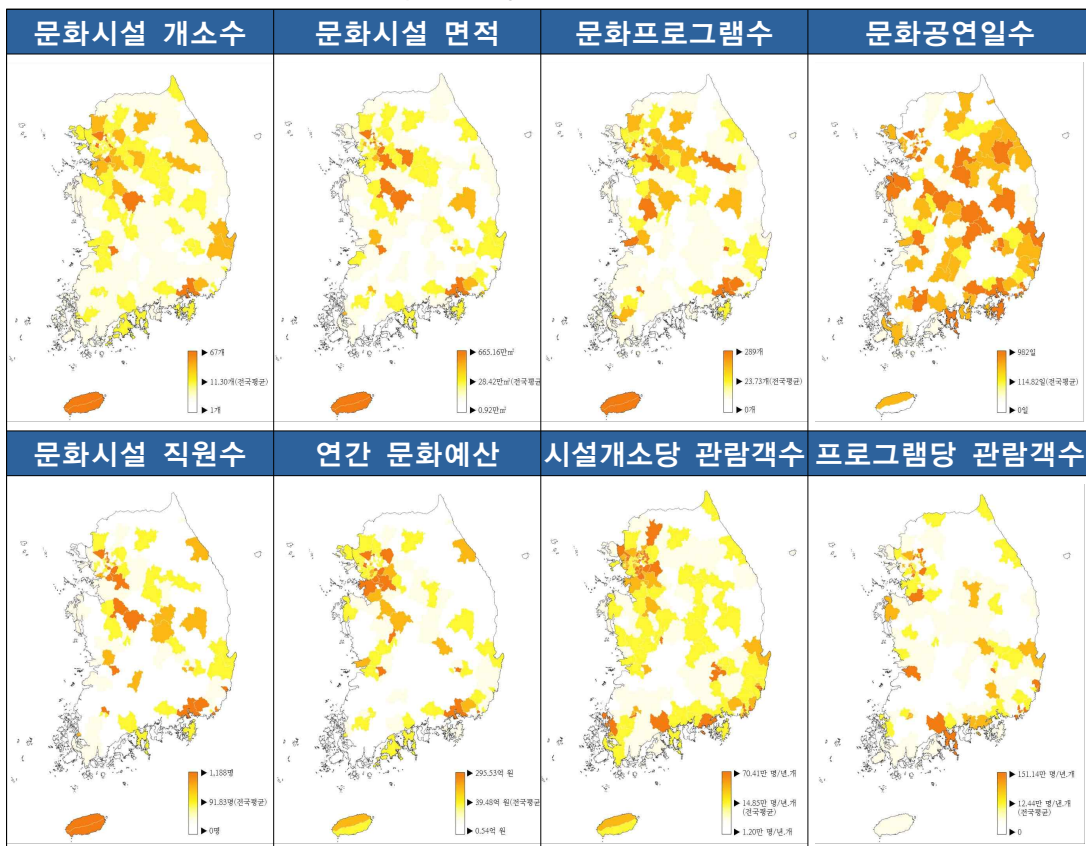
#### <도시규모별 문화시설 미입지 현황>

구 분	도시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영화관		과학관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자 치 구	69	0	0.0	17	24.6	47	68.1	23	33.3	3	4.3	11	15.9	49	71.0
중대도시	25	0	0.0	2	8.0	9	36.0	4	16.0	0	0.0	0	0.0	14	56.0
중소도시	52	0	0.0	3	5.8	36	69.2	7	13.5	1	1.9	14	26.9	35	67.3
군급도시	84	0	0.0	13	15.5	57	67.9	18	21.4	1	1.2	77	91.7	65	77.4
계/평균	230	0	0.0	35	15.2	149	64.8	52	22.6	5	2.2	102	44.3	163	70.9

□ 문화향유기회 여건을 지역별로 통계분석한 결과,

- 도지역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은 특광역시 자치구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공연일수를 제외한 모든 분석항목에서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의 개소수는 비슷하지만 규모가 큰 문화시설이 많으며, 운영예산도 크고, 연간 관람객수도 많은 반면, 북부지역은 거의 모든 면에서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문화시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많은 반면, 강북지역은 규모가 작은 문화시설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람객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행복생활권(중추형, 도농형, 농어촌형)은 모든 분석항목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분석도>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만족도를 면담조사한 결과,
- 문화인식에 있어서는 문화하면 연극·영화, 음악·미술, 전시·관람을 떠올렸음
  - 문화정책체감도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나타났음
  - 문화향유경험에 있어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주 이용한 문화시설로는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도서관이 전체 이용의 61%를 차지하였으며, 박물관, 문화체육센터, 미술관을 포함하면 전체 이용의 83%에 해당
  - 문화향유행태에 있어서는 문화활동의 대부분은 시군구 내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가용으로 30분 이내에 위치한 문화시설에서 영화·콘서트·연극·뮤지컬 관람과 같은 단순관람형태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
  - 문화향유만족도에 있어서는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점이었으며, 불만족 이유는 비싼 요금, 교통 불편, 주변의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음
  -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은 영화관 이용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공연장, 박물관, 문예회관, 체육시설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였고, 근거리는 영화관, 먼거리는 박물관·공연장·전시장 등을 주로 이용하였음
  - 문화적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정보 제공 및 무료 순회공연 확충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향유 의지와 수요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체육·스포츠, 강연·강좌 교육, 영화감상 등 단순관람형 활동들을 선호하였음

<문화활동의 선호도 변화 비교>

구 분	영화·비디오	도서관 이용	체육·스포츠	음악·콘서트	연극·뮤지컬	강좌 교육
현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향후 순위	5위	14위	3위	2위	1위	4위

-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해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문화활동비 지출도 다소 늘리는 등 문화향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만족도 제고,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
- 첫째,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
  - 문화기본법에 문화시설의 정의와 복합문화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세금면제나 할인조항도 마련하여야 함
  - 지역 내 적절한 지점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 다양한 편의시설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히, 군(郡)지역에 영화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이용빈도와 이동거리에 따른 문화콘텐츠 구분>

이용빈도	주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이동거리
다수가 자주 이용	-강연·강좌교육, 영화·비디오 감상, 도서관 이용, 체육·스포츠 등	근거리
소수가 자주 이용	-공예·조각 등	중거리
소수가 가끔 이용	-문학창작시, 무용·발레,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회화·서예·사진, 전통문화 전수 등	중장거리
다수가 가끔 이용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관람 등	장거리

- 둘째,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방안 마련
  -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징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함
  -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이 시설의 규모는 크지만 이용빈도가 낮은 문화시설은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행복생활권에도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셋째,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
  -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고려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향유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향유 동기도 부여하여야 함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완하고, 예술인이 생산한 문화콘텐츠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여야 함
- 넷째,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보
  -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문화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공급자와 수요자가 온라인을 통해 문화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창출해야 함
- 다섯째,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활용 강화
  -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문화를 이용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거버넌스의 활용과 활성화를 권장하고, 지자체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 운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문화시설의 관리방식 개선
  - 문화시설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나 근거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의 자격, 역할, 관리·감독방식 등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일곱째, 지역문화관련 법·제도의 개선
  -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관련 법률 및 계획 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하여야 함
  - 또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규정을 개선하고, 문화도시·문화지구, 시범도시 등 관련규정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 차례

발 간 사 .....	i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iii
요 약 .....	iv
<b>제1장 서론 .....</b>	<b>3</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4
1)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	4
2) 기대효과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수행방법 .....	6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1) 선행연구 고찰 .....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0
<b>제2장 관련개념 정립 .....</b>	<b>15</b>
1. 문화와 문화격차 .....	15
1) 문화의 정의 .....	15
2) 문화격차의 정의와 해소필요성 .....	16
3) 문화시설의 정의와 종류 .....	17
2. 지역과 문화의 관계 .....	22
1) 지역 및 지역문화의 정의 .....	22
2) 문화와 지역발전 .....	23

3. 본 연구에서의 적용 개념 .....	26
1) 지역문화와 지역간 문화격차 .....	26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27
<b>제III장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b>	<b>31</b>
1.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31
1) 문화정책의 변화 연혁 및 동향 .....	31
2)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 .....	36
2. 외국의 지역문화정책 동향 및 시사점 .....	37
1) 세계적 동향 .....	37
2) 주요 국가의 동향 .....	38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42
<b>제IV장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b>	<b>47</b>
1. 분석의 틀 .....	47
2. 통계분석을 통한 문화향유기회의 격차 분석 .....	49
1) 분석개요 .....	49
2) 분석결과 .....	53
3.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통한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 분석 .....	82
1) 조사개요 .....	82
2) 조사결과 .....	86
3) 정책적 시사점 .....	103
<b>제V장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b>	<b>111</b>
1. 개선의 기본방향 .....	111
2.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방안 .....	112
1)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방안 .....	112
2)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방안 .....	117
3.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만족도 제고방안 .....	121
1)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방안 .....	121

2)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보방안 .....	124
4.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방안 .....	127
1)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용방안 .....	127
2) 문화시설의 관리방식 개선방안 .....	129
3) 지역문화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35
5. 개선방안 종합 .....	150
<b>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b>	<b>155</b>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55
1) 주요 결론 .....	155
2) 정책제언 .....	156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57
1) 연구의 성과 .....	157
2) 향후 과제 .....	158
참고문헌 .....	159
SUMMARY .....	163
부록 .....	167



〈표 1- 1〉 본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
〈표 2- 1〉 문화시설의 기능 .....	19
〈표 2- 2〉 문화시설의 구분과 종류 .....	20
〈표 2- 3〉 분석대상 문화시설의 정의와 근거법령 .....	21
〈표 2- 4〉 지역문화의 정의 .....	23
〈표 2- 5〉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변화 .....	24
〈표 2- 6〉 문화정책 수립·추진시 고려사항 .....	25
〈표 3- 1〉 지역문화정책의 시대별 변화 .....	35
〈표 4-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	48
〈표 4- 2〉 도시규모별 평균 인구규모 .....	52
〈표 4- 3〉 도시규모별 평균인구수 .....	52
〈표 4- 4〉 전국 시군구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	54
〈표 4- 5〉 도시규모별 변이계수 비교 .....	57
〈표 4- 6〉 시도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비교 .....	58
〈표 4- 7〉 시도별 변이계수 비교 .....	62
〈표 4- 8〉 수도권-비수도권간 변이계수 비교 .....	66
〈표 4- 9〉 경기 남북부간 변이계수 비교 .....	70
〈표 4-10〉 강남북간 변이계수 비교 .....	73
〈표 4-11〉 행복생활권 유형별 변이계수 비교 .....	78
〈표 4-12〉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분석표 .....	79
〈표 4-13〉 조사지역의 문화관련 여건 비교 .....	85
〈표 4-14〉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순위 .....	92
〈표 4-15〉 인접지역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	97
〈표 4-16〉 문화활동의 선호도 변화 비교 .....	100
〈표 4-17〉 문화활동을 위한 비용지출비율 변화 비교 .....	101
〈표 4-18〉 문화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변화 비교 .....	101

〈표 4-19〉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지도 회귀분석 결과	102
〈표 4-20〉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의 Z-Score	105
〈표 4-21〉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 관계	105
〈표 5- 1〉 도시규모별 문화시설 미입지 현황	113
〈표 5- 2〉 거리와 빈도에 따른 문화시설 및 문화콘텐츠 구분	116
〈표 5- 3〉 대구시 남구 맛둘레길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128
〈표 5- 4〉 미국 박물관 평가프로그램의 평가내용	130
〈표 5- 5〉 미국 박물관 평가프로그램의 평가방법	130
〈표 5- 6〉 영국 박물관 인증질문지의 평가내용	131
〈표 5- 7〉 영국 박물관 인증제도의 효과	131
〈표 5-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문화관련 시책에 대한 규정	138
〈표 5- 9〉 지역문화 관련법률의 개요 비교	139
〈표 5-10〉 문화도시, 문화지구, 시범도시의 비교	149
〈표 5-11〉 개선방안 종합	150

〈그림 1- 1〉 연구흐름도 .....	7
〈그림 4- 1〉 도시규모별 문화시설 여건 비교 .....	56
〈그림 4- 2〉 도시규모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	56
〈그림 4- 3〉 도시규모별 문화향유기반 비교 .....	56
〈그림 4- 4〉 도시규모별 문화향유정도 비교 .....	56
〈그림 4- 5〉 시도별 문화시설 여건 비교 .....	59
〈그림 4- 6〉 시도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	60
〈그림 4- 7〉 시도별 문화향유기반 비교 .....	60
〈그림 4- 8〉 시도별 문화향유정도 비교 .....	60
〈그림 4- 9〉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시설 여건 비교 .....	65
〈그림 4-10〉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	65
〈그림 4-11〉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향유기반 비교 .....	65
〈그림 4-12〉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향유정도 비교 .....	65
〈그림 4-13〉 경기남북부간 문화시설 여건 비교 .....	68
〈그림 4-14〉 경기남북부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	68
〈그림 4-15〉 경기남북부간 문화향유기반 비교 .....	69
〈그림 4-16〉 경기남북부간 문화향유정도 비교 .....	69
〈그림 4-17〉 강남북간 문화시설 여건 비교 .....	72
〈그림 4-18〉 강남북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	72
〈그림 4-19〉 강남북간 문화향유기반 비교 .....	72
〈그림 4-20〉 강남북간 문화향유정도 비교 .....	72
〈그림 4-21〉 행복권 유형별 문화시설 여건 비교 .....	76
〈그림 4-22〉 행복권 유형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	76
〈그림 4-23〉 행복권 유형별 문화향유기반 비교 .....	76
〈그림 4-24〉 행복권 유형별 문화향유정도 비교 .....	76
〈그림 4-25〉 지역별 문화시설 개소수 분포 .....	80
〈그림 4-26〉 지역별 문화시설 면적 분포 .....	80

〈그림 4-27〉 지역별 문화프로그램수 분포 .....	80
〈그림 4-28〉 지역별 문화공연일수 분포 .....	80
〈그림 4-29〉 지역별 문화시설 직원수 분포 .....	81
〈그림 4-30〉 지역별 연간 문화예산 분포 .....	81
〈그림 4-31〉 지역별 시설개소당 관람객수 분포 .....	81
〈그림 4-32〉 지역별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분포 .....	81
〈그림 4-33〉 응답자의 가구소득 및 문화활동비 지출액 비교 .....	87
〈그림 4-34〉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 .....	89
〈그림 4-35〉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지도 .....	90
〈그림 4-36〉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 .....	90
〈그림 4-37〉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 .....	90
〈그림 4-38〉 거주지의 문화적 수준 인식도 .....	90
〈그림 4-39〉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	91
〈그림 4-40〉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시간 .....	92
〈그림 4-41〉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 .....	92
〈그림 4-42〉 문화활동의 동반자 .....	93
〈그림 4-43〉 문화활동의 행태 .....	93
〈그림 4-44〉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 .....	94
〈그림 4-45〉 문화시설이용의 불만족 이유 .....	94
〈그림 4-46〉 대전시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	96
〈그림 4-47〉 남양주시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	96
〈그림 4-48〉 경주시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	96
〈그림 4-49〉 구례군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	96
〈그림 4-50〉 문화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응답 .....	98
〈그림 4-51〉 원하는 문화생활의 장애요인 .....	98
〈그림 4-52〉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위한 필요요소 .....	99
〈그림 4-53〉 향후 문화활동 할애시간(한 달) .....	100
〈그림 4-54〉 향후 문화활동 할애비용(한 달) .....	100
〈그림 4-55〉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와의 관계도 .....	105

〈그림 5- 1〉 해외 복합문화시설 활용사례 .....	114
〈그림 5- 2〉 영국의 복합문화시설 이용사례 .....	115
〈그림 5- 3〉 인접지역 문화시설의 공동이용사례 .....	119
〈그림 5- 4〉 게릴라성 문화콘텐츠 제공사례 .....	121
〈그림 5- 5〉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공사례 .....	123
〈그림 5- 6〉 오프라인을 통한 문화정보 제공사례 .....	124
〈그림 5- 7〉 온라인을 통한 문화정보 제공사례 .....	125
〈그림 5- 8〉 SNS를 이용한 문화정보 제공사례 .....	126
〈그림 5- 9〉 지역문화 관련 법률간의 위계정립 .....	137



chapter I

서론



#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 내용 등의 개요를 서술하고,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책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와 전반적인 연구수행방법을 서술하고, 주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세기가 과학과 지식으로 대표되는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생명 존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시대사조도 인간의 다의적 사고를 존중하고, 환경의 다원적 가치가 강조되는 회고적 모더니즘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즉,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4대 국정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으로 설정하는 등 국민행복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융성 전략으로는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설정하였다. 특히, 문화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화참여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위원회 설치(2013.7.25), 문화기본법 제정(2013.12.30),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1.28)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문화권 조성사업, 문화도시, 문화클러스터, 역사문화역량 강화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1)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의 범위와 도시의 규모에 따른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적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이론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문화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주제,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고찰하고,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둘째, 지역문화 관련개념들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 및 문헌, 법규 등을 토대로 문화의 정의, 문화격차의 정의와 해소필요성, 문화시설의 법적 정의, 지역의 정의,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정립한다.

셋째,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변화동향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제기구와 선진외국의 지역문화정책 동향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는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사분석한다.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문화시설 통계자료를 토대로 문화시설, 문화콘텐츠<sup>1)</sup>, 문화향유기반, 문화향유정도라는 4개 부문 9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몇 개 관점에 따라 선정된 5개 지역주민 22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한다.

---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문화콘텐츠(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콘텐츠(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정의라는 법적 용어보다는 문화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보통명사로 정의하고자 함

다섯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상술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 2) 기대효과

### (1) 정책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역별, 도시규모별 등 지역의 범위에 따른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통계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은 전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기남부와 북부, 시도별 등으로 구분하고, 도시규모는 특광역시, 중대도시, 중소도시, 군급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대표적 사례지역들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를 면담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도시규모는 특광역시, 중대도시, 중소도시, 군급도시로 구분하며, 면담조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인식, 정책체감도, 문화향유만족도, 문화향유의지와 향유수요 등을 조사한다.

셋째,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만족도를 제고하며,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강화한다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 (2) 학술적 측면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도입배경과 변화추이를 고찰하고,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지역발전에서 시대별 문화의 등장배경, 주요 개념과 전략, 대표적 사례 등을 고찰한다.

둘째,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의를 도출하고 해소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이론들을 토대로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의와 발생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인권 차원, 공리주의적 관점, 분배의 정의, 사회적 갈등의 해소, 지역쇠퇴의 원인제공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격차의 해소필요성을 제시한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문화정책의 동향은 2014년까지의 변화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는 사용 가능한 최신자료(2013년)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통계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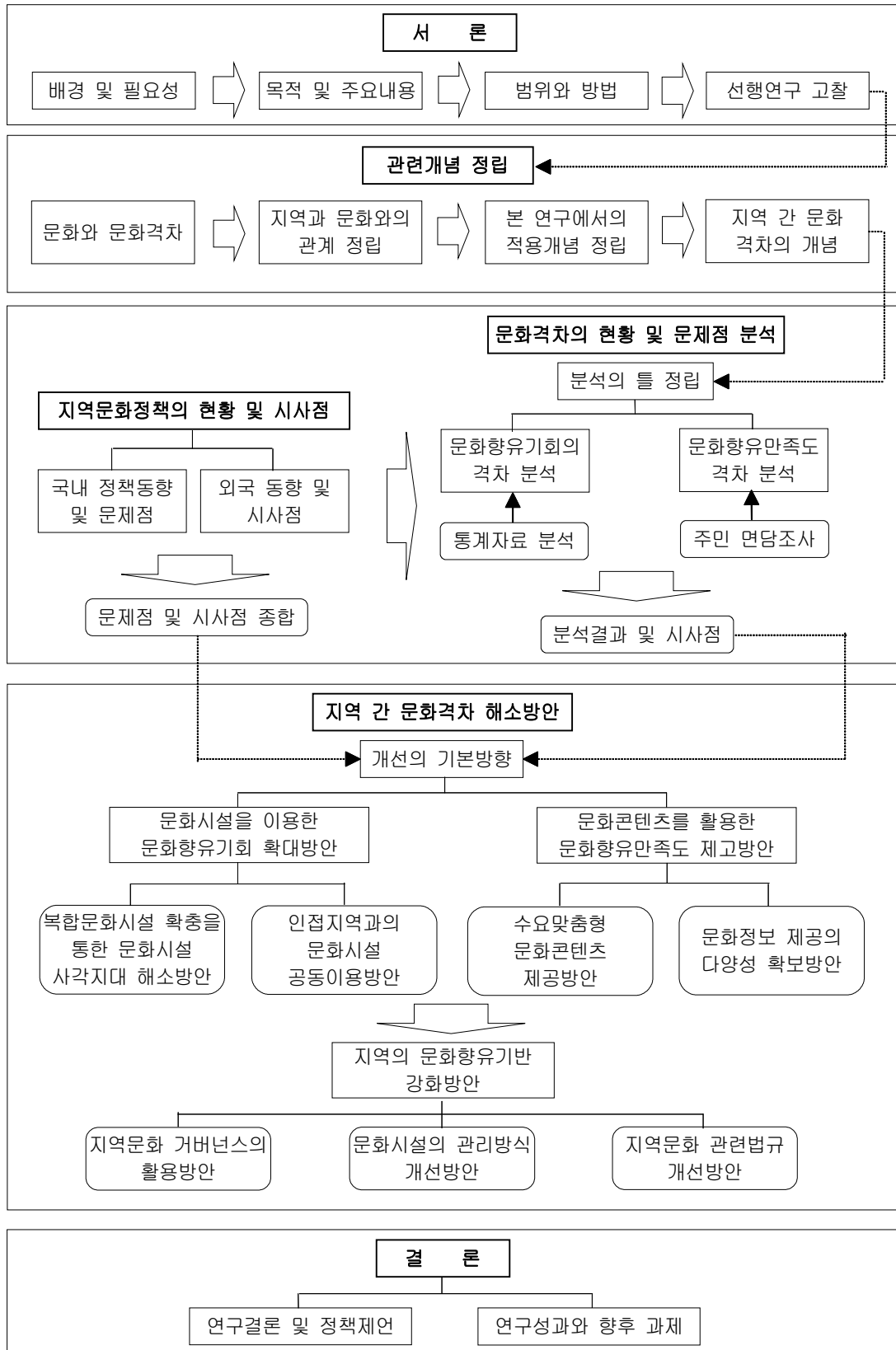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과 지역주민 면담조사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분석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자료를 기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별, 행복생활권 유형별, 도시규모별 등 지역의 범위를 변화시켜가면서 분석한다. 지역주민 면담조사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5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한 조사양식을 이용하여 1:1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내용적 범위는 지역의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를 형평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누려야 할 “생활문화”와 문화재나 자연환경과 같이 특정지역의 고유성이나 독특성에 기반한 “고유문화”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격차라고 볼 수 있는 생활문화에 중점을 두어 지역간 문화격차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며, 계층간의 문화격차도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외로 한다.

#### 2) 연구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지역주민 면담조사,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문헌조사에서는 문화와 문화격차관련 이론, 지역문화관련 선행연구, 정부정책발표, 문화관련 법규 등을 정리·검토한다. 통계조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관련통계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향유기회와 관련된 항목들을 도출하여 평균과 변이계수를 산정·비교한다. 지역주민 면담조사에서는 5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만족도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사례조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외국의 지역문화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문화를 이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한 국내외 사례도 조사한다.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체적인 연구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 선행연구 고찰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격차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분석한다는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최근의 연구보고서, 논문, 토론회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연구목적이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 (1) 국가차원에서의 지역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분석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들을 최근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3.6, 지역문화융성 대토론회”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맞아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세부 시행령 마련 등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지역문화 진흥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등을 다루었다.

“박은실 외, 2013, 지역상생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현황을 지역문화사업 및 콘텐츠, 지역발전 특별회계, 거버넌스 및 법·제도 등 주제별로 구분하여 정책대안과 10대 이슈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그동안의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류정아 외, 2012, 지역문화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도시, 문화전달체계, 문화인력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분석이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특정지역 내에서의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노동 외, 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문화기반시설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5개 자치구 내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분석하고, 자치구간 문화향유격차 해소 및 문화진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우 외, 2009, 경상남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경남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이 최소입지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3) 문화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서우석 외, 2010.12,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제학회”에서는 통계청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7회에 걸쳐 발표한 사회통계조사의 문화향수관련 조사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의 문화향수활동 증진과 문화격차 해소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도선 외, 2008,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에서는 인구, 교육, 도로,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5개 부문 25개 지표를 이용하여 Z-Score라는 표준화값을 산정하여 경북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

차를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비교하였다.

“조권중, 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을 학력과 소득에 따라 4개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에 따른 문화향유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의 향유수준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일수록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4) 지표를 이용한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도 규명 연구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지표로 나타냄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비교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류정아 외, 2013,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6개 분야 38개 지표를 선정하여 Z-Score라는 표준화값을 산정하여 전국 158개 지자체의 지역문화지수를 산정하고,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지자체간의 문화지표 격차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이나 범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지수화 결과만으로는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나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박용치, 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에서는 문화기반시설<sup>2)</sup>, 문화소프트웨어의 개수<sup>3)</sup>, 문화예산을 지표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문화격차를 비교하였으며, 인구 10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들의 분포비율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접근도와 관련이 큰 요인은 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연구주제,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에서 본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연구주제에서의 차별성이다. 선행연구들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보다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역문화 정책방향 제시, 특정지역

---

2)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유산,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원, 문화의 거리

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공연회수, 전시회수, 출판사, 인쇄소, 지역문화축제

내에서의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문화격차의 영향요인 도출 및 상관관계 규명, 지표를 이용한 지역 간 비교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로 규정하고, 전국을 230개 시군구를 기초로 지역의 범위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도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연구범위에서의 차이점이다. 선행연구들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분석하거나 국가차원에서의 지역문화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시군구를 기초로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서울 강남-강북, 경기 남부-북부, 도시규모별, 행복생활권 유형별 등 지역의 범위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연구방법에서의 차이점이다.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통계자료를 표준화한 지표(Z-Score) 이용, 설문조사, 문화사업 사례조사 등을 이용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비교였다. 그러나 종합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계량화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른 문화향유기회나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와 같은 분석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지표나 지수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평균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문화관련 여건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표 1-8> 본 연구와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및 차이점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제명 : 지역상생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방안 연구</li><li>• 연구자(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li><li>• 연구목적 : 지역문화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주제별 정책대안을 제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료조사 : 법규, 체계, 인력 조직 등</li><li>• 전문가 자문회의</li><li>• 통계자료 인용</li><li>• 법규 및 규정 인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고찰</li><li>• 지역발전과 문화정책의 관계</li><li>• 지역문화정책, 사업, 콘텐츠 현황 및 문제점 분석</li><li>• 정부의 정책지향점 제시</li><li>• 지역문화정책 10대 이슈 제시</li><li>• 지역특성에 대한 분석은 없고,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함</li></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제명 :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li><li>• 연구자(연도) : 대전발전연구원 (2012)</li><li>• 연구목적 : 대전시민의 문화 격차 원인과 기제규명 및 정책적 해소방안 제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li><li>• 대전시 자치구별 문화시설통계 정리</li><li>• 주민설문조사 : 1,000명</li><li>• 외국의 문화격차해소 사례조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격차의 정의, 발생요인, 해소원리 등을 정립</li><li>• 대전시민의 문화향유 실태분석</li><li>• 문화시설의 최소기준 충족방안</li><li>• 격차해소 및 문화진흥방안 제시</li><li>• 대상지역이 대전시로 한정됨</li></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제명 :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li><li>• 연구자(연도) : 이도산·노인만·윤기찬(2008)</li><li>• 연구목적 : 경북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 측정 및 분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행연구 검토 : 지역격차의 측정방법을 중심으로</li><li>• 지역격차 비교방법 : 표준화 (Z-Score) 및 Mann-Whitney 검정</li><li>• 통계자료 이용 : 경북통계연보, 경북도청 홈페이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남부권과 북부권의 격차 발생</li><li>• 국토·지역개발이 격차의 원인</li><li>•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제시</li><li>• 대상지역이 경북으로 한정됨</li><li>• 설문조사로 연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li></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제명 :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li><li>• 연구자(연도) : 문체부(2013)</li><li>• 연구목적 : 지역문화 현황파악 기준 마련 및 지역문화발전의 통계자료 생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표준화 방법(Z-score) 이용</li><li>• 전문가 조사 : 가중치 산정</li><li>• 문헌조사 : 문화자원조사</li><li>• 대국민 설문조사 : 8,660개 (3억 원)</li><li>• 선행연구 검토</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국 시도·시군의 문화수준총량을 수치로 표현</li><li>• 6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종합 문화지표를 산정</li><li>• 지역의 특성과 범위를 불고려</li><li>• 종합지표만으로는 향유기회나 만족도를 비교하기 곤란</li></ul>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제명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li><li>• 연구목적 : 지역 간 문화향유 기회와 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하여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헌조사, 선행연구 검토</li><li>• 문화관련 통계자료 분석</li><li>• 전문가자문, 공무원 면담</li><li>• 지역주민 면담조사</li><li>• 국내외 사례조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계분석을 통한 기회격차 분석</li><li>• 면담조사를 통한 만족도 격차의 정도와 원인분석</li><li>• 법규개선방안 제시 등</li></ul>

chapter II

관련개념 정립



## 관계개념 정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할 연구의 개념·범위·대상·방법 등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문헌, 법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문화와 문화격차, 지역과 문화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문화와 문화격차에서는 문화와 문화격차의 정의, 문화격차의 해소필요성, 문화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고찰한다. 지역과 문화와의 관계에서는 지역과 지역문화의 정의 그리고 지역발전과 문화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범위에 따른 지역 간의 생활문화 격차를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이용도가 높고 자료구득이 가능한 7개 법적 문화시설의 자료를 통계분석한다.

### 1. 문화와 문화격차

#### 1) 문화의 정의

문화란 사전적으로는 “학문·예술·도덕·종교·제도와 같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의 소산” 또는 “인류의 지식·신념·행위의 총체”로 정의되지만<sup>4)</sup> 철학·역사학·사회학·인류학 등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서 문화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sup>5)</sup>.

4) 두산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재정리하였음

5)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영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단어”라고 하였으며, 보로프스키(Robert Borofsky)는 “바람을 세우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함. 성제환 옮김(David Throsby 저), 2001, 문화경제학(Economics and Culture), 한울 아카데미 p21

일반적으로 문화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첫째,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이다. 이는 사회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태도, 가치관, 관습,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이다. 이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산물로 전통문화유산, 예술, 문화콘텐츠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셋째, 상징체계로서의 문화이다. 이는 문화가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이 중에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예술·창작활동이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권이나 문화복지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대상이 된다. 문화기본법(제3조)에서도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는 생활양식으로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향유기회나 향유만족도는 창의력이나 사고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지리적·정보적 격차들이 문화향유기회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간 문화격차의 해소가 핵심적 문화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문화격차의 정의와 해소필요성

문화와 마찬가지로 문화격차를 정의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의 관련연구들에서는 문화격차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sup>7)</sup>. 첫째, 문화활동에의 접근과 이용이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불평등 현상이다<sup>8)</sup>. 둘째,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유수준의 차이이

6) 박노동 외, 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7) 서우석 외, 2010.12,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010년 12월(특집)

8) 박용치, 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120~147

다<sup>9)</sup>. 셋째,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거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다<sup>10)</sup>.

문화격차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권 차원이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있어 문화적 차별해소라는 관점에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sup>11)</sup>. 둘째,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분배의 정의관점이다. 사회의 규범이나 기준에 의해 경제적·사회적 재화의 분배형태를 규정하거나 기존의 분배구조 내에서 구성원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관점에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갈등 해소의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격차가 크고 확대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분쟁의 원인이 되며, 격차가 크고 하층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도 저해되기 때문에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쇠퇴의 원인제공 관점이다. 문화는 일상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 관광, 복지 등과 연계되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적 쇠퇴는 지역의 쇠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3) 문화시설의 정의와 종류

문화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와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요소의 하나이므로 고찰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는 정부기관, 관련법규,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사전적, 개념적, 법적 구분관점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

9) 조권중, 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 조권중, 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 헌법 전문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해야 한다고 명시

사전적으로는 “문화를 누리고 향상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용어로는 “문화의 창조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된다<sup>12)</sup>. 개념적으로는 문화적 행위를 통해 삶의 다양성을 표출·수용할 수 있는 공공이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sup>13)</sup><sup>14)</sup>. 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공간으로서의 문화화된 공간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공간으로서의 문화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종합시설(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고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관련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시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sup>17)</sup><sup>18)</sup><sup>19)</sup>, 문화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문화예술

12) 다음사전(<http://dic.daum.net/>),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13) 한상우, 2009, 경상남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 경남발전연구원

14) 박노동 외, 2012.10,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1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16)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17) 라도삼, 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8) 이원태 외, 2004,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9) 김인수, 2000, 도시환경과 문화시설,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제3호, p.130.

향유공간이라는 시설적 기능, 둘째,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표출소통, 지역문화의 발현·창출·보존·특화, 지역문화환경의 조성 및 활성화 등과 같은 지역적 기능, 셋째,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교류, 지역사회의 문화적 커뮤니티 형성·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기능, 넷째, 문화교육 및 평생학습 등과 같은 교육적 기능, 다섯째, 주민들의 문화의식 제고, 문화향유기회 제공,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격차 극복이라는 공공적 기능,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 등이다.

이처럼 문화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표 2-1> 문화시설의 기능

기 능 구 분	내 용
시설적 기능	-문화예술의 향유공간 기능
지역적 기능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표출·소통, 지역문화의 발현·창출·보존·특화, 지역문화환경의 조성 및 활성화 기능
사회적 기능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교류, 지역사회의 문화적 커뮤니티 형성·확대 기능
교육적 기능	-문화교육 및 평생학습 기능
공공적 기능	-주민들의 문화의식 제고, 문화향유기회 제공,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격차 극복하는 기능
경제적 기능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능

자료 1. 라도삼, 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이원태 외, 2004,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3. 김인수, 2000, 도시환경과 문화시설,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제3호, p.130.

문화시설은 설치목적, 기능, 시설형태, 운영방식, 운영형태,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sup>20)</sup>,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5개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문예진흥원에서는 도서관, 문예회관, 종합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전시장, 국제회의장, 문화회관, 연극공연장 등 9개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

20) 양정필 외, 2006, 문화시설의 건립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부가 제시한 “창의한국”에서는 최소건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5개 시설로 구분하였다.

현행 법령에 나타난 문화시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문화시설의 위계는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을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는 문화시설을 도시기반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시설을 문화예술활동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로서의 문화시설의 종류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시설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라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표 2-2>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한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관을 대상에 포함하며, 문화산업진흥시설이나 문화산업단지는 본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표 2-2> 문화시설의 구분과 종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문화 시설 (국토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 (문체부)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고 려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마을문고	
		지정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복합시설(문예회관) : 이상의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	
	-과학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정시설	불고려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 관련활동을 위해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불고려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7개 문화시설의 법적 정의는 <표 2-3>과 같다.

<표 2-3> 분석대상 문화시설의 정의와 근거법령

구 분	법적 정의	근거법령
영화관	-영화상영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로서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비상설상영장)을 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2조
박물관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공중의 문화향유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미술관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
도서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 하는 시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
지 방 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다음 시설을 갖춘 법인 ·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제6조 제1호, 시행령 제4조
문 예 회 관	-공연·전시·행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문화 공간으로서 연극·무용·오페라 등 공연행사 및 전시회 개최나 지역행사·학술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 2
과학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료 : 각 법령

## 2. 지역과 문화의 관계

### 1) 지역 및 지역문화의 정의

지역이란 다음과 같이 사전적, 학술적, 행정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연적·사회적·인문적 환경들이 상호작용하여 그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형성하는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전적으로는 “자연적·사회적·인문적·문화적 환경이 유사하여 일정한 목적과 방법에 의해 구획되어진 동질적 특징을 가지는 추상적인 지리적 공간영역”이라고 정의된다<sup>21)</sup>. 학술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유일한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지만<sup>22)</sup> 하비 펄로프 등은 “일반적으로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거나 광범위한 지역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한 무리의 공간범위<sup>23)</sup>”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국토·지방·지역·도시·지구라는 순위로 쓰이기도 하며, 용도지역과 같이 일정한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의 범위”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sup>24)</sup>.

지역문화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가치관, 관습, 지역의 문화유산, 예술활동 등과 같이 지역에 기반한 문화적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sup>25)</sup>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문화다양성으로 발현되어 지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증대시킬 수 있다.<sup>26)</sup> 또한, 지역문화는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수요 충족, 지역 간 불균형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지역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이미지 제고 등의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다.<sup>27)</sup>

---

21) 네이버 사전(<http://krdic.naver.com/>), 다음 사전(<http://dic.daum.net/>)

22) Richardson H.W., Regional Economic Growth, London : Macmillan, 1973, p. 6.

23) Perloff H.S. etc., Region,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Baltimore : Resources for the future, 1960, p. 4.

24) 건축용어사전, 2011, 현대건축관련용어 편찬위원회, 성안당

25) 전지훈 외, 2014, 공동체 활동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구 :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503~534

26) 류정아 외, 2012, 지역문화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처럼 지역문화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을 의미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 논의라 할 수 있다.<sup>28)</sup>

<표 2-4> 지역문화의 정의

연도	구 분	주요 문화활동
2004	심웅섭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를 담당자로 하는 문화
2001	전문가 토론회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아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소산 또는 그 과정
2014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자료 1. 심웅섭, 2004, 21세기를 맞이한 지방문화 육성전략, 지방정부연구, 8, 2:27-49  
 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11.12., “지역사회, 지역문화” 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3. 지역문화진흥법, 2014.7.29. 시행, 제2조 제1호

## 2) 문화와 지역발전<sup>29)</sup>

문화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이후 산업도시들이 쇠퇴하면서 문화·관광분야를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문화·예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전략을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 하였다.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독일 루르 공업지역의 엠셔파크나 영국 셰필드와 같은 유럽의 몇몇 공업도시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sup>30)</sup>. 그러나 외부인 유입을 위한 도시이미지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27) 서순복 외, 2008,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 3: 241-267

28) 전지훈 외, 2014, 공동체 활동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구 :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503~534

29) 전지훈 외, 2014, 공동체 활동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구 :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503~534

30) 이병훈, 2010,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속성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 2: 193~210

소외되고, 지역의 정체성도 파괴되었으며, 사회양극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sup>31)</sup>.

그 후 1985년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프로그램”이 문화를 도시변화의 핵심요소로 받아들이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계시키는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매년 유럽의 도시들을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도시재생적 프로그램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문화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문화산업을 결합시키는 개념으로 변화하였고, 2005년부터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성을 지니는 “창조도시”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는 도시재생이라는 필요성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시설과 문화이벤트 개최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적 문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2-5>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변화

구분	1970~1990년대 (장소마케팅)	1980년대 후반 (문화도시)	2000년대 이후 (창조도시)
등장 배경	-산업도시의 쇠퇴이후 제조업을 대신할 도시의 선도사업으로 문화관광분야가 대두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독자적 역사·문화적 매력 창출이 필요했음	-문화예술을 포함한 창의성을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의 근본요소로 인식
개념	-문화관광을 활용해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개념	-공동체의 문화적 감성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 문화적 방법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	-창의적 도시환경과 창조계급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주요 전략	-도시의 랜드마크 건설 -대규모 문화시설 건설 -예술적 도시미관·경관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중심의 도시재생과 지역개발 -지역문화산업 창출 및 형성	-창조계급과 관련기업을 유치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 활성화 -유연하고 창의적인 융·복합 산업구조를 형성
사례	-리버파크, 리버풀	-글래스고, 셰필드	-볼로냐, 가나자와

자료 : 전지훈 외, 2014, 공동체 활동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구 :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509

31) 박은실, 2005,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17:11~39

OECD에서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첫째, 문화는 국가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나 일자리 창출, 수출, 세수 확보 등과 같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다. 둘째,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문화는 삶의 질 제고, 관광수입 확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문화관광, 문화지구, 문화구역 등이 핵심적인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문화는 지역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른 활동들을 위한 촉매제로서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나 지역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육, 파트너십, 세금 경감,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와 관련된 주요 분야와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표 2-6>과 같다<sup>33)</sup>.

<표 2-6> 문화정책 수립·추진시 고려사항

구 분	주요 고려사항
문 화 와 국가계획	-국가계획에서는 주로 문화의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문 화 와 경제개발	-문화적 활동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낮게 평가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나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도 미흡함
문 화 와 교 육	-예술적 관심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자립이나 자기개발을 자극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함
문 화 와 건 강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은 건강해야 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
문 화 와 환 경	-어느 지역이나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활동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문 화 와 스 포 츠	-스포츠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회를 통합하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적인 위락·여가활동을 증진하여야 함

32) <http://www.oecd.org/regional/leed/cultureandlocaldevelopment.htm>

33)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997, Regional Cultural Policy of the Caribbean Community

(계속)

구 분	내용
문 화 와 관 광	-관광은 경제적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 화 와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의 인식, 가치,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문 화 와 여 성	-어느 지역이나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함
문 화 와 기 술	-문화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전통적인 기술을 보존해야 함

자료 :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regional/leed/cultureandlocaldevelopment.htm>)

### 3. 본 연구에서의 적용 개념

#### 1) 지역문화와 지역간 문화격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론들의 고찰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관련개념들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문화로서의 개념을 포괄하는 문화기본법상의 정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지역문화)를 형평성과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문화”와 차별성과 독특성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한 “고유문화”로 구분하고자 한다.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생활문화는 지역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문화관련 시설의 종류나 수가 다를 수

있고, 문화콘텐츠나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라 할 수 있다. 즉, 대도시 자치구에 사는 주민이나 군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생활수준으로서의 문화는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콘텐츠의 종류나 수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유문화는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어떤 지역이나 도시가 특정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도시도 같은 종류나 규모의 문화재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논리성이 미흡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만의 역사, 관광지, 환경, 축제, 문화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과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문화로서의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문화격차의 개념도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가 정책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술적 정의보다는 정책적 정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즉, 문화격차란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거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이러한 관련개념들을 토대로 지역간 문화격차를 지역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평균(절대적 격차)과 변이계수(상대적 격차)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된 5개 대상지역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개념뿐만 아니라 분석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분석과 같은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향유기회와 향유만족도 격차의 해소라는 연구목적, 자료수집의 용이성, 지역문화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대상지역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군구별 분석결과를 기초로 도시규모와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한다. 또한, 통계분석의 대상 문화시설은 법적 문화시설 중에서 이용도가 높고, 자료구득이 가능한 7개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복합시설(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국·공립 과학관, 영화관)로 한정한다.

chapter III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관련문헌, 선행연구, 인터넷조사 등을 통해 국내외 지역문화정책의 변화동향과 변화추이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 변화연혁과 동향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외국의 지역문화정책 동향과 특징적 법규나 제도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 1.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1) 문화정책의 변화 연혁 및 동향<sup>34)35)36)37)</sup>

##### (1) 1970년대 : 문화정책의 태동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된 이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철학과 주체성에 기반한 문화예술유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자

34) 박은실 외, 2013, 지역상생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5) 서우석 외, 2010.12,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010년 12월(특집)

36) 한상우 외, 2009.10, 경상남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37)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646>)

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도 설립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문예중흥선언을 발표하였으며, 1974년에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74~’78)”을 수립·추진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예술의 생활화와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문화정책의 목표는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이어서 문화예산의 60%이상을 문화재 보존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1980년대 : 지역문화정책의 인식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에 문화정책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1979년 수립한 “제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9~1983)”을 토대로 1981년에는 창조적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창작기반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라는 정책기조 하에 “1980년대 새문화정책”을 발표하였고, 문화시설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문화공보부와 내무부에서 “지역의 긍지 선양”과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지방 문화예술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sup>38)</sup>

또한, 1983년에 수립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중 문화예술부문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1980년대 새문화정책”을 흡수시켰으며, 문화정책의 목표도 “민족문화 창달”에서 “문화복지”로 전환되었다.

1984년에는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의 생활화를 통한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문화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정책의 지향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도별 종합문화회관 건립, 이동박물관, 이동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

38) 이 계획에서는 지방문화시설 확충, 지방문화원 활성화, 지방종합예술제 육성, 지역별 향토 축제 개최, 지방미술전람회 대회, 지방연극제 개최, 예술행사의 지방순례 및 교류확대, 지방문화진흥기금 조성 등 균형발전의 개념을 도입함

계속되었다.

1989년에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문화격차 문제를 국민총화의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과 지방 또는 지역 내에서의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는 지역간·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시설의 확충과 예술의 지역적 확산에 주력하였다<sup>39)</sup>.

### (3) 1990년대 : 문화와 지역의 연계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에 관심을 두었으며, 문화가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영역과 결합되면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즉,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격차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수립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문화부문사업이 포함되었고, 1994년에는 문화부 내에 문화산업국이 만들어지는 등 문화가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와 연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축제, 문화행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를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문화체육부에 문화복지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과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등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발표된 “새문화 관광정책”에서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sup>40)</sup>. 이처럼 1990년대는 문화복지가 정책적으로 심화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9) 이동기, 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원태 외, 2004,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세훈 외, 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에서 인용함

40) 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문화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공동체 문화공간조성, 양적 보급 수준의 확대와 질적 운영개선 도모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추진함

#### (4) 2000년대 : 문화와 도시의 결합

2000년대에는 도시재생과 연계된 문화전략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였고, 2003년에는 문화환경가꾸기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문화 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2003년에는 문화시설의 확충보다는 전국적인 균형배치,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등을 정책기조로 하는 “문화비전 중장기계획”이 발표되었다.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의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중앙에 집중된 문화적 권한을 분산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 도시를 비롯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도 발표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는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정책이 연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5) 2010년대 :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2008년부터는 지역문화의 창조역량 강화와 국민복지에 중점을 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이 지역문화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상생발전을 추진<sup>41)</sup>하였다.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별로 부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전통시장 상인과 같이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문화권 향유를 위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문화시설의 접근성 제고,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과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41) 지역발전위원회, 2008, 제1차 지역발전정책 보고대회

#### (6) 2013년 이후의 최근 동향

2013년부터는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문화융성위원회 설치(2013.7.25.), 문화기본법 제정(2013.12.30.),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1.28.) 등 지역문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 7월에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자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의 기본방향, 국가전략, 정책의 수립·시행·개선, 문화융성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공감대 형성, 사회 확산, 문화융성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2003년 4월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최근 “지역 문화융성”을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이 행복한 문화공간 확대, 지역맞춤형 문화서비스 확대, 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 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 문화향유 시설로의 접근성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체육·관광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표 3-1> 지역문화정책의 시대별 변화

구 분	구 분	주 요 정 책	문화정책의 변화동향
1960년대	1968년	-문화공보부 발족	-문화정책의 태동 -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1970년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화예술기금 설치,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1973년	-문예진흥선언 발표	
	1974년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74~'78) 수립	
	1979년	-제2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79~'83) 수립	

(계속)

구 분	구 분	주 요 정 책	문화정책의 변화동향
1980년대	1981년	-1980년대 새문화정책 발표	-지역문화정책의 인식
	1983년	-지방문화예술 화성화 종합계획 수립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수립 (1980년대 새문화정책 흡수)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계획 수립
	1984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 수립	
	1989년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수립	
1990년대	1992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문화와 지역의 연계
	1994년	-문화부 내에 문화산업국 설치	-문화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구
	1996년	-문화체육부 내에 문화복지기획단 설치	-문화복지정책의 심화발전
	1998년	-새 문화관광정책 발표	
2000년대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정책의 연계
	2003년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문화비전 중장기계획 발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2010년대	2008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추구
2013이후	2013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향유권 확보 추구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2)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라는 본 연구의 관점을 토대로 최근의 선행연구<sup>42)</sup>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정책의 지향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산업이나 문화관광과 같이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문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향유나 문화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부문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적 지향점이 불분명하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바람직한 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42) 박은실 외, 2013, 지역상생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달해야 할 수준이 수도권과 지역과의 격차해소인지, 전국이 도달해야 할 공통의 수준이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인구규모나 도시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1개 지자체당 1개의 문화시설을 설치해 왔기 때문에 거주인구와 문화시설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자체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존의 지역문화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문화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형 등 유형별로 세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계량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 인구 구조, 인구 유출입, 교통·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전 등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현재까지의 문화정책이 주로 문화시설의 설치와 같은 통계수치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향유만족도와 같이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지역문화정책 추진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역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지역에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지만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 2. 외국의 지역문화정책 동향 및 시사점

### 1) 세계적 동향<sup>43)</sup>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대 무렵부터 “문화와 지역발전”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문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1988년에는 개발에 있어서 문화적 차원을

---

43) 박은실 외, 2013, 지역상생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려하여야 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를 확장하며, 국제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문화발전 10년”을 발표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문화발전위원회에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1년에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2005년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에서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명시하였다. 2010년 제65차<sup>44)</sup>, 2011년 제66차<sup>45)</sup> 유엔총회에서 “문화와 발전”이라는 의제를 연달아 주요 결의안으로 채택함으로써 문화가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 2) 주요 국가의 동향

### (1) 영국<sup>46)</sup>

영국에서는 최근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등 지역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지원, 복지개선,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언론·디지털·방송·모바일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담당하고,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이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DCMS에서는 문화예술부문에 대하여 산하기관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은 보장하지만 관리는 정부에서 한다는 원칙을

---

44) A/RES/65/166

45) A/RES/66/442

46) 영국 DCMS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sport>)

수립하고, 시설의 인증, 평가, 재원, 투자, 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다. DCMS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문화예술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 영국예술위원회(ACE : Art Council England)와 3년마다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ACE에 대한 평가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ACE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문화정책 발전기금의 운용, 예술기관 지원감독·평가, 국민문화복권기금의 조성 및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예술체육정책은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과 국가계획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서 수립된다. 지역주권법(LA)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c.20)이며, 지자체의 자유와 경영유연성, 권리와 능력, 지역계획시스템의 개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계획정책기본계획에서는 건강·사회·문화복지의 개선을 고려한 지역전략계획, 사회·문화환경, 문화유산, 체육시설, 시설계획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지역별 시설입지의 성공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계획 프로그램 사이트<sup>47)</sup>에서는 관련 재원·기금·펀드, 자금지원기관,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지역시설부담금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sup>48)</sup>, 스포츠 영국(Sport England)에서는 지역공동체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추진단체에게 복권, 국고, 기금, 펀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 일본<sup>49)</sup>

최근 일본에서는 문화확산과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문화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청 산하에 예술전문기관, 자문위원회, 독립운영기관(국가예술박물관, 국가문화유산협회, 일본예술위원회)을 설치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여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술과 접할 기회가 적은 시민이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급·확

47) Culture and Sport Planning Toolkit

48)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Regulation 2010, reg. 123

49) 한일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http://www.kjc.or.kr>), 일본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청 홈페이지에는 최근의 관련 활동, 이벤트,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린이 문화교실(Culture Class for Kids)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예술증진기본법에 근거하여 “극장, 음악당 등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3년에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둘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 전국의 공립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결과, 문화시설의 관리비용은 매년 증가한 반면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시설의 신축이나 개선을 자제함으로써 정부의 문화시설 건설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문화관련 비용도 199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기존 문화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들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소규모 민간지역업체가 지역재생이나 지방도시개발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말에 설립된 일본예술기금(Japan Arts Fund)에서 약 650억 원을 확보하여 광범위한 예술문화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3) 미국

미국은 주로 각 주정부, 도시, 민간의 비영리 후원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6년 연방정부에서는 “국가예술후원기금공단(NEA :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설립하고, 주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NEA의 기금을 활용하여 주정부, 도시, 비영리 후원단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들을 연구하는 등 문화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NEA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폭넓은 예술작품 등을 수집·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예술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개인의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예술기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대중성이 없더라도 특별한 분야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한다. 넷째, 전국건축계획디자인협회(National Institute of Architectural Planning & Design) 등을 통해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다섯째, 공공건물은 전체 건축비의 1%를 예술품 설치에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NEA의 후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기업체의 후원문화재단 등을 통해 예술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NEA에서는 공공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문화정책의 다양성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66년에는 “관리 및 예산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예산 운영과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업활동 수행법(Performance of Commercial Activities : Circular A-76)”을 제정하였다. 1983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에 민간부문이 참여함으로써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Circular A-76을 개정하였다.

#### (4) 호주

호주의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부(Ministry for the Art)에서는 국가의 문화정책 비전을 “창조적인 호주(Creative Australia)”로 선정하였다<sup>50)</sup>. “창조적인 호주”란 호주문화가 가지는 다양성과 포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호주의 문화를 경제적·사회적 성공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보리지널 및 토레스 해협 원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들의 토착문화를 계승발전시켜 호주문화의 독특성을 창조한다. 둘째,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국민생활, 사회복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문화분야

50) 호주정부 홈페이지(<http://www.australia.gov.au/>)

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문화혁신, 창조적 콘텐츠 개발, 지식·창조산업 지원을 통한 창조적 호주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첫째, 자금지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교부금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분야의 문화관련 파트너십 지원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창조적 표현 및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및 보편적 문화교육을 강화하며, 호주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예술부·교육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초등학교에서 문학,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문화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다목적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21세기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이익을 국민생활과 연계시키기 위해 창조적 문화산업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지역도서관, 지역 유물, 문화센터, 역사적 건물, 음악·예술센터 등 문화관련 기반시설의 신축관리에 다양한 교부금을 지원<sup>51)</sup>하고 있다. 이러한 교부금을 지원받아 실행된 Bankstown의 예술센터 및 포어코트, 이원스텔(Ewingsdale) 스포츠 및 문화센터, 캐서린 지역의 자동차 없는 문화상업지구 개발 등은 문화와 지역발전을 연계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이상에서 고찰한 세계적 동향 및 선진외국의 지역문화정책 동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를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 등에서는 문화와

---

51) 지역공동체 기반시설 프로그램(Regional and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Program), 지역개발 호주 펀드(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Fund), 지역공동체 기반시설 교부금 프로그램(Community Infrastructure Grants Program), 지역발전 및 동킴벌리 개발 패키지 펀드(Better Regions and the East Kimberley Development Package) 등

지역발전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호주에서는 문화와 지역개발을 접목시켜 각종 예술센터, 스포츠 및 문화센터, 문화상업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공사례를 이루어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전국 건축계획디자인협회 등을 통해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는 그동안의 지역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시설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문화시설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 기존의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극장, 음악당 등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수요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더 이상 문화시설의 설립기준과 같은 공급 위주의 양적 시설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문화시설의 인증이나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각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특성있는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예술위원회나 미국의 국가예술 후원기금공단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일본 예술기금, 미국의 국가예술 후원기금공단, 영국의 복관기금펀드, 호주의 교부금 지원 등은 안정적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성된 재원은 개인, 문화단체, 지자체,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기구와 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행사, 교부금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사이트나 지자체의 홈페이지 활용 등은 참고할 만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chapter IV

##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도와 원인을 규명한다.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향유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시군구별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른 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한다.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도시규모별로 대표적인 지역 5곳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 조사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한다.

### 1. 분석의 틀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 간 문화격차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지역 간 문화격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표 4-1>과 같이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시군구별 문화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5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표 4-1>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분석목적	분석관점	분석방법	분석항목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지역 간	문화향유	통계자료	문화시설의 개수	문화프로그램수	문화시설 직원수	관람객 수
문화격차	기회의 격차	분석	문화시설의 면적	연간 문화공연일수	운영예산 규모	문화시설당 집객력
현황 및	(공급자원)					프로그램당 집객력
문제점	문화향유	지역주민	선호시설방문횟수	선호콘텐츠활동빈도	활동의 지역적 범위	문화인식 및 체감도
분석	만족도 격차	면담조사	시설이용 만족도	문화활동의 행태	인접시설 이용도	향유의지와 수요
	(수요자원)		시설로의 접근성	문화활동 제약요인	만족도 제고 항목	할애가능 시간비용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분석방법에 따라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므로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이용하였던 표준화 지표값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군구별 종합지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신 도시의 규모나 지역의 범위에 따른 분석항목별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주민 면담조사는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목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지역의 도시규모(위계), 시도별 위치, 지리적·사회적·생활권별 특성,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수도 통계적 의미를 가지도록 유효응답자가 최소한 30명 이상 되도록 설계하였고, 조사결과는 SPSS 등의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가를 검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통계분석결과와 지역주민 면담조사가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한 개선의 기본방향은 지역 간 문화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와 지역주민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 2. 통계분석을 통한 문화향유기회의 격차 분석

### 1) 분석개요

#### (1) 분석목적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간의 문화격차는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이용한 지수화를 이용하여 시군간의 문화격차를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요소의 선정, 적절한 지수화 기법의 선정, 가중치 산정, 지역의 지리적·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시군구간의 상대적인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비교하기 보다는 분석지역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지역의 범위를 수도권, 행복생활권, 시도, 도시규모별 등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분석결과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2) 통계분석의 장단점

통계분석은 장단점은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문화시설 개소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인당을 기준으로 통계분석하는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들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설치여부,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 보는 현행 법규들을 고려할 때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1인당을 기준으로 통계분석하는 방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문화시설의 개소수가 적더라도 지역 내 인구수가 작을수록 1인당 문화시설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급도시보다 인구수가 작은 군급도시의 문화적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현재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문화시설 개소수가 같더라도 수치적으로는 1인당 문화시설 개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이 쇠퇴하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문화시설 개소수를 기준으로 통계분석하는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 개소수당 연간 관람객수·이용객수, 보유자료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을 살펴보면 해당 문화시설의 규모나 이용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소수를 파악하면 문화시설의 지역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시설의 부족이나 지역적 편중 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반면, 문화시설 개소수를 기준으로 통계분석하는 방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의 개소수만으로는 시설의 규모,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종류, 인접지역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분석지역의 지역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문화시설의 개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분히 작위적인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분석의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사용가능한 유용한 분석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지역들을 선정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계분석결과의 의미를 검토한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12.31. 기준)<sup>52)</sup>”, “영화진흥위원회, 2014, 2013년 한국영화산업 통계보고서<sup>53)</sup>”,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연도별 과학관 현황<sup>54)</sup>” 등이다.

---

52)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web/s\\_data/statistics/statView.jsp?pSeq=729&pMenuCD=040801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B%AC%B8%ED%99%94%EA%B8%B0%EB%B0%98%EC%8B%9C%EC%84%A4](http://www.mcst.go.kr/web/s_data/statistics/statView.jsp?pSeq=729&pMenuCD=040801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B%AC%B8%ED%99%94%EA%B8%B0%EB%B0%98%EC%8B%9C%EC%84%A4))

53)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kofic/business/board/selectBoardList.do?boardNumber=2>)

54)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www/brd/m\\_160/view.do?seq=318](http://www.msip.go.kr/www/brd/m_160/view.do?seq=318))

### (3) 분석기준 및 분석항목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향유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변화시켜가면서 분석항목별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4개 부문 9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 부문은 문화시설의 개소수, 문화시설의 규모(시설면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부문은 운영 중인 문화프로그램 개수, 연간 공연일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문화향유기반 부문은 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수, 문화시설의 연간 운영예산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문화향유정도 부문은 연간 문화시설 관람객 수, 문화시설당 집객력(관람객 수/문화시설 개소수), 운영중인 문화프로그램당 집객력(관람객 수/운영 프로그램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비교기준을 평균값과 변이계수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균값은 절대적 관점에서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변이계수<sup>55)</sup>는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를 비교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평균값이 크다는 것은 해당 항목의 절대적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이계수가 크다는 것은 분석지역 내 시군구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값이 크고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지역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하고, 평균값이 작고 변이계수가 클수록 열악함을 의미한다.

### (4) 분석지역

분석지역은 다음과 같이 전국, 도시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국 분석은 통계적 관점에서 전국 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등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향유기회 현황을 가늠하였다.

도시규모별 분석은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도시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이 되고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광역시(자치구), 시급 도시(중대도시, 중소도시), 군급 도시로 구분하였다. 시급도시의 평균인구수는 30만 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중대도시(30만 명 이상)와 중소도시(30만 명 미만)를 구분해 보면, 중대도시의 평균인구수는 60만

---

55) 일반적으로 변이계수가 0.05 이하이면 변이가 작음, 0.06~0.14 이내이면 변이가 보통, 0.15 이상이면 변이가 큰 것으로 판단함

명, 중소도시의 평균인구수는 16만 명 정도이다. 또한, 광역시내 군급도시의 평균인구수가 12만 명으로 일반 군급도시의 평균인구수 5만 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도시의 평균인구수 16만 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표 4-2> 도시규모별 평균 인구규모

구 분	단위	전 국 시군구	특·광역시 자치구	시급 도시		군급 도시	
				중대도시 (30만 명 이상)	중소도시 (30만 명 미만)	군급도시 전 체	광역시내 군급도시
시군구수	개	230	69	25	52	79	5
인 구 수	만 명	22	33	60	16	5	12

자료 1. 행정자치부, 2014, 2013년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3.12.31. 기준)

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rcps.egov.go.kr:8081/>)

<표 4-3> 도시규모별 평균인구수

(단위 : 개, 명)

구 분	시군구 수	시군구당 평균인구수	구 분	시군구 수	시군구당 평균인구수
특광역시 자치구			시급도시 평균	77	307,948
서울특별시	25	407,813	30만 이상	25	606,182
부산광역시	15	228,261	30만 미만	52	164,566
대구광역시	7	331,611	군급도시 평균	79	50,782
인천광역시	8	344,649	광역시 내 군		
광주광역시	5	293,843	부산 기장군	1	114,566
대전광역시	5	304,917	대구 달성군	1	184,366
울산광역시	4	234,854	인천 강화군	1	66,752
계/평균	69	327,984	인천 옹진군	1	20,039
전 국	230	50,948,272	울산 울주군	1	207,840
시군구 평균		221,514	계/평균	5	118,713

자료 1. 행정자치부, 2014, 2013년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3.12.31. 기준)

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rcps.egov.go.kr:8081/>)

지역별 분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행복생활권 유형별, 시도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과 비수도권의 비교에서는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 지역,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행복생활권 유형별 비교에서는 3개 행복생활권(중추도시권(20개), 도농연계권(13개), 농어촌 생활권(21개)) 유형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시도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 2) 분석결과

### (1) 전국

#### ① 현황

전국의 인구수는 5,095만 명이고, 지난 10년(2002~2012)간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0.564%, 전국 지역내 총생산(GRDP)은 12조 1,711억 원이다. 문화시설 측면에서 7개 문화시설의 개소수는 2,599개, 문화시설의 규모(건물면적)는 6,537만<sup>m</sup>²이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는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5,458개, 공연일수는 연간 2만 6,408일이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직원수는 2만 1,122명, 연간 운영예산은 9,080억 원이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는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4억 3,263만 명이며, 문화시설 개소 당으로는 연평균 3,416만 명, 운영중인 문화프로그램 당으로는 연평균 2,861만 명에 해당한다.

#### ② 전국 시군구당 평균값

전국 시군구(자치구)는 총 230개이고, 시군구당 평균인구수는 22만 1,500명이었다. 문화시설 측면에서의 시군구당 문화시설 개소수는 평균 11.30개, 문화시설의 규모는 평균 28.42만<sup>m</sup>²이었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는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평균 23.73개, 공연일수는 연평균 114.82일이었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직원수는 평균 91.83명, 연간 운영예산은 평균 39.48억 원이었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는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188만 명, 문화시설 개소 당으로는 연간 14.85만 명, 운영중인 문화프로그램 당으로는 연간 12.44만 명이었다.

#### ③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분석항목 중에서는 문화시설 규모의 변이계수가 1.881로 가장 커 시군구간의 격차가 가장 컸다. 운영중인 프로그램수(1.411),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1.401), 연간 운영예산(1.168),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1.166) 등도 시군구간의 격차가 큰 항목들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시설 개소수(0.779)나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0.757)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변이계수가 0.150을 넘어 수치적으로 시군구간의 항목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국 시군구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구 분	인구 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시설 개소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공연일수 (일)
계	5,095	2,599	6,537	5,458	26,408
표준편차	21.31	8.80	53.45	33.48	154.12
평 균	22.15	11.30	28.42	23.73	114.82
변이계수	0.962	0.779	1.881	1.411	1.342

(계속)

구 분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 (만 명/년개)
계	21,122	9,080	43,263	3,416	2,861
표준편차	126.91	46.11	219.28	11.25	17.43
평 균	91.83	39.48	188.10	14.85	12.44
변이계수	1.382	1.168	1.166	0.757	1.401

-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12.31. 기준)  
 2. 영화진흥위원회, 2014, 2013년 한국영화산업 통계보고서  
 3.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연도별 과학관 현황

## (2) 도시규모별

### ① 현황

특광역시 자치구의 인구수는 2,263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808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2,035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1억 7,1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도시의 인구수는 1,515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603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1,249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1억 2,432만 명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인구수는 856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616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1,159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9,486만 명으로 나타났다. 군급도시<sup>56)</sup>의 인구수

56) 광역시 내 5개 군 포함

는 461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572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1,015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4,201만 명으로 나타났다.

## ②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1.30개)을 상회하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60%에 불과하였다. 문화시설의 규모도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8.42만㎡)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36%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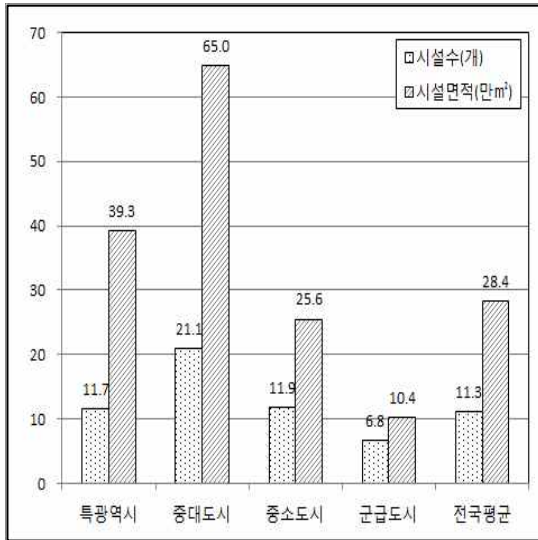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3.73개)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51%에 불과하였으며, 연간 공연일수도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14.82일)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37.5%에 불과하였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91.83명)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36.5%에 불과하였으며, 연간 운영예산도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39.48억 원)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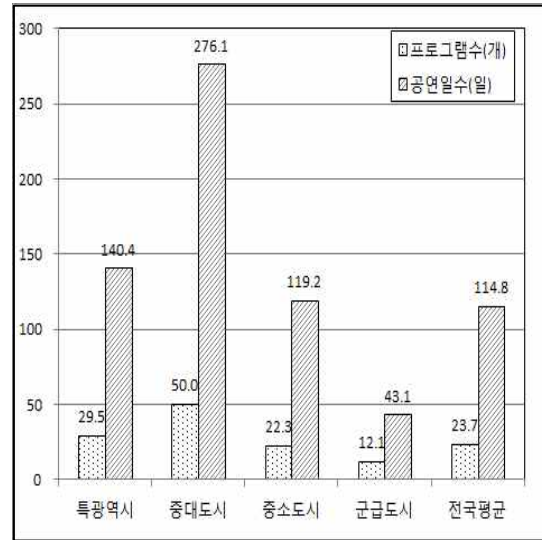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88.10만 명)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26.6%에 불과하였으며,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도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4.85만 명)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도 도시지역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2.44만 명) 이상이지만 군급지역은 전국평균의 41.1%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와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다른 도시규모보다 크게 나타나 대도시일수록 문화시설이나 문화콘텐츠의 집객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들은 중대도시, 특광역시 자치구, 중소도시, 군급도시 순으로 평균규모가 작아지며, 특히 군급도시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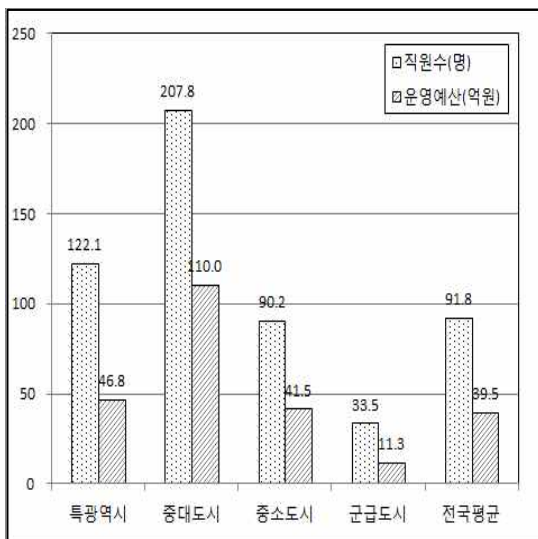
<그림 4-1> 도시규모별 문화시설 여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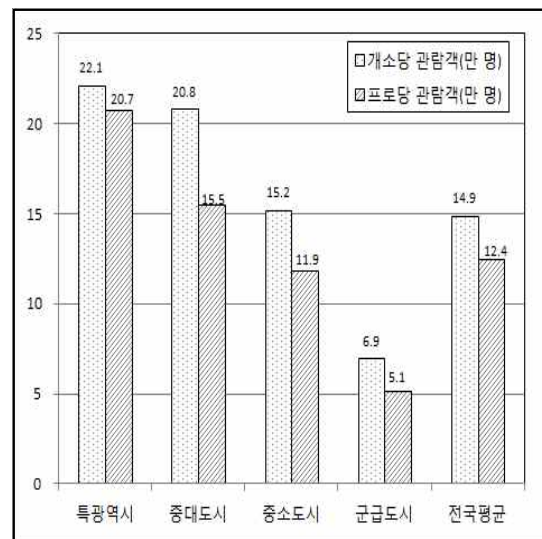
<그림 4-2> 도시규모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그림 4-3> 도시규모별 문화향유기반 비교



<그림 4-4> 도시규모별 문화향유정도 비교



### ③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특광역시 자치구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특광역시 자치구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특광역시 자치구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중소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군급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군급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특광역시 자치구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중소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군급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군급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중대도시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특광역시 자치구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향유기반,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중대도시간의 격차가 다른 도시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향유정도 측면 중 일부항목인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와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를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자치구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분석지역 내의 격차는 특광역시 자치구, 군급도시, 중소도시, 중대도시 순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도시규모별 변이계수 비교

구 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문화시설	운영중인	공연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연간이용객	시설당	프로그램당
	개소 수	면적	프로그램수				및 관람객수	관람객	관람객
특광역시	0.739	2.196	1.635	1.171	1.361	0.885	0.860	0.515	1.255
중대도시	0.440	0.598	0.784	0.989	0.751	0.543	0.595	0.504	0.779
중소도시	0.640	0.859	0.885	0.805	1.086	0.977	0.869	0.643	1.101
군급도시	0.555	1.389	0.946	1.178	0.749	0.747	1.156	0.868	0.941
전국평균	0.779	1.881	1.411	1.342	1.382	1.168	1.166	0.757	1.401

#### ④ 종합

평균값과 변이계수에 의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대도시는 다른 도시규모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양호하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며, 분석지역 내 도시 간 격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광역시 자치구는 중소도시나 군급도시보다는 문화적 여건이 양호하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지만 분석지역 내 도시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급도시는 다른 도시규모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불리하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작으며, 분석지역 내 도시 간 격차도 특광역시 자치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역별

#### ① 시도별

##### 가. 현황

7개 특광역시의 인구수는 2,322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833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2,098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1억 7,478만 명이었다. 자치구당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평균 20.1만 명,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18.35만 명이었다. 9개 도의 인구수는 2,761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1,758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3,341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2억 5,742만 명이었고, 시군당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평균 11.5만 명,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8.4만 명이었다.

<표 4-6> 시도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비교

구 분		인구수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개소수	시설 면적	프로 그램수	공연 일수	시설 직원수	연간 예산	연이용 관람객	시설개소 당관람객	프로그램 당관람객
			(만 명)	(개)	(백만㎡)	(개)	(일)	(명)	(억 원)	(만 명)	(만 명/년·개)
[평균값]											
특광역시	합	2,322	833	2,740	2,098	9,943	8,536	3,335	17,478	1,599	1,462
	평균	29.4	10.6	29.5	26.2	140.6	105.4	48.0	204.0	20.1	18.3
도	합	2,761	1,758	3,789	3,341	16,384	12,546	5,721	25,742	1,812	1,397
	평균	17.3	15.3	35.3	31.3	101.5	137.8	36.4	235.8	11.5	8.4
[변이계수]											
특광역시	평균	0.469	0.504	1.039	1.064	1.148	0.948	0.699	0.642	0.494	0.887
도	평균	1.072	0.589	0.941	0.938	1.268	0.874	1.092	1.122	0.610	0.961

주 : 세종시 제외

#### 나.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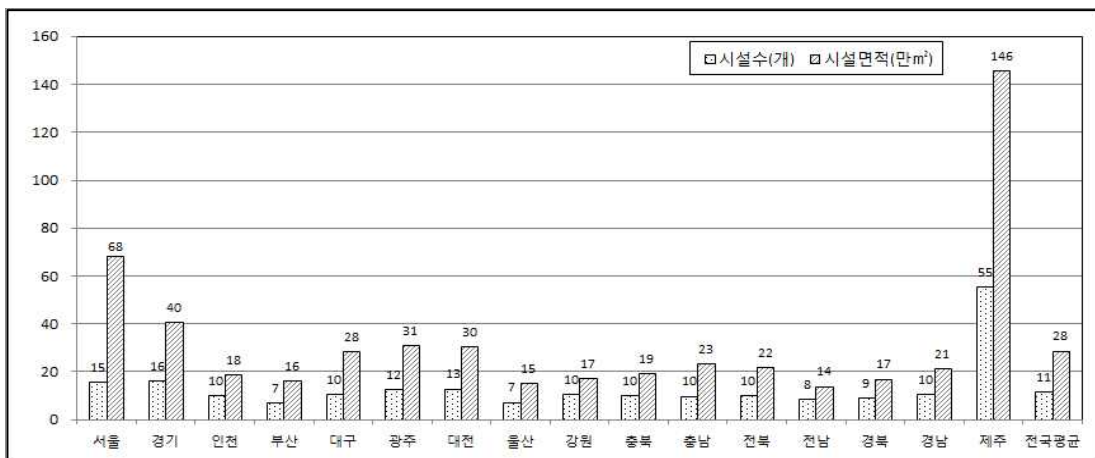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제주(55.00개), 경기(15.81개), 서울(15.36개) 순이었으며,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1.30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제주(145.60만㎡), 서울(67.92만㎡), 경기(40.35만㎡) 순이었으며,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8.42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제주(129.50개), 서울(39.00개), 경기(34.26개) 순이었으며,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3.73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공연일수는 광주(219.60일), 대구(189.63일), 울산(132.40일) 순이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14.82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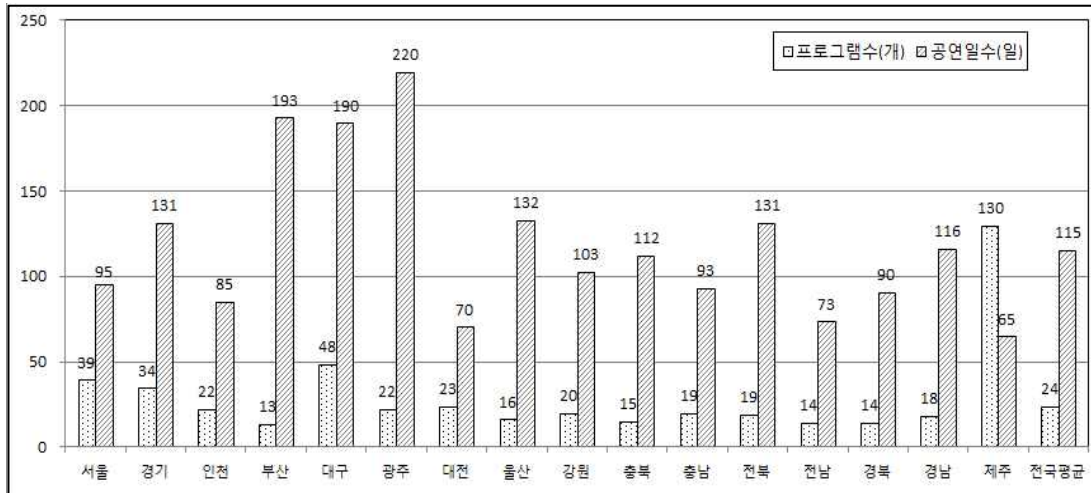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제주(692.00명), 서울(163.60명), 경기(126.45명) 순이었으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91.83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경기(83.92억 원), 대전(79.64억 원), 제주(69.49억 원) 순이었으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39.48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제주(1,016만 명), 서울(359만 명), 경기(331만 명) 순이며, 대구, 광주, 대전을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88.10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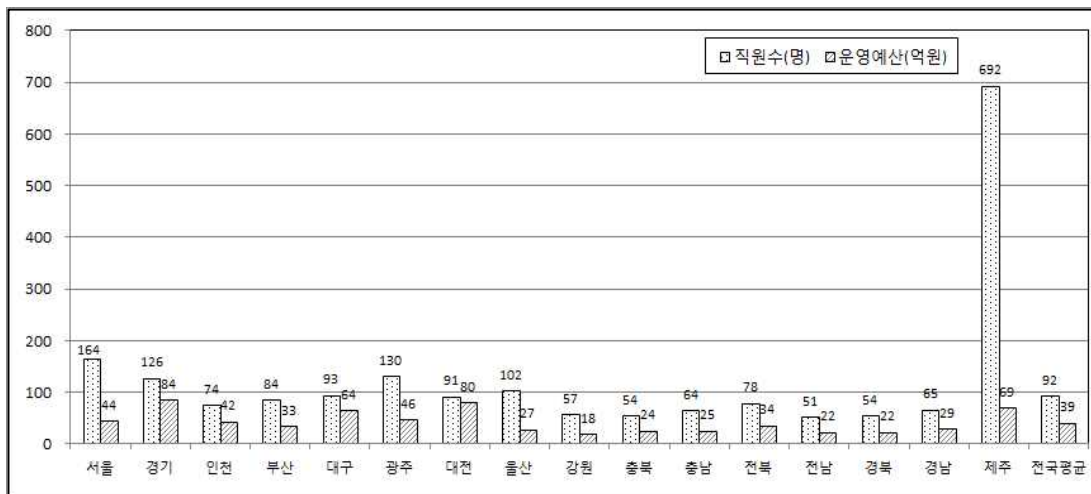
<그림 4-5> 시도별 문화시설 여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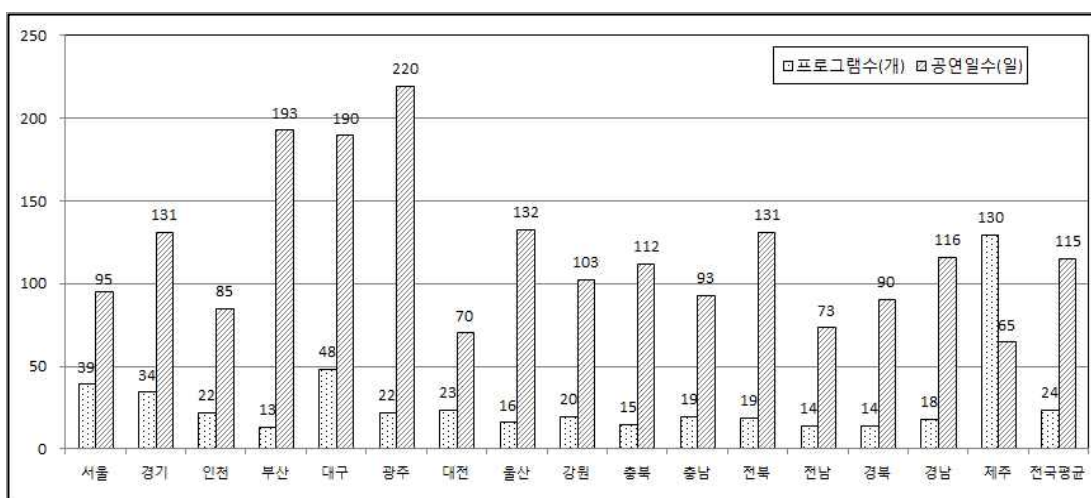
<그림 4-6> 시도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그림 4-7> 시도별 문화향유기반 비교



<그림 4-8> 시도별 문화향유정도 비교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서울(25.64만 명), 부산(21.63만 명), 경기(21.10만 명) 순이었으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4.85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부산(29.92만 명), 울산(29.89만 명), 서울(20.35만 명) 순이었으며, 경기, 대구, 광주를 제외한 시도들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2.44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은 제주와 수도권인 경기를 제외하고는 특광역시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월등히 양호한 반면, 도지역은 거의 모든 분석항목에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경기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특광역시와 도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어서 도시규모에 따른 문화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다.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경남(0.843), 서울(0.800), 충북(0.777)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000), 울산(0.350), 대전(0.383)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서울(2.036), 충남(1.276), 경남(1.260)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005), 대전(0.473), 인천(0.704)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대구(2.027), 전북(1.442), 서울(1.430)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355), 대전(0.368), 전남(0.626)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대전(1.961), 경기(1.882), 전남(1.428)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대구(0.661), 강원(0.781), 인천(0.878)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서울(1.509), 부산(1.362), 충북(1.172)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074), 대전(0.408), 인천(0.555)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경남(1.436), 전북(1.387), 대구(1.371)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울산(0.297), 광주(0.382), 서울(0.445)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전북(1.619), 충북(1.379), 경남(1.264)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214), 대전(0.349), 광주(0.488)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전남(0.839), 전북(0.816), 경남(0.626)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214), 울산(0.400), 대구(0.448)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전북(1.724), 부산(1.444), 전남(1.510)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고, 제주(0.146), 대전(0.416), 광주(0.580)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시군구 간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연일수의 변이계수가 크게 나타나 시도 내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의 변이계수가 가장 작게 나타나 다른 분석항목에 비해 시도 간 및 시도 내 지역 간의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시도별 변이계수 비교

구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향유 기반		문화향유 결과		
	개소수	시설면적	프로그램 수	공연일수	시설직원 수	연간 예산	연이용객 관람객	시설개소당 관람객수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서울	0.800	2.036	1.430	1.207	1.509	0.445	0.819	0.549	0.866
경기	0.573	0.905	0.803	1.882	0.930	0.874	0.850	0.657	0.981
인천	0.494	0.704	0.666	0.878	0.555	0.485	0.577	0.526	0.880
부산	0.545	0.976	0.906	1.263	1.362	0.881	0.837	0.508	1.444
대구	0.550	0.820	2.027	0.661	0.680	1.371	0.720	0.448	0.762
광주	0.407	1.059	1.142	0.922	0.705	0.382	0.488	0.501	0.580
대전	0.383	0.473	0.368	1.961	0.408	1.035	0.349	0.523	0.416
울산	0.350	1.203	0.911	1.142	1.419	0.297	0.705	0.400	1.260
강원	0.720	0.899	0.953	0.781	0.874	1.193	1.215	0.595	0.914
충북	0.777	1.085	1.016	1.312	1.176	1.313	1.379	0.598	0.850
충남	0.613	1.276	1.284	1.007	0.984	1.138	1.145	0.545	0.793
전북	0.726	1.234	1.442	1.274	1.106	1.387	1.619	0.816	1.724
전남	0.431	0.793	0.626	1.428	0.773	0.900	1.234	0.839	1.510
경북	0.621	1.012	0.961	1.167	0.784	0.982	1.174	0.600	0.873
경남	0.843	1.260	1.003	1.146	1.163	1.436	1.264	0.626	0.856
제주	0.000	0.005	0.355	1.414	0.074	0.604	0.214	0.214	0.146

## 라. 종합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특광역시 자치구보다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광역시 지역은 대부분이 전국 시군구 평균을 상회하지만 도지역은 대부분의 분석항목에서 전국 시군구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향유 기반 등의 여건이 도시규모가 큰 특광역시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서울, 경기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연간 공연일수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분석항목에서 상위 3위 이내에 들지만 문화시설 개소수, 문화시설 규모, 운영 프로그램 수, 문화시설 직원수 등의 자치구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기도도 연간 공연일수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석항목들이 상위 3위 이내에 들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한 편이었다.

제주도 역시 연간 공연일수와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분석항목에서 상위 3위 이내에 들고, 연간 공연일수와 연간 운영예산을 제외한 모든 분석항목의 변이계수가 하위 3위 이내에 들고 있어 지역 내 시군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대전은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분석항목이 전국평균 이상이고, 연간 공연일수, 연간 운영예산,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를 제외하고는 변이계수가 하위 3위 이내에 들고 있어 지역 내 자치구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광역시 지역과 도지역과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과 문화시설이 많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분석항목에서 변이계수가 크게 나타나 서울시 내 자치구 간의 문화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수도권-비수도권

### 가. 현황

수도권내 66개 시군구의 인구수는 2,513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974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2,255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8,746명,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2억 972만 명이었다. 비수도권내 164개 시군구의 인구수는 2,582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1,625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3,203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12,376명,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2억 2,291만 명이었다.

### 나.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수도권 14.76개, 비수도권 9.91개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1.30개)을 상회하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47.47만㎡, 비수도권 20.76만㎡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8.42만㎡)의 1.7배이나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수도권 34.17개, 비수도권 19.53개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3.73개)을 상회하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연간 공연일수는 수도권 110.55일, 비수도권 116.54일로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14.82일)과 비슷한 수준이며, 두 지역 간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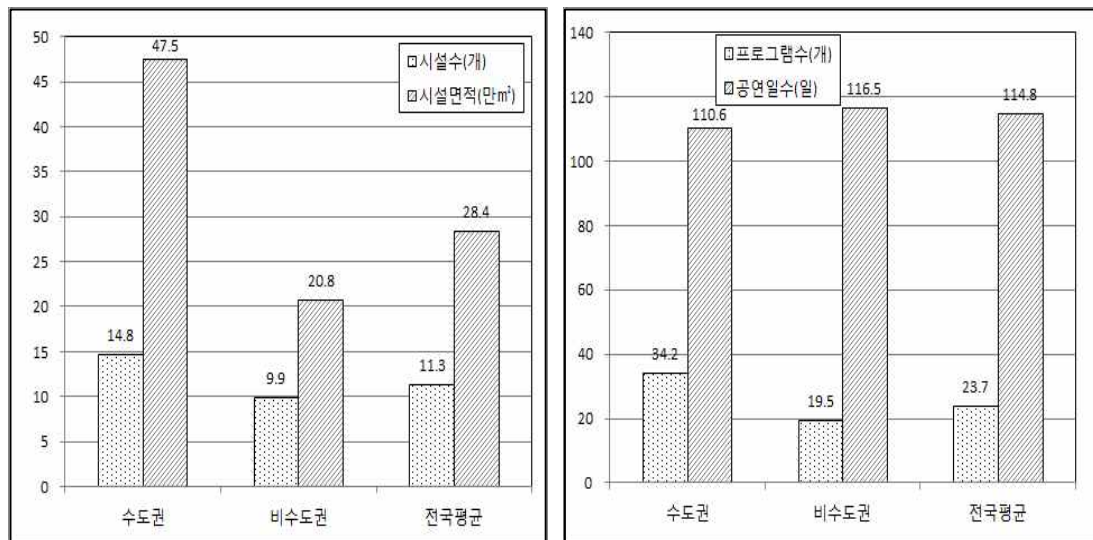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수도권 132.52명, 비수도권 75.46명으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91.83명) 이상이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수도권 62.59억 원, 비수도권 30.18억 원으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39.48억 원) 이상이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수도권 317.76만 명, 비수도권 135.92만 명으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88.10만 명) 이상이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수도권 22.14만 명, 비수도권 11.92만 명으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4.85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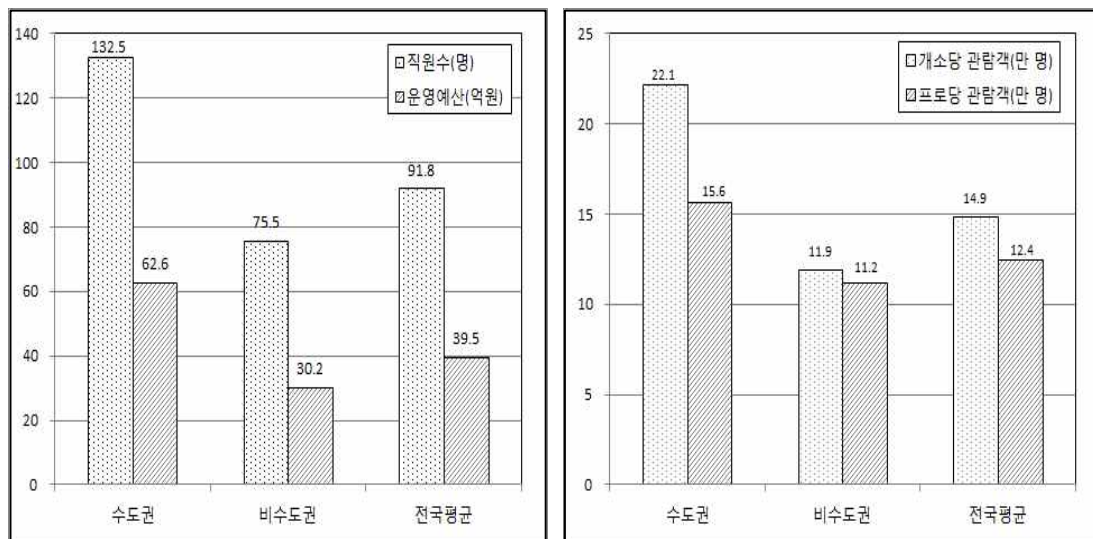
이상이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수도권 15.61만 명, 비수도권 11.16만 명으로 수도권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2.44만 명)을 상회하지만 비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작게는 1.4배에서 크게는 2.3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은 연간 공연일수를 제외한 모든 분석항목에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9>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시설 여건 비교 <그림 4-10>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그림 4-11>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향유기반 비교 <그림 4-12> 수도권비수도권간 문화향유정도 비교



#### 다.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수도권 0.681, 비수도권 0.793으로 비수도권 내 시군구 간의 문화시설 개소수 격차가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1.886, 비수도권 1.191로 수도권 내 시군구 간 문화시설의 규모 격차가 비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수도권 1.156, 비수도권 1.306으로 비수도권 내 시군구간의 프로그램수 격차가 수도권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수도권 1.671, 비수도권 1.206으로 수도권 내 시군구 간의 공연일수 격차가 비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수도권 1.308, 비수도권 1.306으로 두 지역 간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수도권 0.886, 비수도권 1.262로 비수도권 내 시군 구간의 운영예산 격차가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수도권 0.856, 비수도권 1.242로 비수도권 내 시군구 간의 이용객 및 관람객수의 격차가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수도권 0.610, 비수도권 0.726으로 비수도권 내 시군구 간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격차가 수도권 지역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는 수도권 0.960, 비수도권 1.631로 비수도권 내 시군구 간의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의 격차가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비수도권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지역 내 시군구의 문화시설 직원수 격차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8> 수도권-비수도권간 변이계수 비교

구 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문화시설 면적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공연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연간이용객 및 관람객수	시설당 관람객	프로당 관람객
수도권	0.681	1.886	1.156	1.671	1.308	0.886	0.856	0.610	0.960
비수도권	0.793	1.191	1.306	1.206	1.306	1.262	1.242	0.726	1.631
전국평균	0.779	1.881	1.411	1.342	1.382	1.168	1.166	0.757	1.401

## 라. 종합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공연일수를 제외한 모든 분석항목에서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향유기반,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전국 시군구 평균을 상회하지만 비수도권은 전국 시군구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다만, 연간 공연일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국 시군구 평균(115일) 수준이어서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수도권은 문화시설 규모의 변이계수(1.886)와 공연일수의 변이계수(1.671)가 커서 수도권 내 시군구 간에도 문화시설의 규모와 공연일수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중인 프로그램수의 변이계수가 1.528, 프로그램당 관람객수의 변이계수가 1.631로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 내 시군구 간의 프로그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은 시군구당 공연일수(110~116일)는 비슷하지만 문화시설 개소수(수도권 14.76개, 비수도권 9.91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수도권 34.17개, 비수도권 19.53개)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역내 시군구 간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③ 경기 남부-북부

### 가. 현황

경기 남부지역 22개 시군의 인구수는 914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351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762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7,995만 명이였다.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 인구수는 295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139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300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2,269만 명이였다.

### 나.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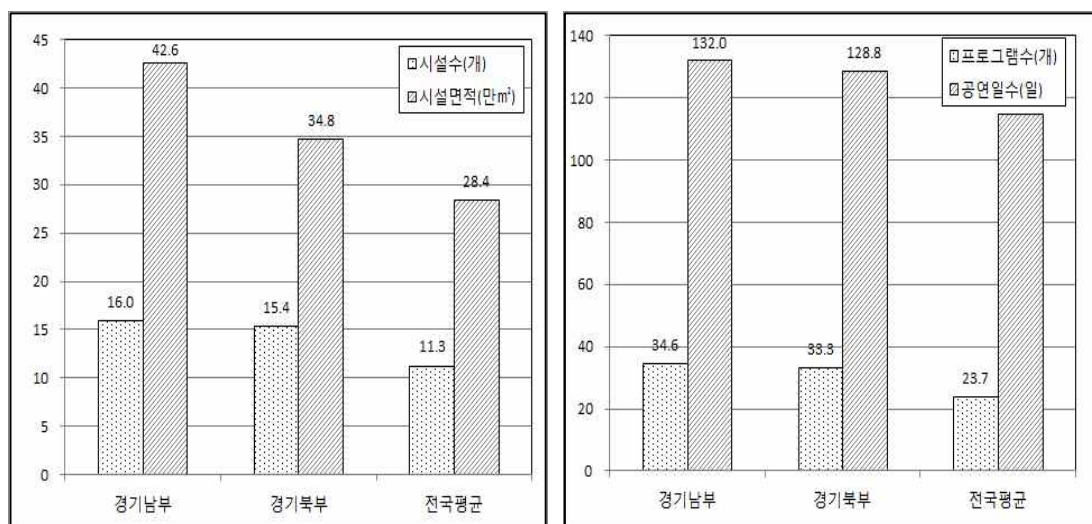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남부지역 15.95개, 북부지역 15.44개로 시군구당 전국평균(11.30개)을 상회하며, 두 지역 간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남부지역 42.64만<sup>m</sup><sup>2</sup>, 북부지역 34.77만<sup>m</sup><sup>2</sup>로 시군구 당 전국평균(28.42만<sup>m</sup><sup>2</sup>)을 상회하며, 남부지역의 문화시설 규모가 북부지역보다 약 20%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남부지역 34.64개, 북부지역 33.33개로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23.73개)을 상회하였으며,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연간 공연일수도 남부지역 132.00일, 강북지역 128.78일로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14.82일)을 상회하였으며, 두 지역 간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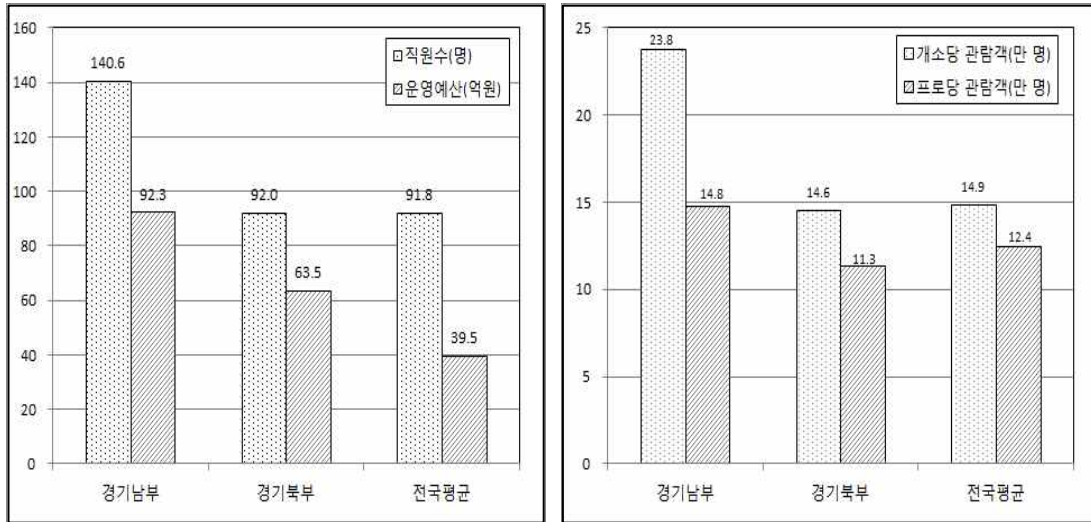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남부지역 140.55명, 북부지역 92.00명으로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91.83명) 이상이었지만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남부지역 92.28억 원, 북부지역 63.49억 원으로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39.48억 원)보다 1.6~2.3배 정도 크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남부지역 363.39만 명, 북부지역 252.10만 명으로 두 지역 모두 시군구 당 전국평균(188.10만 명) 이상이었지만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남부지역 23.77만 명, 북부지역 14.56만 명으로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4.85만 명) 이상이었지만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1.6배 정도 많은 수준이었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남부지역 14.78만 명, 북부지역 11.34만 명으로 북부지역은 시군구 당 전국평균(12.44만 명)에 못 미치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3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경기남북부간 문화시설 여건 비교 <그림 4-14> 경기남북부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그림 4-15> 경기남북부간 문화향유기반 비교 <그림 4-16> 경기남북부간 문화향유정도 비교



전반적으로 남부지역이 문화시설의 규모, 문화시설 직원수, 연간 운영예산,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 문화시설당 관람객수, 프로그램당 관람객수에 있어 북부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시설 개소수,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공연일수에 있어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격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남부지역 0.547, 북부지역 0.671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문화시설 개소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남부지역 0.842, 북부지역 1.138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문화시설 규모 격차가 남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남부지역 0.793, 북부지역 0.876으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프로그램수 격차가 남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남부지역 1.842, 북부지역 2.096으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공연일수 격차가 남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남부지역 0.910, 북부지역 0.911로 두 지역 간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남부지역 0.843, 북부지역 0.951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운영예산 격차가 남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남부지역 0.817, 북부지역 0.951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이용객 및 관람객수 격차가 남부지역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남부지역 0.631, 북부지역 0.539로 남부지역 내 시군 간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격차가 북부지역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남부지역 0.914, 북부지역 1.237로 북부지역 내 시군 간의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격차가 남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부지역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북부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내 시군 간의 문화시설 직원수 격차는 두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9> 경기 남북부간 변이계수 비교

구 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문화시설 면적	운영종인 프로그램수	공연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연간이용객 및 관람객수	시설당 관람객	프로당 관람객
경기남부	0.547	0.842	0.793	1.842	0.910	0.843	0.817	0.631	0.914
경기북부	0.671	1.138	0.876	2.096	0.911	0.951	0.951	0.539	1.237
전국평균	0.779	1.881	1.411	1.342	1.382	1.168	1.166	0.757	1.401

#### 라. 종합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기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의 개소수는 비슷하지만 규모가 큰 문화시설이 많으며, 운영예산과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연일수의 변이계수가 1.842로 가장 크게 나타나 남부지역 내 시군 간에도 공연일수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의 규모도 작고,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남부지역보다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부지역은 문화시설 직원수를 제외한 모든 분석항목에 있어서 남부지역보다 시군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일수의 변이계수가 2.09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북부지역 내 시군 간에도 공연일수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시군당 문화시설 개소수(15~16개)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수(33~35)는 비슷하지만 문화시설 직원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부 140명, 북부 92명). 그러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시군내 문화시설 직원수는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서울 강남-강북

##### 가. 현황

서울 강남지역 11개 자치구의 인구수는 521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148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265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3,532만 명이었다. 서울 강북지역 14개 자치구의 인구수는 498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236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710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5,457만 명이었다.

##### 나.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시군구당 전국평균(11.30개)을 상회하며, 강북지역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시군구당 전국평균(28.42만㎡)을 2~3배 정도 상회하며, 강남지역의 문화시설 규모가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수는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23.73개) 이상이며, 강북지역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공연일수는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14.82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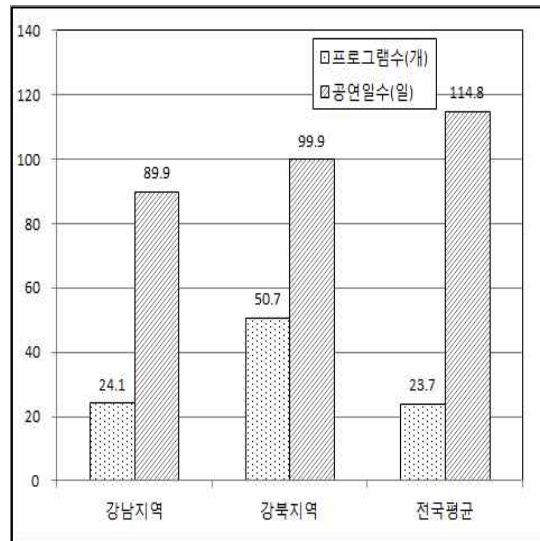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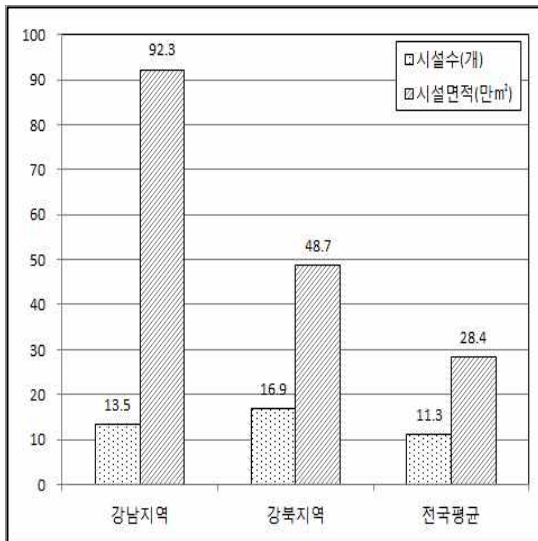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91.83명) 이상이지만 강북지역이 2.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39.48억 원) 이상이었지만 강남지역이 2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88.10만 명) 이상이었지만 강북지역이 2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4.85만 명) 이상이었으며,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두 지역 모두 시군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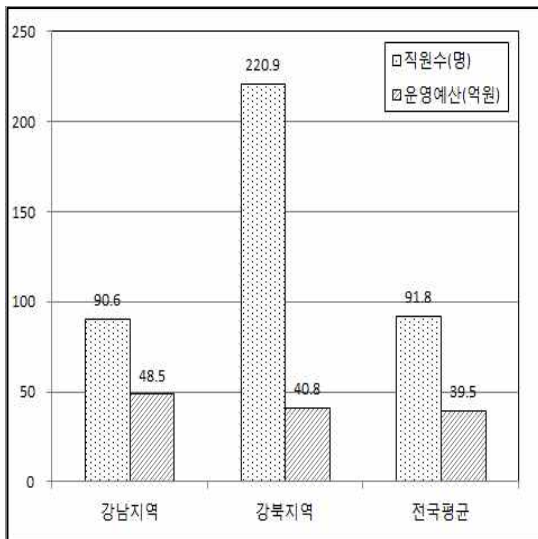
전국평균(12.44만 명) 이상이었지만 강남지역이 2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문화시설의 규모, 연간 운영예산,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크지만 그 외의 여건들은 오히려 강북지역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남지역은 강북지역보다 문화시설의 규모가 크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다소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북지역은 강남지역 보다는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문화시설들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당 관람객수에 있어서는 강남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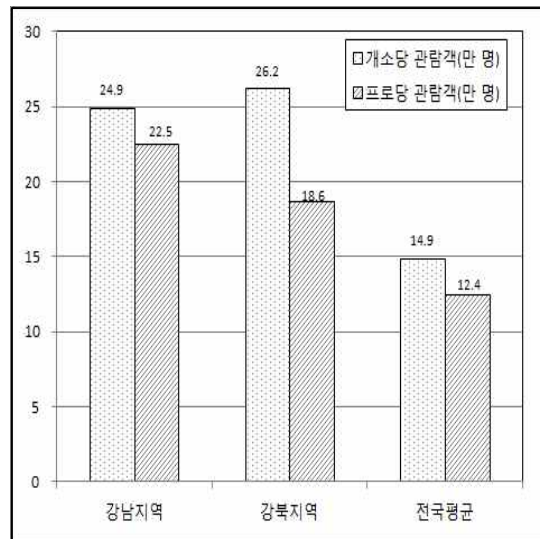
<그림 4-17> 강남북간 문화시설 여건 비교 <그림 4-18> 강남북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그림 4-19> 강남북간 문화향유기반 비교



<그림 4-20> 강남북간 문화향유정도 비교



#### 다.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강북지역 내 자치구 간의 문화시설 개소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강남지역 자치구 간의 문화시설 규모 격차가 강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강남 특정지역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강북지역 내 자치구 간의 프로그램수 격차가 강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연일수는 강남북간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강북지역 내 자치구 간의 직원수 격차가 강남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강남지역 내 자치구 간의 운영예산 격차가 강북지역보다 크지만 두 지역 모두 해당 자치구 간의 격차는 다른 분석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두 지역 간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강남지역 자치구 간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격차가 강북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강북지역 자치구 간의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격차가 강남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강남지역은 문화시설의 규모,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등의 지역 내 격차가 강북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은 문화시설 개소수,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문화시설 직원수, 프로그램당 관광객 등의 지역 내 격차가 강남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지역 내 자치구의 공연일수나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의 자치구 간 격차는 두 지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4-10> 강남북간 변이계수 비교

구 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문화시설 면적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공연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연간이용객 및 관람객수	시설당 관람객	프로당 관람객
강남지역	0.488	2.131	0.914	1.241	0.527	0.517	0.819	0.675	0.795
강북지역	0.919	1.397	1.399	1.221	1.450	0.348	0.830	0.462	0.958
전국평균	0.779	1.881	1.411	1.342	1.382	1.168	1.166	0.757	1.401

## 라. 종합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의 개소수는 적으나 규모가 큰 문화시설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지역은 강남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문화시설들이 많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개소 당 관람객수나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에서 강남지역보다 우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북지역은 강남지역보다 문화시설 직원수에 있어 자치구 간의 편차가 크며, 강북지역 내 자치구 간에도 문화시설 직원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문화시설 개소수, 프로그램수, 문화시설 직원수, 프로그램당 관람객 등에 있어서 자치구 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간 공연일수나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 등에 있어서는 강남북 간의 자치구 내 편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⑤ 행복생활권 유형별

### 가. 현황

중추도시생활권 41개 시군의 인구수는 840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490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836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7,120만 명이었다. 시군구당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평균 11.87만 명,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11.05만 명이었다.

도농연계생활권 35개 시군의 인구수는 461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422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764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5,628만 명이었다. 시군구당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평균 11.24만 명,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9.33만 명이었다.

농어촌생활권 27개 시군의 인구수는 124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190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359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1,545만 명이었다. 시군구당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평균 4.63만 명,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평균 6.08만 명이었다.

#### 나. 평균값을 이용한 절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중추형과 도농형은 시군구당 전국평균(11.30개)을 상회하지만 농어촌형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며, 도농형이 약 1.9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중추형과 도농형은 시군구당 전국평균(28.42만㎡) 수준이지만 농어촌형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며, 도농형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도농형은 전국평균(23.73개) 수준이었지만 중추형과 농어촌형은 이에 못 미치며, 농어촌형은 도농형의 55.7% 수준에 불과하였다. 연간 공연일수는 중추형을 제외하고는 시군구당 전국평균(114.82일)에 못 미치며, 농어촌형은 중추형의 39.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중추형은 시군구당 전국평균(91.83명) 이상이었으나 중추형이나 농어촌형은 이에 못 미치며, 중추형은 농어촌형보다 2.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중추형은 시군구당 전국평균(39.48억원) 수준이지만 도농형이나 농어촌형은 이에 못 미치며, 농어촌형은 중추형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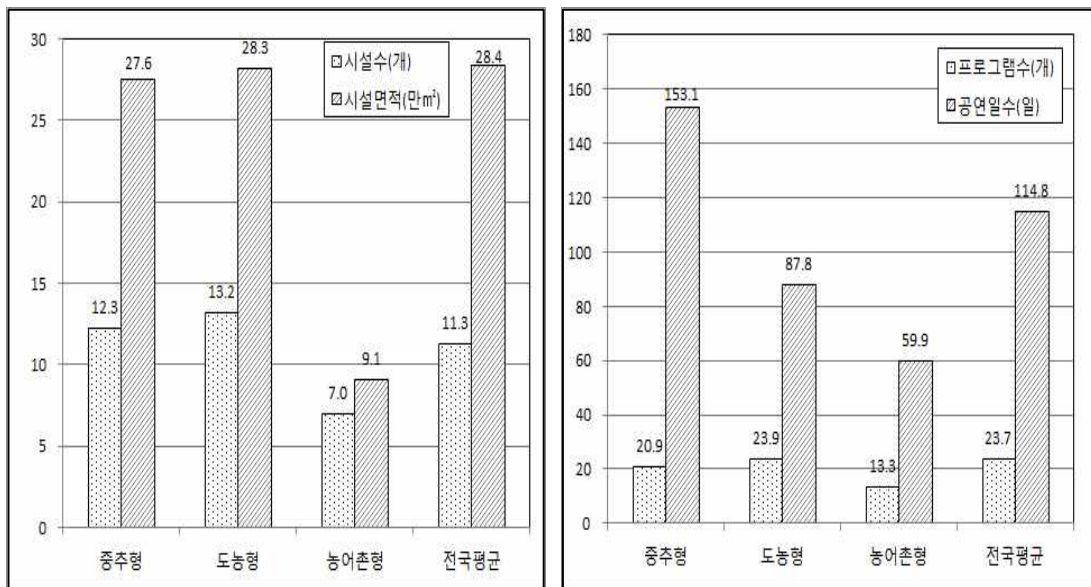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세 개 유형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88.10만 명)에 못 미치며, 농어촌형은 중추형의 32% 수준에 불과하였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4.85만 명)에 못 미치며, 농어촌형은 중추형의 57% 수준에 불과하였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모두 시군구당 전국평균(12.44만 명)에 못 미치며, 농어촌형은 중추형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추형과 도농형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농어촌형은 이들에게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수, 문화시설의 규모,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문화시설 직원수 등 문화시설이나 문화콘텐츠, 문화향유기반에 있어서는 중추형이 도농형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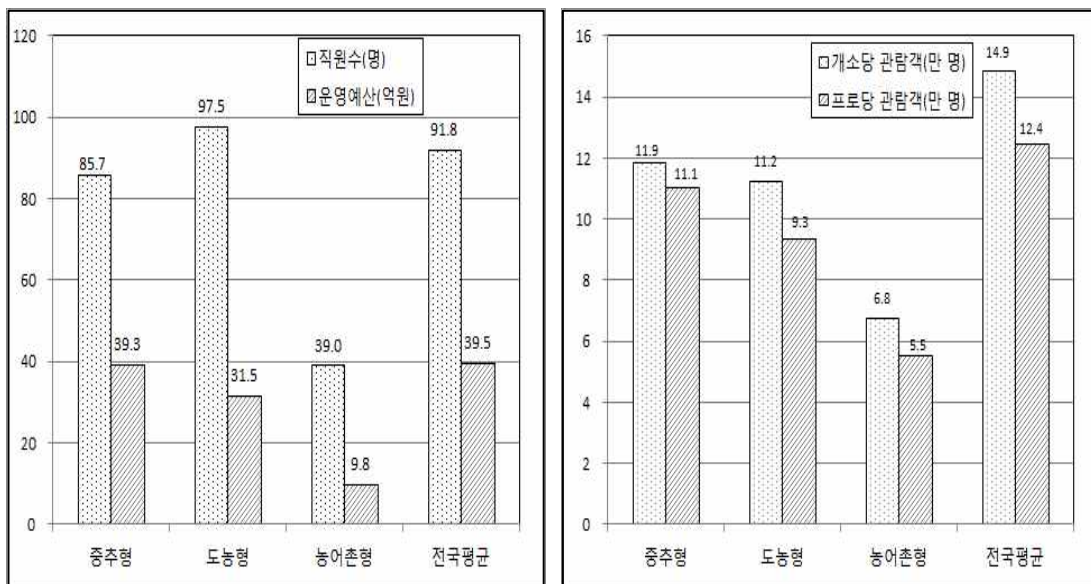
반면, 연간 공연일수, 연간 운영예산,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 시설개소당

관람객수,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등 문화향유정도에서는 중추형이 도농형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형은 모든 측면에서 중추형이나 도시형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행복권 유형별 문화시설 여건 비교 <그림 4-22> 행복권 유형별 문화콘텐츠 여건 비교



<그림 4-23> 행복권 유형별 문화향유기반 비교 <그림 4-24> 행복권 유형별 문화향유정도 비교



다. 변이계수를 이용한 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측면에서 문화시설 개소수는 중추형 0.682, 도농형 0.902, 농어촌형 0.666으로 도농형 내 시군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규모는 중추형 1.081, 도농형 1.345, 농어촌형 0.565로 도농형과 중추형 내 시군간 문화시설의 규모 격차가 농어촌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수는 중추형 1.002, 도농형 1.310, 농어촌형 1.090으로 유형간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모든 유형 내 시군 간의 프로그램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는 중추형 1.076, 도농형 1.033, 농어촌형 1.007로 유형간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모든 유형 내 시군 간의 프로그램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 직원수는 중추형 0.926, 도농형 1.642, 농어촌형 0.928로 도농형 내 시군 간의 문화시설 직원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은 중추형 1.089, 도농형 0.886, 농어촌형 0.424로 중추형과 도농형 내 시군 간의 운영예산 격차가 농어촌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형 내 시군 간의 운영예산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정도 측면에서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중추형 1.078, 도농형 1.402, 농어촌형 1.310으로 도농형과 농어촌형 내 시군 간의 이용객 및 관람객수 격차가 중추형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유형 모두 해당 지역 내 시군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는 중추형 0.665, 도농형 0.625, 농어촌형 0.686으로 세 유형간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격차는 다른 분석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관람객수는 중추형 1.211, 도농형 1.034, 농어촌형 1.106으로 유형간의 문화시설 개소당 관람객수 격차는 다른 분석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세 유형 모두 해당 지역 내 시군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농형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지역 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형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의 변이계수가 낮게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지역 내 시군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행복생활권 유형별 변이계수 비교

구 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문화시설 면적	운영종인 프로그램수	공연일수	직원수	운영예산	연간이용객 및 관람객수	시설당 관람객	프로당 관람객
중 추 형	0.682	1.081	1.002	1.076	0.926	1.089	1.078	0.665	1.211
도 농 형	0.902	1.345	1.310	1.033	1.642	0.886	1.402	0.625	1.034
농어촌형	0.666	0.565	1.090	1.007	0.928	0.424	1.310	0.686	1.106
전국평균	0.779	1.881	1.411	1.342	1.382	1.168	1.166	0.757	1.401

#### 라. 종합

평균값과 변이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개 유형 모두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분석항목들이 도출되었다.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중추형의 경우에도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분석항목들이 도출되는 것은 행복생활권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어촌형은 중추형이나 도농형에 비해서도 열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촌형의 변이계수가 작아 지역 내 시군간의 격차가 오히려 작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역 내 시군간의 격차가 작다는 긍정적 의미이기 보다는 분석항목의 평균값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문화시설의 개소수도 적고, 문화시설의 규모도 작으며, 공연일수도 적고, 연간 운영예산도 작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농어촌형 중에서 눈에 띄는 특별한 지역들이 거의 없어 비슷비슷한 실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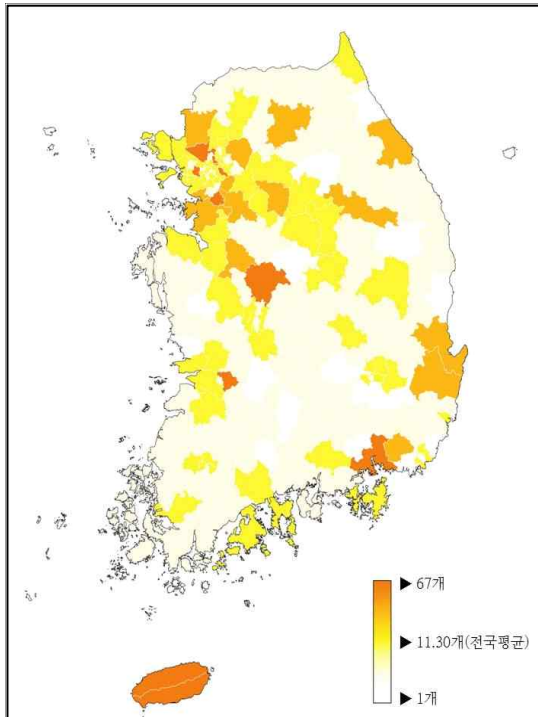
#### (4) 분석결과 종합

이상의 통계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4-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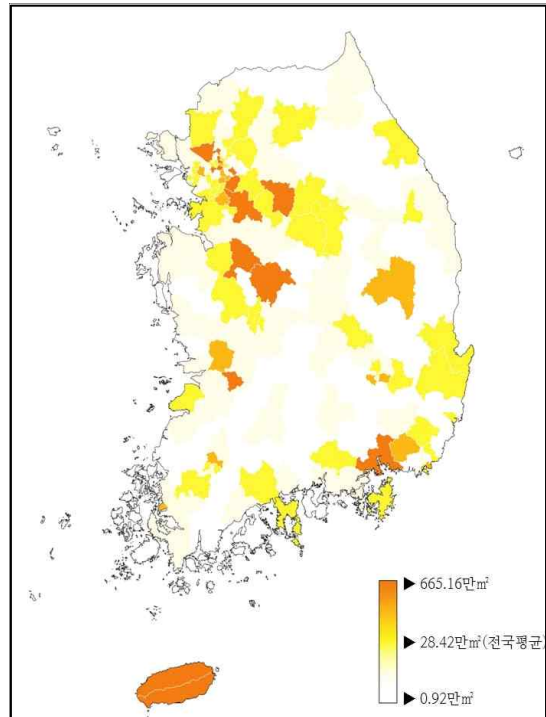
<표 4-12>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분석표

구 분	평균값(절대적 격차)								변이계수(상대적 격차)							
	문화시설		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개소수 (개)	면적 (만㎡)	프로수 (개)	공연일 (일)	직원수 (명)	예산 (억 원)	시설당 (만 명)	프로당 (만 명)	개소수 -	면적 -	프로수 -	공연일 -	직원수 -	예산 -	시설당 -	프로당 -
전 국 평 균	11.30	28.42	23.73	114.82	91.83	39.48	14.85	12.44	0.779	1.881	1.411	1.342	1.382	1.168	0.757	1.401
도 시 규모별																
특광역시	11.71	39.32	29.49	140.41	122.09	46.80	22.12	20.72	0.739	2.196	1.635	1.171	1.361	0.885	0.515	1.255
중대도시	24.12	64.95	49.96	276.12	207.76	110.03	20.78	15.46	0.440	0.598	0.784	0.989	0.751	0.543	0.504	0.779
중소도시	11.85	25.60	22.29	119.19	90.15	41.45	15.17	11.85	0.640	0.859	0.885	0.805	1.086	0.977	0.643	1.101
군급도시	6.81	10.35	12.08	43.08	33.52	11.25	6.93	5.11	0.555	1.389	0.946	1.178	0.749	0.747	0.868	0.941
지 역 별																
수도권																
수도권	14.76	47.47	34.17	110.55	132.52	62.59	22.14	15.61	0.681	1.886	1.156	1.671	1.308	0.886	0.610	0.960
비수도권	9.91	20.76	19.53	116.54	75.46	30.18	11.92	11.16	0.793	1.191	1.306	1.206	1.306	1.262	0.726	1.631
경기남북부																
남부지역	15.95	42.64	34.64	132.00	140.55	92.28	23.77	14.78	0.547	0.842	0.793	1.842	0.910	0.843	0.631	0.914
북부지역	15.44	34.77	33.33	128.78	92.00	63.49	14.56	11.34	0.671	1.138	0.876	2.096	0.911	0.951	0.539	1.237
서울강남북																
강남지역	13.45	92.34	24.09	89.91	90.64	48.50	24.90	22.51	0.488	2.131	0.914	1.241	0.527	0.517	0.675	0.795
강북지역	16.86	48.73	50.71	99.86	220.93	40.78	26.22	18.64	0.919	1.397	1.399	1.221	1.450	0.348	0.462	0.958
행복생활권																
중 추 형	12.25	27.61	20.90	153.10	85.70	39.26	11.87	11.05	0.682	1.081	1.002	1.076	0.926	1.089	0.665	1.211
도 농 형	13.19	28.26	23.88	87.81	97.53	31.49	11.24	9.33	0.902	1.345	1.310	1.033	1.642	0.886	0.625	1.034
농 어 촌	7.04	9.07	13.30	59.93	39.00	9.76	6.76	5.50	0.666	0.565	1.090	1.007	0.928	0.424	0.686	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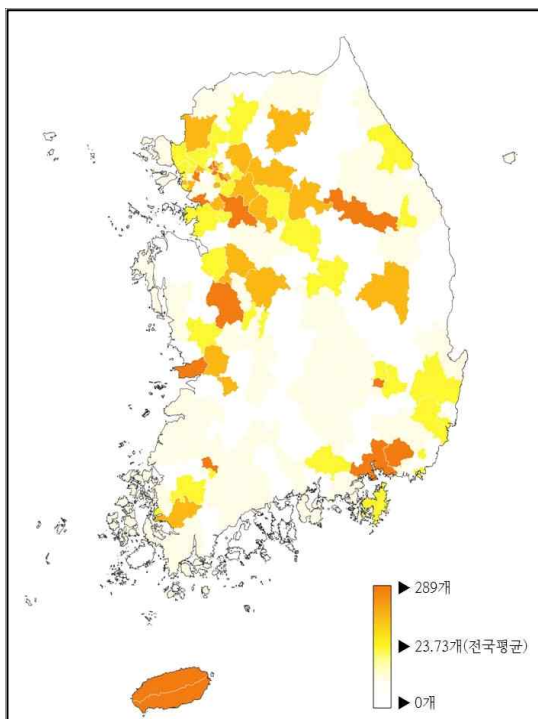
<그림 4-25> 지역별 문화시설 개소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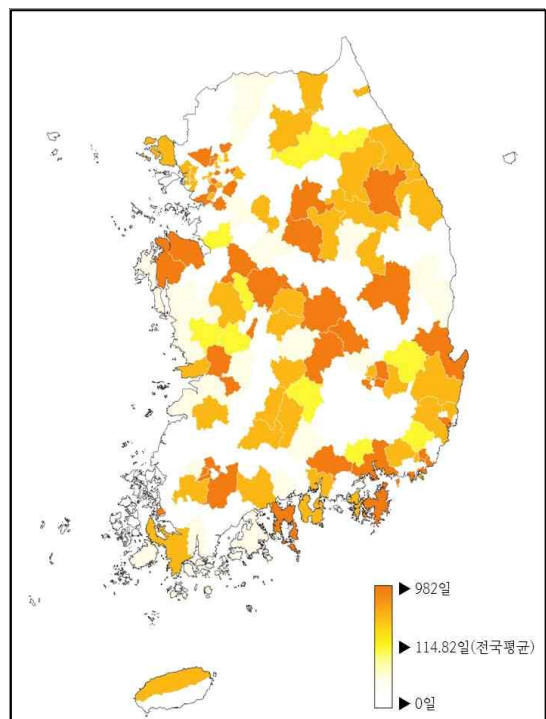
<그림 4-26> 지역별 문화시설 면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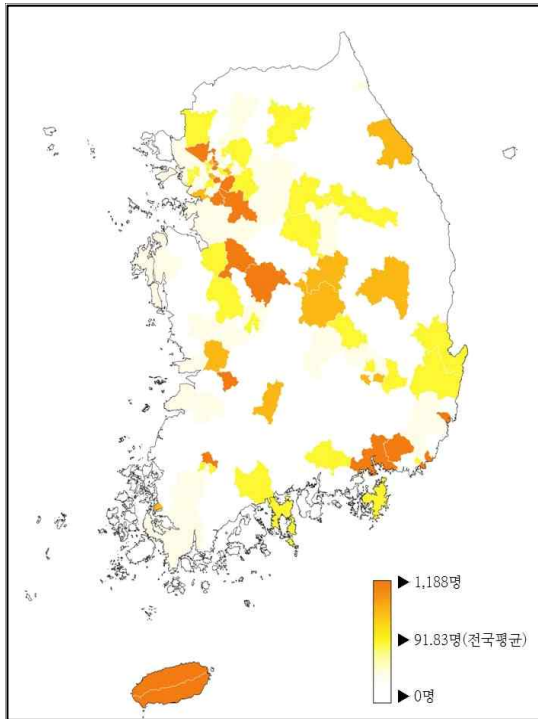
<그림 4-27> 지역별 문화프로그램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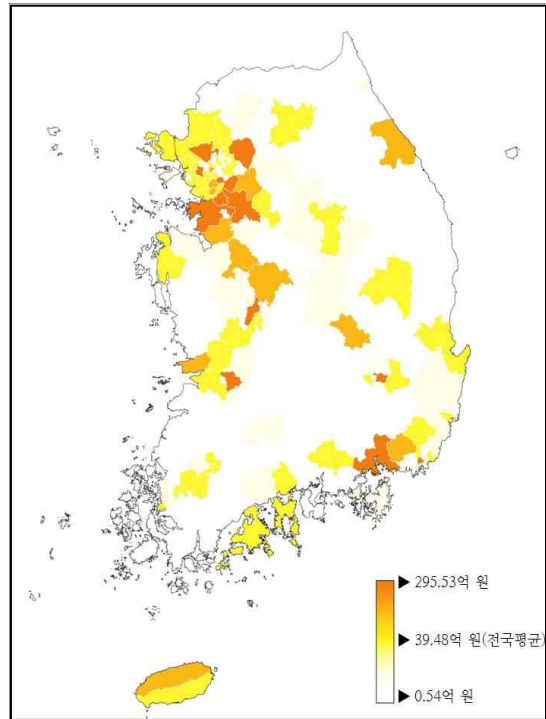
<그림 4-28> 지역별 문화공연일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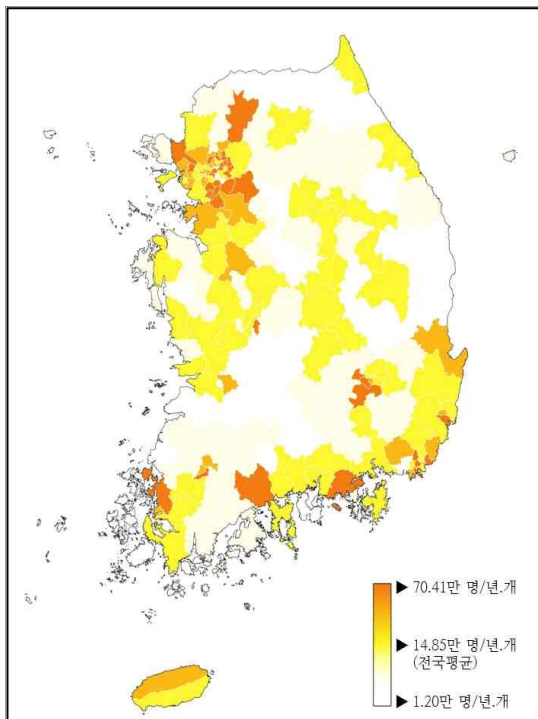
<그림 4-29> 지역별 문화시설 직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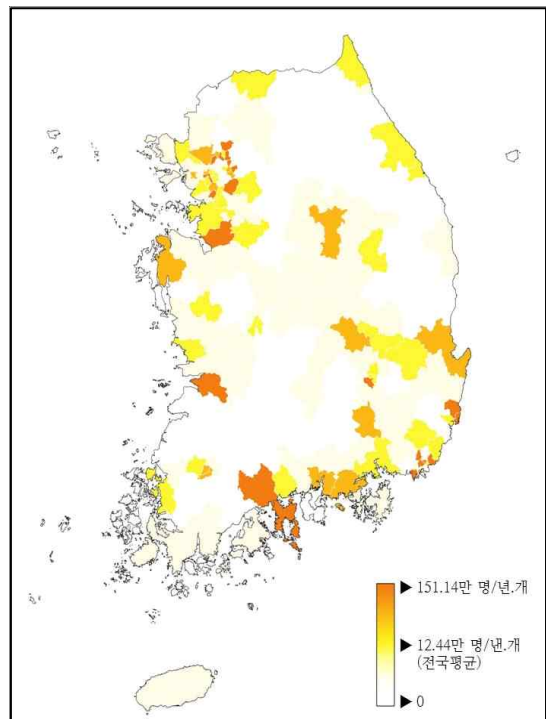
<그림 4-30> 지역별 연간 문화예산 분포



<그림 4-31> 지역별 시설개소당 관람객수 분포



<그림 4-32> 지역별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분포



### 3.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통한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 분석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앞에서 지역 간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통계자료 분석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나 향유의지와 같은 비계량적 내용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규모별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내 문화향유행태, 향유만족도, 향유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통계자료분석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면담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분석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항목이었던 문화시설의 개소수, 문화시설의 규모,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공연일수, 연간 운영예산,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 등이 양호한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가 높은지를 조사한다. 또한, 특광역시-중대도시-중소도시-군급도시 등 도시규모 간에 문화향유만족도 격차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문화향유만족도 격차의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영향요인은 크게 인적 요인, 지역적·지리적 요인, 사회적·경제적 요인, 시설적·정보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문화활동 지출액 등을 조사한다. 지역적·지리적 요인으로는 문화시설로의 접근성과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 등을 조사한다.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는 지역의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낙후지역 여부, 지역의 연간 총생산 등을 조사한다. 시설적·정보적 요인으로는 정보통신 여건과 문화시설로의 접근수단 등을 조사한다.

셋째, 문화활동의 만족도와 향유의지를 조사한다. 문화활동의 만족도는 문화시설별 이용빈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문화향유의지와 수요는 선호하는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 문화향유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거리·비용 등을 조사한다.

## (2) 조사항목

전술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응답자 특성항목이다. 이 항목은 응답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거주기간, 학력, 직업, 가족구성, 가구소득, 고용유형, 월평균 문화활동비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정책의 체감도에 관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 문화바우처 제도, 문화권,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문화향유경험에 대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 가장 자주 이용했던 문화시설 및 이용빈도, 문화시설로의 접근수단 및 접근시간, 문화활동의 형태 및 동행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문화향유만족도에 대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 불만족 이유,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인접 시군구와의 문화시설 공동이용,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문화향유 의지와 수요 항목이다. 이 항목은 향후의 선호콘텐츠, 문화활동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비용 교통수단 등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항목은 부록의 면담조사지에 수록하였다.

## (3) 조사지역

### ① 선정방법

조사지역은 전국 230개 시군구(자치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규모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광역시, 중규모시(30만 명 이상), 소규모시(30만 명 미만), 군급도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지역의 입지적 여건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인접지역, 낙후지역, 지리적 고립지역(육지, 섬)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행복생활권 유형에 따라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어촌 생활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넷째, 지역별 안배를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특광역시 자치구(대전광역시), 중대도시(경기도 남양주시), 중소도시(경북 경주시, 제주도 서귀

포시), 군급도시(전남 구례군)로 구분하여 5개 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목적상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집단군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방문화원과 시군구청 근무자들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 ② 조사지역의 특성

대전시의 인구수는 152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63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116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450여 명,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990만 명 정도이다. 인구증가율은 전국평균(0.564%)을 상회하는 0.740%, 지역의 GRDP는 2,780억 원, 고령화율은 전국평균(11.74%)보다 낮은 9.38%이다.

남양주시의 인구수는 60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23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96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120여 명,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400만 명 정도이다. 인구증가율은 전국평균의 10배에 가까운 5.270%, 지역의 GRDP는 490억 원, 고령화율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9.91%이다.

경주시의 인구수는 26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21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35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120여 명,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270만 명 정도이다. 인구증가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0.720%, 지역의 GRDP는 730억 원, 고령화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은 16.28%이다.

서귀포시의 인구수는 15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55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97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650여 명,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860만 명 정도이다. 인구증가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0.396%, 지역의 GRDP는 350억 원, 고령화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은 16.76%이다. 서귀포시는 등록도서관(11개), 박물관(32개), 미술관(9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 개소수가 많고, 시설규모도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의 인구수는 3만 명, 문화시설 개소수는 3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5개, 문화시설 직원수는 10명 내외, 연간 문화시설 이용객 및 관람객수는 10만 명 정도이다. 인구증가율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1.473%로 조사지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지역의 GRDP는 전국평균 530억 원의 약 1/13에 불과한 40억 원, 고령화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은 28.75%이다. 구례군은 조사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율도 가장 높으며, 지역의 생산성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개소당 면적은 서귀포시(2,640㎡)가 가장 크고, 대전시(2,390㎡), 경주시(2,340㎡), 남양주시(1,420㎡) 순이었으며, 구례시가(580㎡) 가장 작았다. 문화시설의 집객력을 나타내는 시설수당 관람객수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17만 7천여 명, 대전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5만 7천여 명, 경주시는 12만 9천 명 순이었다. 시설면적당 관람객수도 남양주시가 1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당 집객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당 관람객 수는 서귀포시가 가장 많고(8만 9천명), 대전시와 경주시는 각각 8만 5천명과 7만 7천명으로 전국평균 7만 9천명 내외의 수준이었으며, 구례군이 1만 9천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귀포시는 연간 운영예산 당 관람객수가 가장 많은 반면, 시설수당 연간 운영예산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록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많기 때문이다.

<표 4-13> 조사지역의 문화관련 여건 비교

도 시 구 모	도 시 명	2012 인구 수 (만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참고지표		
			시설 수 (개)	시설 면적 (천㎡)	프로 그램수 (개)	공연 일수 (일)	직원 수 (명)	관리 예산 (억원/년)	연간 관람객 (만명/년)	시설수당 관람객수 (만명/개년)	프로그램당 관람객수 (만명/개)	인구변화 (‘02-’12) (%)	지역 GRDP (백억원)	고령화율 (%)
광역시	대 전	152	63	151	116	350	454	398	989	15.7	8.5	0.740	27.8	9.38
중대시	남양주	60	23	33	96	0	126	164	406	17.7	4.2	5.270	4.9	9.91
중소시	경 주	26	21	49	35	179	123	39	270	12.9	7.7	-0.720	7.3	16.28
중소시	서귀포	15	55	145	97	0	656	40	863	15.7	8.9	-0.396	3.5	16.76
군 급	구 례	3	3	2	5	0	9	12	10	3.2	1.9	-1.473	0.4	28.75
시군구 평균		22.2	11	28	24	115	92	39	188	16.7	7.9	0.564	5.3	11.74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12.31. 기준)

2. 행정자치부, 2014, 2013년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3.12.31. 기준)

3.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L](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L))

#### (4)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는 사전에 준비한 조사지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지역주민과 1:1로 직접 면담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수는 5개 지역별로 각 45명씩 총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 2) 조사결과

### (1)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는 대전시 45명, 남양주시 46명, 경주시 45명, 서귀포시 45명, 구례군 44명으로 총 225명이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121명(53.8%)으로 남성 104명(46.2%)보다 약간 많았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8.1세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0명으로 가장 많고(35.6%), 40대가 64명(28.4%), 20대가 44명(19.6%), 50대가 30명(13.3%)을 차지하였다. 도시별로는 대전시가 31.4세로 가장 젊었고, 남양주시와 경주시가 37.0세와 37.4세로 비슷하였으며, 서귀포시는 41.9세, 구례군은 42.8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젊은 층이 많고, 인구가 감소하는 군급도시 일수록 나이가 많다는 일반적 사실과도 부합하였다. 참고로 지난 10년간(2002~2012) 구례군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473%로 전국평균 0.954%보다 낮았으며, 남양주시는 5.270%로 높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4인 가구(43.6%)였으며, 3인 가구 36명(16.0%), 5인 가구 32명(14.2%), 1인 가구 27명(12.0%) 순이었으며, 도시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167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졸업자 40명(17.8%), 대학원졸업자 13명(5.8%), 중학교 이하 5명(2.2%) 순으로 나타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공무원이 88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하였고, 사무직 50명(22.2%), 서비스직 20명(8.9%), 주부 17명(7.6%), 전문직 8명(3.6%), 자영업 7명(3.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목적상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집단군이 필요하였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과 시군구청 근무자들 중 해당 지역 거주자를 포함시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는 거주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하였다.

응답자의 고용유형은 사무직이 91.5%(206명)로 대부분이었으며, 사업 4.0%(9명), 학생 2.7%(6명), 주부와 농업이 각각 1%(2명) 정도를 차지하였고, 사무직은 정규직

140명(62.2%), 비정규직 66명(29.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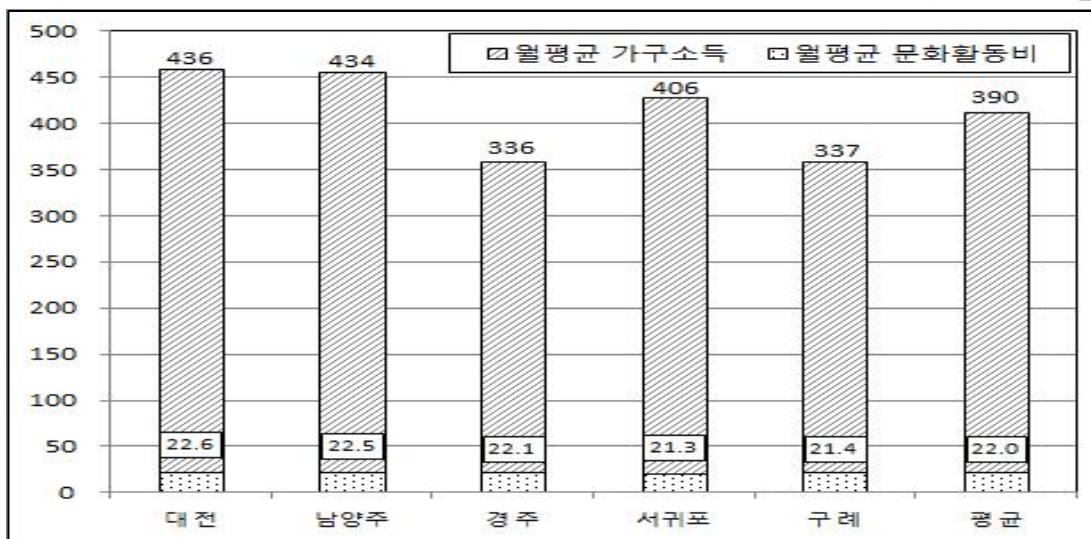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90만 원이었으며, 300만 원대가 52명(23.1%)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대 50명(22.2%), 500만 원대 44명(19.6%), 200만 원대 41명(18.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대전시 436만 원, 남양주시 434만 원, 서귀포시 406만 원, 경주시 336만 원, 구리시 337만 원으로 대도시는 높고, 군급도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은 22만 원이었으며, 20만 원대가 28.4%(64명), 10만 원대가 25.3%(57명), 30만 원대가 11.1%(25명)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월평균 문화활동비 22만 원의 1/4에도 못 미치는 5만 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7.8%(40명)를 차지하고 있어 소위 문화소외계층 내지는 문화무관심층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문화활동비 22만 원의 4배를 넘는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소위 문화매니아층도 전체의 2.2%(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9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소득의 약 5.6% 정도를 문화활동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급지역의 문화활동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3> 응답자의 가구소득 및 문화활동비 지출액 비교

(단위 : 만 원/월)



## (2) 문화시설 및 문화정보 접근성

문화시설로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자가용 보유자는 154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였고, 운전능력이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77.8%를 차지하고 있어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조사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문화시설로의 접근을 위한 교통수단 여건에서는 조사지역별로 격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정보에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통신 및 인터넷 수단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보유자는 전체의 94.7%(213명)였으며, 사용능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가 92%였다. 또한, 컴퓨터 보유가구도 전체의 92.0%(207명)였으며, 사용능력도 보통 이상이 89.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문화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정보통신 여건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례군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자수(86.4%)나 사용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15.9%)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군급지역의 정보통신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정책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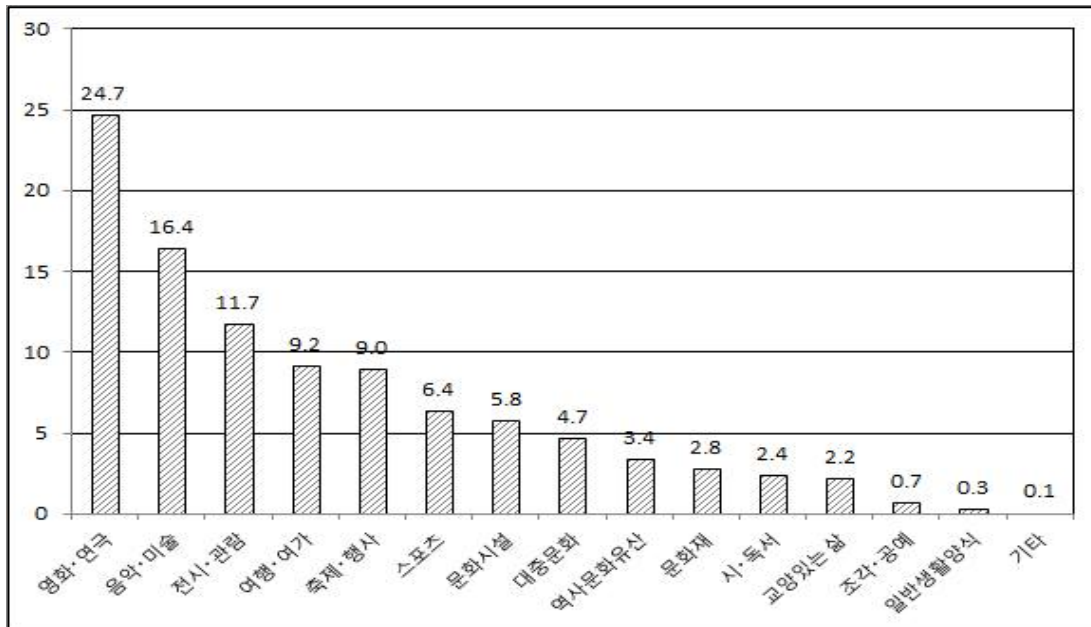
“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세 개만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극·영화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 예술(음악·미술) 16.4%, 전시·관람 11.7%, 여행·여가 9.2%, 축제·행사 9.0%, 스포츠 6.4%, 문화시설 5.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별로 순위나 비율의 차이는 있었으나 연극·영화, 예술(음악·미술), 전시·관람이 전체의 절반 이상(52.8%)을 차지하여 선택항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연극·영화(79명)와 음악·미술(76명)을 1순위로 꼽았고, 2순위에서는 연극·영화 59명, 전시·관람 31명, 여행·여가 30명, 3순위에서는 여행·여가 30명, 연극·영화 29명, 스포츠 2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일반생활양식(0.3%)이나 교양있는 삶(2.2%), 문학(시·독서)(2.4%) 등은 낮은 응답율을 보였고, 창작(조각·공예)도 0.7%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예술가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화재 2.8%, 역사문화유산 3.4%, 대중문화 4.7% 등에 대한 응답율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응답자들은 문화를 일상적인 것과는 구별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행위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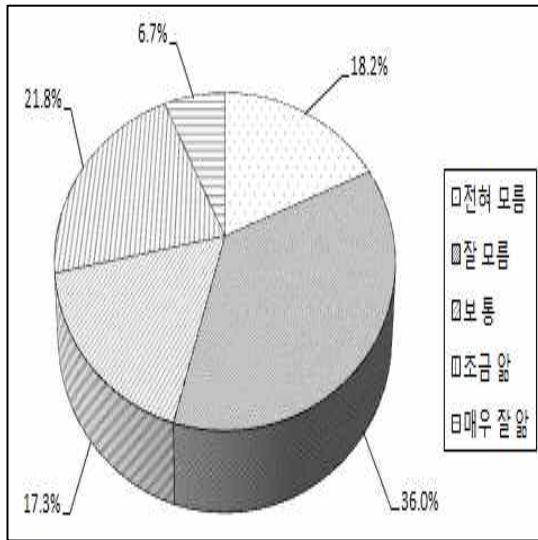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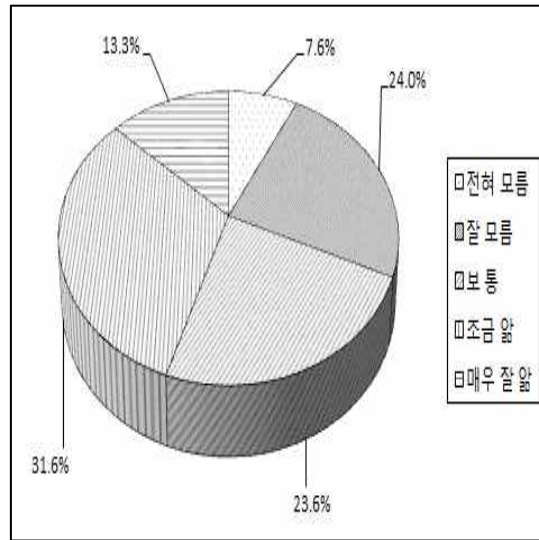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문화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모른다고 응답(전혀 모른다 18.2%, 잘 모른다 36.0%)하여 안다는 응답 28.5%(조금 안다 21.8%, 매우 잘 안다 6.7%)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4.9%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모른다는 응답도 31.6%로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가 클수록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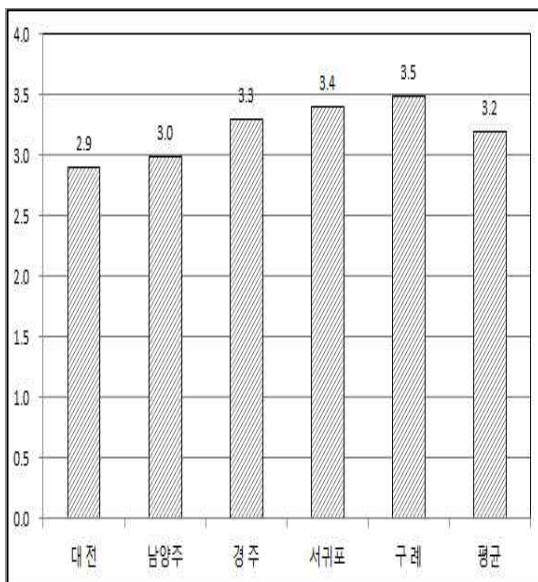


<그림 4-36>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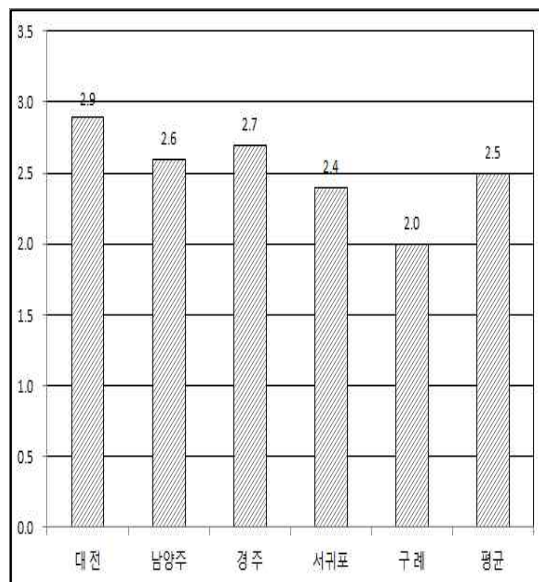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절반 가량(51.1%)은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시와 경주시가 2.6점 및 2.7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구례군이 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점/5점)



<그림 4-38> 거주지의 문화적 수준 인식도  
(단위 : 점/5점)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 비해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48.0%)하였으나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2.2%로 나타났다. 문화적 수준의 향상 정도에 대한 체감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으며, 구례군의 체감도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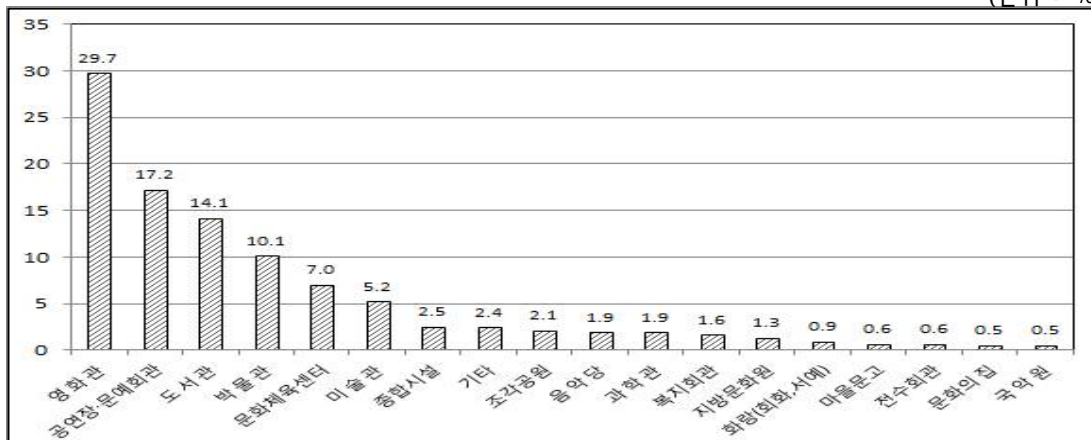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확충(22.4%)이 가장 필요하며, 문화정보의 제공(14.1%), 무료공연 확대(12.9%), 프로그램 개선(11.3%), 문화활동비 지원(10.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문화예술인 양성”은 경주시를 제외하고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고, “전문인력 확보”라는 응답도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내 문화예술인 유치나 문화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문화향유 경험

지난 1년 동안 자주 이용했던 문화시설로는 영화관이 가장 많았고(29.7%), 공연장·문예회관(17.2%), 도서관(14.1%), 박물관(10.1%), 문화체육센터(7.0%), 미술관(5.2%)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시설인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도서관이 전체의 61%를 차지하였고, 박물관, 문화체육센터, 미술관을 포함시키면 전체 문화활동의 83.3%를 이들 6개 시설이 차지하였다. 반면, 문화의 집(0.5%), 국악원(0.5%), 전수회관(0.6%), 마을문고(0.6%), 화랑(0.9%) 등은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단위 : %)



응답의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더라도 이들 상위 3개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도서관)의 이용빈도는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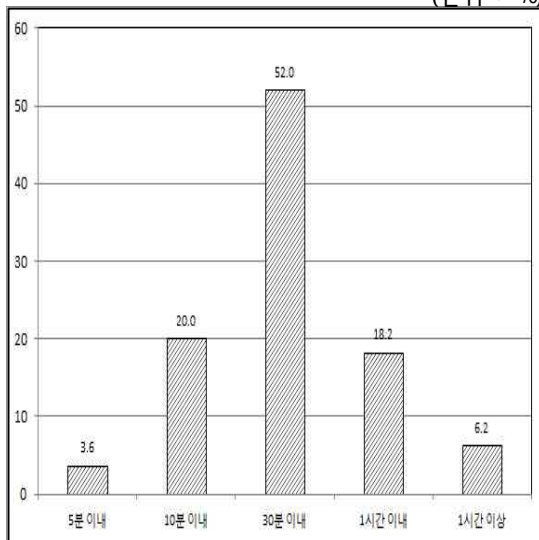
구 분	1위	2위	3위
대 전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공연장·문예회관
남양주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박물관
경 주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공연장·문예회관
서귀포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공연장·문예회관
구 레	영화관	영화관	박물관

주 : 순위별로 가장 많은 응답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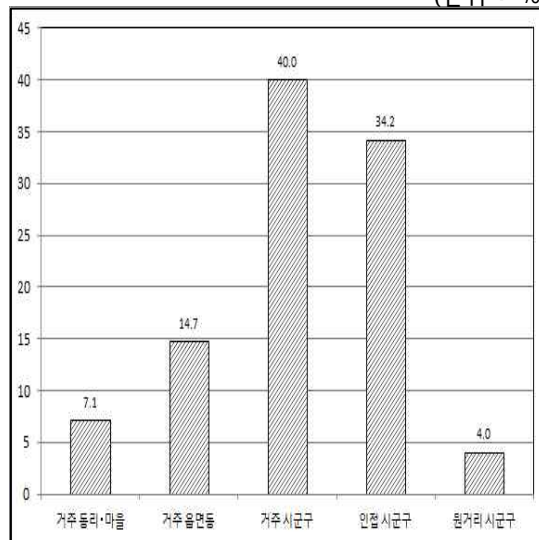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자가용 보유자가 전체의 68.4%이고, 운전능력이 보통이상인 응답자가 전체의 77.8%라는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결과이다. 다만, 대전과 남양주는 대중교통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대중교통 여건이 불리한 경주, 서귀포, 구례에서는 자가용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시간은 대부분이 30분 정도(52.0%)였으며, 10분 이내도 20%를 차지하였다.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시간은 자가용으로 약 30분 이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다.

<그림 4-40>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시간  
(단위 : %)



<그림 4-41>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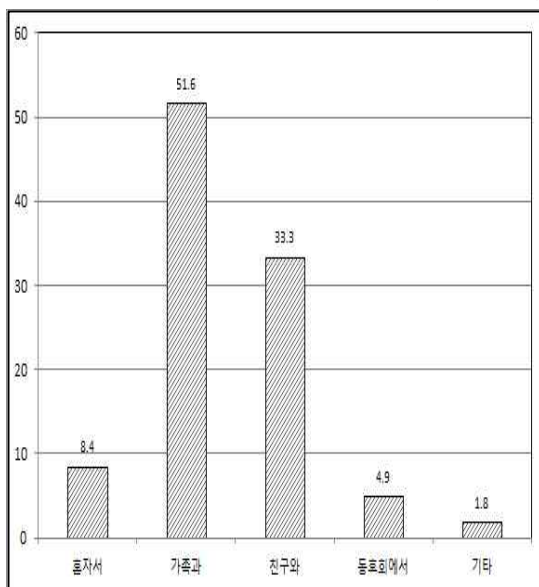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는 거주하는 시군구 내(61.8%)에서 이루어졌지만 인접 시군구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도 3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동리나 마을 내에서만 문화활동을 하는 소위 “소극적 문화활동자”도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의 경우, 대부분의 문화활동을 인접 시군구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례군 내에 원하는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남양주시도 인접 시군구에서 문화활동을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인 서울시나 구리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인접 시군구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족(51.6%)이나 친구(33.3%)와 함께 단순관람 형태(63.1%)의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화활동의 행태는 지난 1년간의 문화활동별 빈도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수가 많았던 문화활동은 영화·비디오 감상(29.9%), 도서관 이용(13.2%), 음악·콘서트 관람(9.0%), 연극·뮤지컬 관람(8.6%) 순으로 나타나 체육·스포츠 활동(12.9%)을 제외한 대부분(60.7%)이 단순관람형이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자주 이용했던 문화시설이 영화관, 공연장·문예회관, 도서관이라는 사실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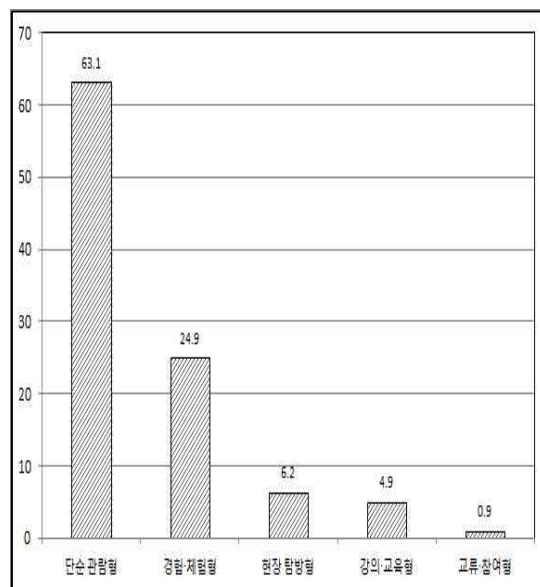
<그림 4-42> 문화활동의 동반자

(단위 : %)



<그림 4-43> 문화활동의 행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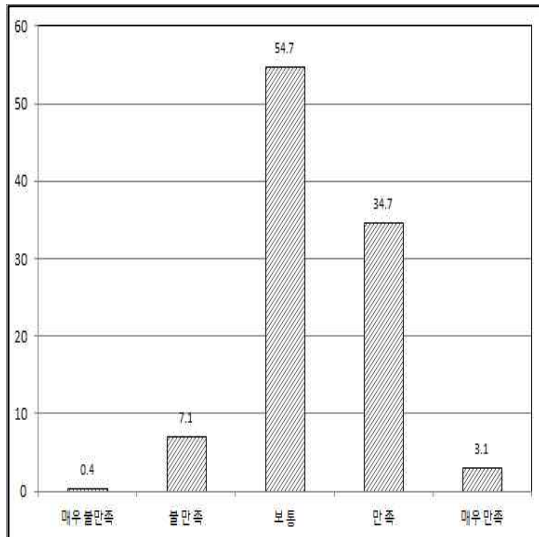
#### (5) 문화향유만족도

응답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 포함)은 37.8%로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포함)는 응답 7.5%보다 매우 높았으며,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요금이 비싸서(24.0%)가 가장 많았고, 교통이 불편해서(17.3%), 주변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13.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불만족 없음도 전체의 20.4%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시설에 대해 보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구례군의 경우에는 다른 조사지역과 달리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불만족 없음에 대한 비율도 가장 낮게 나타나 도시규모가 작은 군급도시일수록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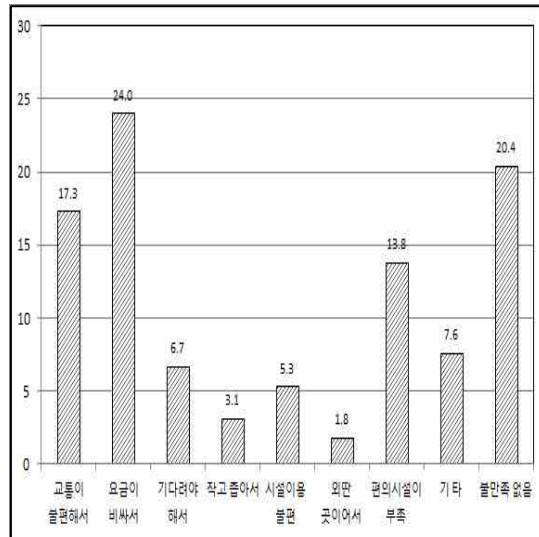
<그림 4-44>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

(단위 : %)



<그림 4-45> 문화시설이용의 불만족 이유

(단위 : %)



응답자들이 이용한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은 영화관이 51.8%로 가장 많았고, 공연장(11.7%), 박물관(11.7%), 문예회관(7.3%), 체육시설(4.4%) 순이었으며, 이들 다섯 개 시설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였다.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이유로는 거주 시군구에 해당 문화시설이 없어서(36.3%),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다양해서(22.1%), 해당 문화시설이 우수하고 주변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서(18.6%), 가까워서(8.8%) 순으로 답하였다. 구례군에서 주변지역의 영화관 이용률이 높았던 이유는 구례군 내에 영화관이 없었기 때문이고, 남양주시는 인접한 구리시나 서울시의 영화관이 시설규모도 크고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경주기도 인근 대도시인 대구시, 포항시, 울산시의 영화관이 시설규모도 크고 주변의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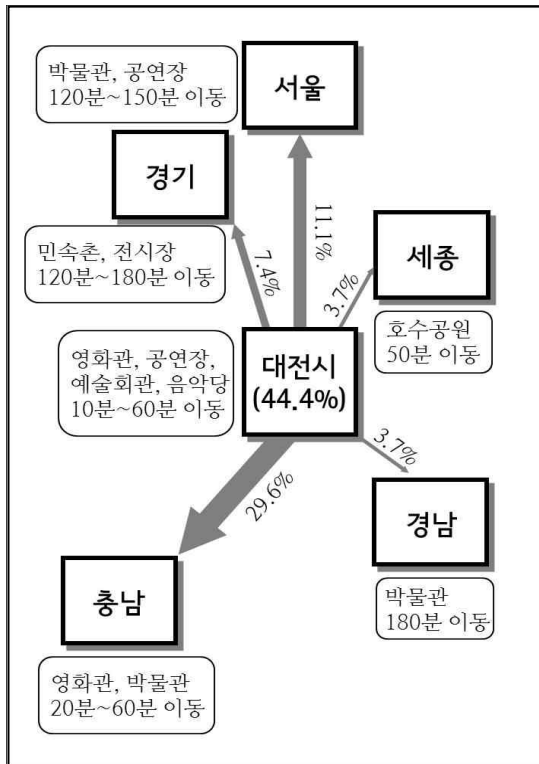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인접지역의 문화시설 이용률은 대전시(특광역시) 61.4%, 남양주시(중대도시) 65.9%, 경주시(중소도시) 79.5%, 구례군(군급도시) 70.5% 순이었다. 대전시에서 이용한 인접지역은 대전>충남>서울>경기 순이었고, 응답자의 44.4%는 대전시 내의 인접한 다른 자치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74%가 10~60분 정도의 이동시간을 소요하여 대전이나 충남의 영화관을 이용했으며, 공연장, 예술회관, 음악당, 박물관 등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특정시설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있었다.

남양주시에서 이용한 인접지역은 서울>구리>하남 순이었고, 방문자 중 약 59% 정도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은 40~120분 정도였으며, 영화관, 박물관 연극, 어린이 대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9%는 구리시의 영화관이나 아트홀을 방문하였으며, 이동시간은 25~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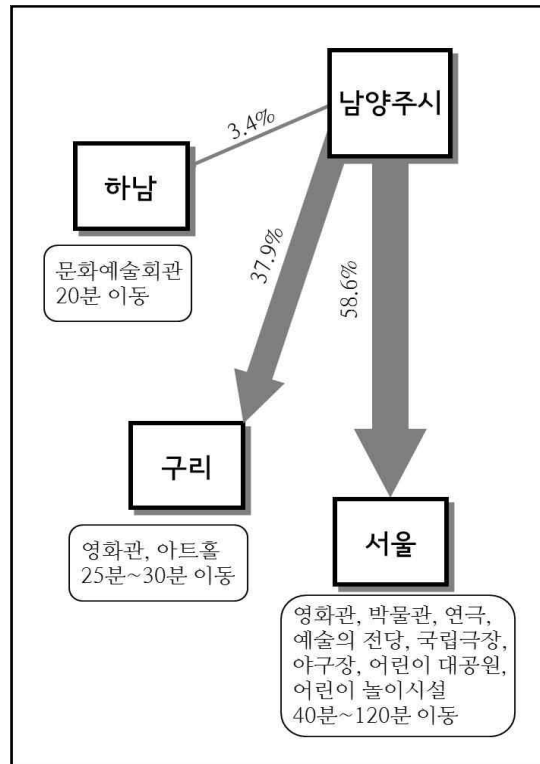
경주에서 이용한 인접지역은 포항>대구>울산>부산>서울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포항이나 대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포항까지의 이동시간은 30~60분 정도였으며, 대부분이 영화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까지의 이동시간은 60~120분 정도였으며, 영화관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방문한 경우는 이동시간이 18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답하였으며, 미술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에서 이용한 인접지역은 순천>광주>서울>전주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순천시의 영화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 거리인 광주, 서울, 전주를 방문한 경우는 대부분이 박물관, 영화관, 야구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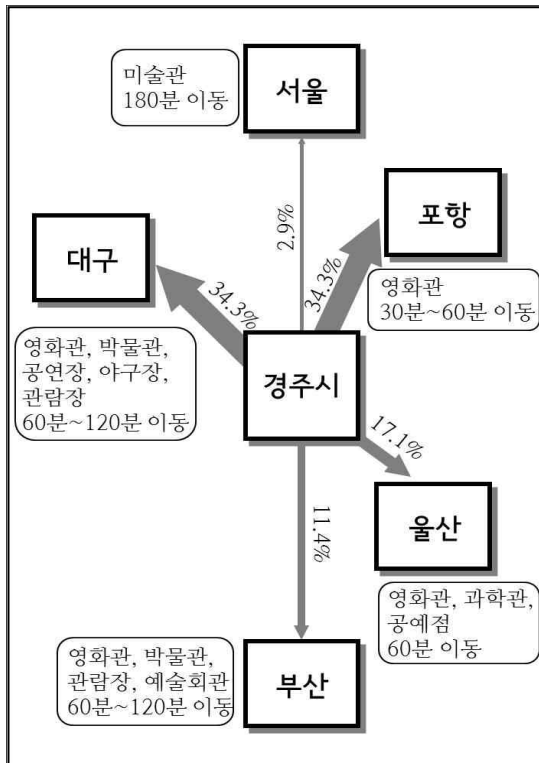
<그림 4-46> 대전시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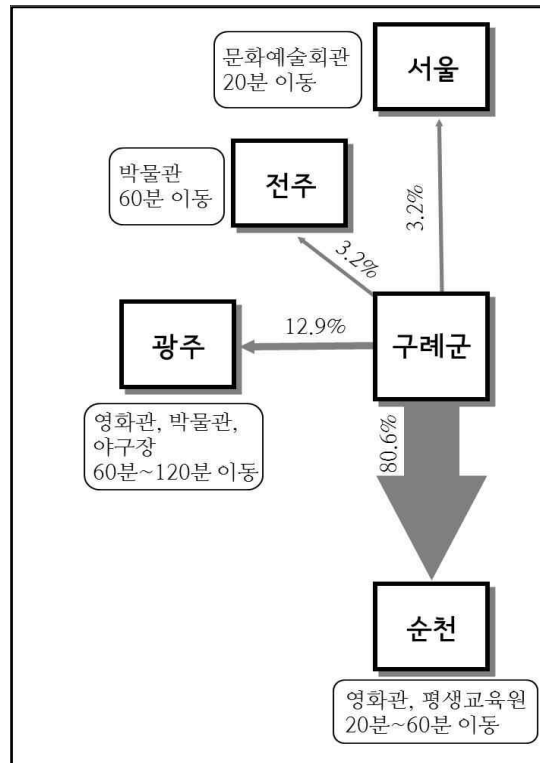
<그림 4-47> 남양주시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그림 4-48> 경주시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그림 4-49> 구례군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표 4-15> 인접지역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구 분	응답수	구성비(%)	방문지역	이동시간(분)	이용문화시설
대전시 (광역시)	12	44.4	대전	10~60	영화관, 공연장, 예술회관, 음악당
	8	29.6	충남	20~60	영화관, 박물관
	3	11.1	서울	120~150	박물관, 공연장
	2	7.4	경기	120~180	민속촌, 전시장
	1	3.7	경남	180	박물관
	1	3.7	세종	50	호수공원
계	27	100.0			*응답률 : 61.4%
남양주시 (중대도시)	17	58.6	서울	40~120	영화관, 박물관, 연극,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야구장,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11	37.9	구리	25~30	영화관, 아트홀
	1	3.4	하남	20	문화예술회관
계	29	100.0			*응답률 : 65.9%
경주시 (중소도시)	12	34.3	포항	30~60	영화관
	12	34.3	대구	60~120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야구장, 관람장
	6	17.1	울산	60	영화관, 과학관, 공예점
	4	11.4	부산	60~120	영화관, 박물관, 관람장, 예술회관
	1	2.9	서울	180	미술관
계	35	100.0			*응답률 : 79.5%
구례군 (군급도시)	25	80.6	순천	20~60	영화관, 평생교육원
	4	12.9	광주	60~120	영화관, 박물관, 야구장
	1	3.2	서울	210	박물관
	1	3.2	전주	60	박물관
계	31	100.0			*응답률 :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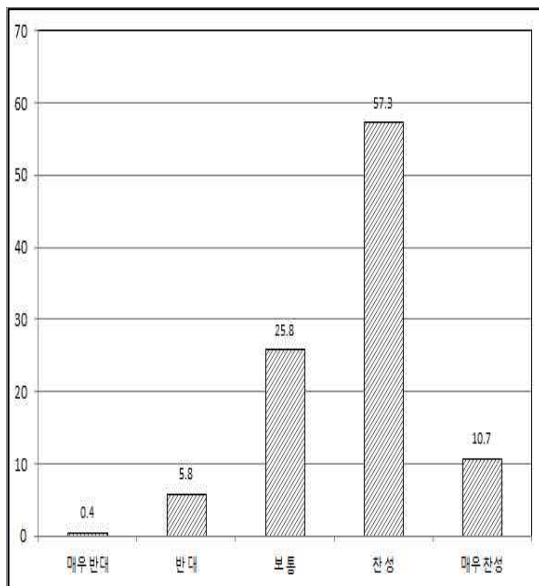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4개 지역 모두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로 영화관을 이용하였으며, 먼 거리에 있는 시군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대부분 박물관과 같은 특정한 문화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주로 대전시 내 다른 자치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하였으며, 특정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이 나 먼 거리 지역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인접한 서울시의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포항, 대구, 울산, 부산 등 대도시에서 있는 영화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인접한 순천시의 영화관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시군구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지역 간의 편차없이 전체의 68%가 찬성하였고, 찬성도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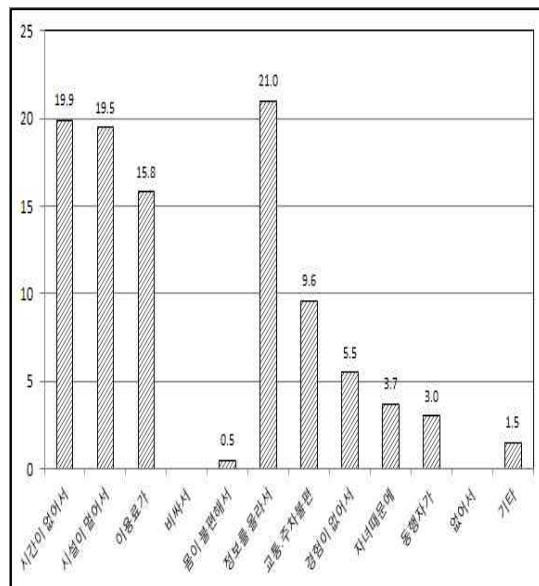
특히,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찬성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에도 인접 시군구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34.2%에 이르고 있다는 앞의 조사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하는 문화활동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21.0%)을 꼽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없어서(19.9%), 문화시설이 멀어서(19.5%), 이용료가 비싸서(15.8%), 교통·주차 불편(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다섯 가지가 전체의 85.8%를 차지하였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불리한 구례군의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이 멀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25.6%) 나타났고, 정보를 몰라서(21.6%)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문화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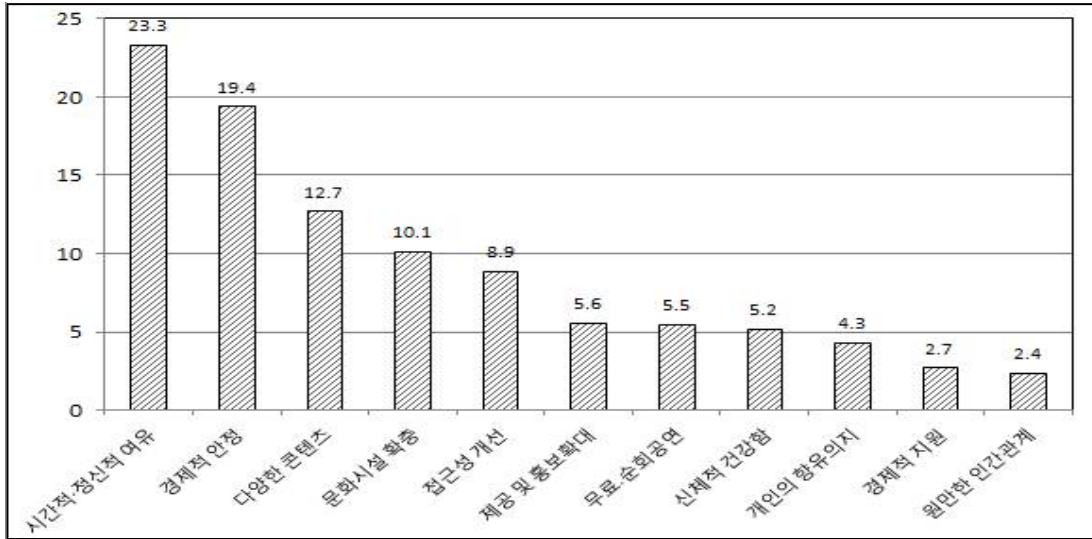
<그림 4-51> 원하는 문화생활의 장애요인  
(단위 : %)



또한,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들었다. 첫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간적·정신적 여유로움(23.3%)과 경제적 안정(19.2%)을 들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12.7%)을 들었다. 셋째, 문화시설 측면에서는 지역 내 문화시설 확충(10.1%)을 들었다. 넷째, 문화기반 측면에서는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개선(8.9%)을 들었다.

<그림 4-52>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위한 필요요소

(단위 : %)



이러한 요인들은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 시간적·정신적 여유로움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와, 경제적 안정은 이용료가 비싸서라는 이유와 각각 연계된다. 문화시설 측면에서 지역 내 문화시설 확충은 문화시설이 멀어서라는 이유와, 문화기반 측면에서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은 교통·주차불편이라는 이유와 각각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순회공연 확충(5.5%)이나 문화바우처와 같은 경제적 지원(2.7%)보다는 근거리에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12.7%) 문화시설을 확충(10.1%)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이 낮은 것은 응답자들이 문화바우처의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바우처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54.2%)인 것으로 판단된다.

#### (6) 문화향유 의지 및 수요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문화활동으로는 연극·뮤지컬(20.4%), 음악·콘서트(19.4%), 체육·스포츠(11.9%), 강연·강좌 교육(9.8%), 영화·비디오 감상(6.7%)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음악·콘서트는 경주(2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1순위 문화활동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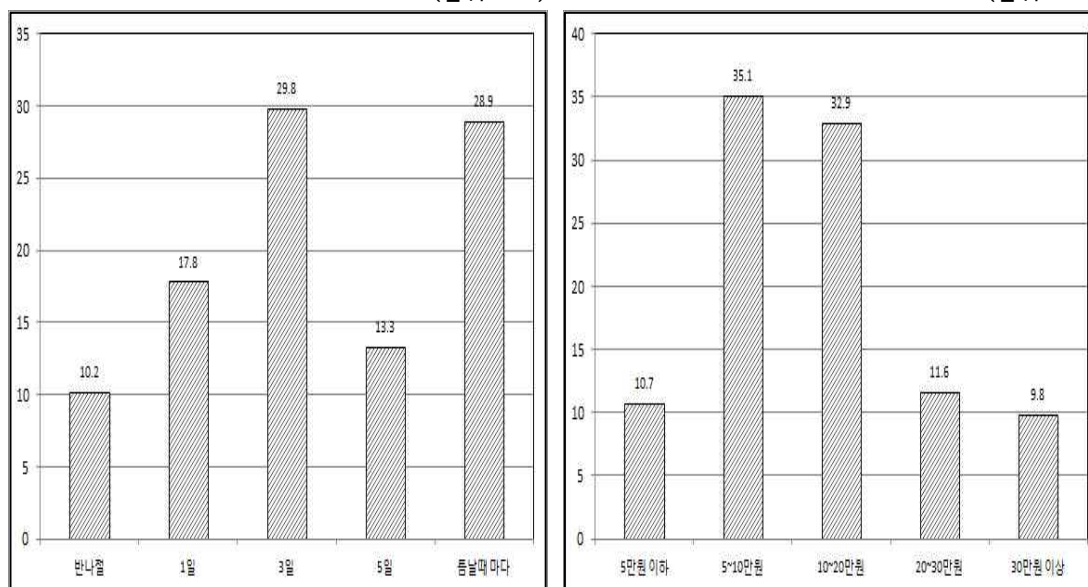
반면, 현재의 문화활동 2위라고 응답한 도서관 이용은 1.5%에 불과하여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에 선호하는 문화활동들은 체육·스포츠와 강의·강좌 교육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단순관람형 활동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문화활동의 선호도 변화 비교

구 분	영화·비디오	도서관 이용	체육·스포츠	음악·콘서트	연극·뮤지컬	강좌·교육
현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향후 순위	5위	14위	3위	2위	1위	4위

이러한 문화활동을 위해 한 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일(29.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틈날 때 마다라는 응답도 28.9%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문화향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비용은 한 달에 5~10만 원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20만 원이라는 응답도 32.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5~20만 원의 비율이 늘어나 현재보다 문화활동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데 다소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30만 원의 비율이 현재의 64.8%에서 79.6%로 증가된 것을 보면 현재보다 문화활동비 지출을 다소 늘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3> 향후 문화활동 할애시간(한 달)      <그림 4-54> 향후 문화활동 할애비용(한 달)  
(단위 : %)



<표 4-17> 문화활동을 위한 비용지출비율 변화 비교

구 분	5만 원 이하	5~10만 원	10~20만 원	20~30만 원	30만 원 이상
현 재	17.8%	25.3%	28.4%	11.1%	17.3%
향 후	10.7%	35.1%	32.9%	11.6%	9.8%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이동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41.3%), 1시간 이상을 할애하겠다는 응답도 33.8%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의 문화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은 30분이 가장 많았다(52.0%)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때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으로는 현재와 같이 자가용을 가장 선호(6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문화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변화 비교

구 분	5분 이내	10분	30분	1시간	1시간 이상
현 재	3.6%	20.0%	52.0%	18.2%	6.2%
향 후	1.3%	2.7%	20.9%	41.3%	33.8%

#### (7)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sup>57)</sup>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검토한 결과, 문화수준 인식도에 대한  $\alpha=0.05$  유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 자가용유무, 가구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회귀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Pseudo- $R^2$ 는 0.30<sup>58)</sup>이고, Prob > chi2 = 0.0001<sup>59)</sup>에서 우도비(LR chi(13)는 41.60이었다.

도시규모별로는 대전시는 구례군<sup>60)</sup>에 비해 14.13배, 경주시는 5.58배, 남양주시는

57)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면담조사결과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값을 이용하였음

58) Pseudo  $R^2$ 는 McFadden's  $R^2$ 를 의미하며,  $R_{McF}^2 = 1 - \ln \hat{L}(M_{Full}) / \ln \hat{L}(M_{intercept})$ 로 계산됨.  $\ln \hat{L}(M_{Full})$ 는 모델의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추정된 값이며,  $\ln \hat{L}(M_{intercept})$ 은 절편만을 고려하여 추정된 값임. Pseudo  $R^2$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2~0.4일 때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함

59) 추정계수가 자유도 1에서 유의미한지 판단하는 우도비 검증(LR test)을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

60) 구례군을 참조범주로 지정했으며, 참조범주란 기본값(Default)으로 정하는 변수를 말함

1.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급도시(구례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중대도시(남양주시) < 중소도시(경주시) < 특광역시(대전시) 순으로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살씩 증가할 때마다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확률이 1.10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를 먹을수록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100만 원씩 증가할 때마다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1.65배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당 문화활동비 지출이 클수록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alpha=0.1$  유의수준)

<표 4-19>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지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Coef.	Odds Ratio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지 역	구 려	참조범주						
	대 전	2.64853	14.13325	0.91289	2.90	0.004*	0.8593	4.4378
	남양주	0.46628	1.59405	0.93893	0.50	0.619	-1.3740	2.3066
	제 주	-0.42006	0.65701	0.99001	-0.42	0.671	-2.3604	1.5203
	경 주	1.71928	5.58049	0.83446	2.06	0.039*	0.0838	3.3548
성 별	남 자	참조범주						
	여 자	-1.32992	0.26450	0.60833	-2.19	0.029*	-2.5222	-0.1376
연 령		0.09215	1.09653	0.04007	2.30	0.021*	0.0136	0.1707
자 가 용	무	참조범주						
	유	1.77968	5.92795	0.86435	2.06	0.039*	0.0856	3.4738
스마트폰	무	참조범주						
	유	-2.38980	0.09165	1.74318	-1.37	0.170	-5.8064	1.0268
컴 퓨 터	무	참조범주						
	유	0.09777	1.10271	1.20046	0.08	0.935	-2.2551	2.4506
가족구성		-0.31210	0.73191	0.22540	-1.38	0.166	-0.7539	0.1297
가구소득		0.49869	1.64657	0.17260	2.89	0.004*	0.1604	0.8370
직 업	정 규 직	참조범주						
	비정규직	-1.02953	0.35718	0.65865	-1.56	0.118	-2.3205	0.2614
문화활동비		0.30576	1.35765	0.17741	1.72	0.085*	-0.0420	0.6535
_cons		-6.93179	0.00098	2.46398	-2.81	0.005	-11.7611	-2.1025

주 : 관찰값=225/LR  $\chi^2(13)=41.60$ , Prob> $\chi^2=0.0001$ , Pseudo  $R^2=0.3011$ , Log likelihood=-48.2719

### 3) 정책적 시사점

#### (1) 도시규모를 고려한 문화인식 제고방안 필요

첫째,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를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극·영화(24.7%), 음악·미술(16.4%), 전시·관람(11.7%)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52.8%)을 차지했다. 반면, 일반생활양식(0.3%), 교양있는 삶(2.2%), 문학(시·독서)(2.4%), 조각·공예(0.7%), 문화재(2.8%), 역사문화유산(3.4%), 대중문화(4.7%)라는 응답은 전체의 16.5%에 불과하였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인 양성(5.6%), 전문인력 확보(5.9%) 등은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도시규모에 따른 문화인식 및 정책체감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나 문화향유에 대한 법적 권리인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5점 정도였으며, 도시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나 문화적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한 체감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도시규모와 지역의 문화향유만족도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문화시설의 적정 위치·규모·종류 결정

첫째, 기존 시설을 문화시설로 용도 전환하거나 새로운 문화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주차가 편리한 중심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70% 가량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80% 가량은 보통 이상의 운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내에서 자가용으로 30분 이내(최대 1시간)의 거리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하는 문화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유로 문화시설

이 멀어서와 교통 및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임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유리한 대전이나 남양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문화시설로의 접근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빈약한 소규모 문화시설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문화시설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문화활동 이전이나 이후의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이유가 거주지역 내에 없거나(36.3%) 가까워서(8.8%)이기도 하지만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22.1%),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고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서(18.6%)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51.6%)이나 친구(33.3%)와 함께 단순관람형태(63.1%)의 문화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시설 주변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는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접지역 문화시설들의 규모·종류·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연계활동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범위는 대부분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61.8%) 인접 시군구에서 문화활동을 한다는 응답자도 34.2%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 찬성(68.0%)하고 있으며, 찬성도도 5점 만점에 3.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인접 시군구 문화시설 이용행태를 볼 때, 거주하는 도시보다 더 큰 도시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군구별로 확충해야 할 문화시설과 거점도시에 확충해야 할 문화시설을 구분하여 입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이용자수와 이용횟수를 고려하여 문화콘텐츠별 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Z-Score<sup>61)</sup>를 이용하여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와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사분면에 위치하여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영화·비디오 감상, 강연·강좌교육, 도서관 이용, 체육·스포츠 등을 들 수 있다. 2사분면에 위치하여 소수가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공예·조각이 있고, 3사분면에 위치하여 소수가 가끔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문학창작시, 무용발레,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전통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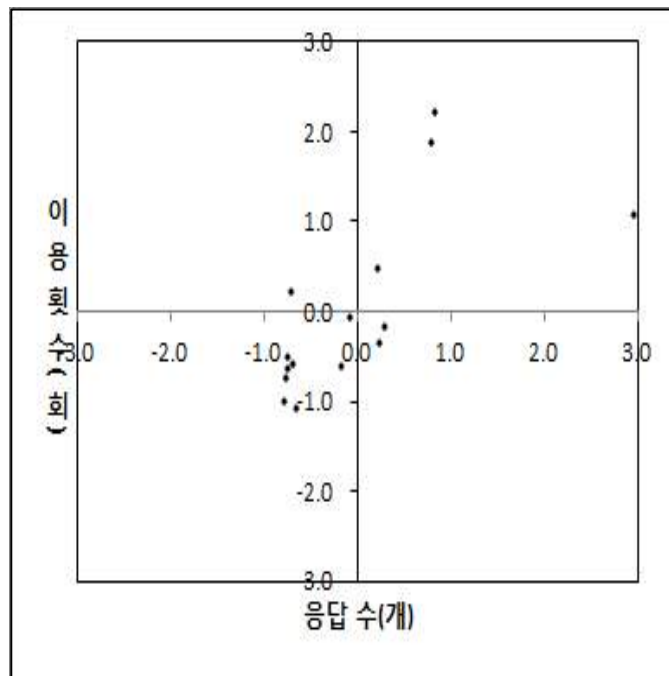
61) Z-Score = (해당 인자값 - 평균) / 표준편차

화 전시, 회화서예·사진, 공예·조각 등을 들 수 있다. 4사분면에 위치하여 다수가 가끔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등을 들 수 있다.

<표 4-20>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의 Z-Score

구 분	이용자수(Z)	이용횟수(Z)	사분면	구 분	이용자수(Z)	이용횟수(Z)	사분면
기 타	-0.649	-1.094	3	공 예 · 조 각	-0.708	0.212	2
문학창작시	-0.787	-1.007	3	연극 · 뮤지컬	0.241	-0.354	4
무 용 · 발 레	-0.768	-0.746	3	음악 · 콘서트	0.301	-0.180	4
과학기술체험	-0.748	-0.637	3	강연강좌교육	0.222	0.473	1
미술관 관람	-0.174	-0.615	3	영화 · 비디오	2.952	1.060	1
전통문화전시	-0.688	-0.593	3	체육 · 스포츠	0.795	1.866	1
회화서예·사진	-0.748	-0.506	3	도서관 이용	0.835	2.192	1
박물관 관람	-0.075	-0.071	3				

<그림 4-55>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와의 관계도



<표 4-21> 문화활동별 이용자수와 이용횟수 관계

구 분	주요 문화활동	비 고
1사분면	-강연강좌교육, 영화·비디오 감상, 체육·스포츠, 도서관 이용	다수가 자주 이용
2사분면	-공예·조각	소수가 자주 이용
3사분면	-문학창작시, 무용·발레,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전통문화 전시, 회화서예·사진, 공예·조각, 기타	소수가 가끔 이용
4사분면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다수가 가끔 이용

다섯째,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응답자들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없이 대체로 만족(보통 포함 92.5%)하고 있었다.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는 요금이 비싸서(24.0%), 기다려야 해서(6.7%), 작고 좁아서(3.1%), 시설이용이 불편해서(5.3%) 등 시설의 규모나 운영과 관련된 것이 39.1%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통 불편(17.3%), 주변의 편의시설 부족(13.8%), 외딴 곳(1.8%)과 같은 문화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것이 32.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입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3)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첫째, 문화콘텐츠의 빈곤과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은 영화관(29.7%), 공연장·문예회관(17.2%), 도서관(14.1%)이며, 이들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콘텐츠가 편중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향후에도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체육스포츠, 강연·강좌교육, 영화·비디오 감상 등 여전히 단순관람형 문화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향유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부터 다양한 유형의 문화교육과 경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문화소비층인 문화중산층의 문화활동 행태와 선호활동을 고려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월평균 문화활동비가 5만 원 이하(17.8%)인 문화무관심층이나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거주 동리 또는 거주 읍면동인 소극적 문화활동자(21.8%)가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월평균 문화활동비가 550만 원 이상인 문화매니아층(15.5%)이나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원거리 시군구인 적극적 문화활동자(4.0%)도 있다. 그러나 주요 문화수요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거주 시군구 내에서 가족 단위의 문화적 활동도 왕성한 월평균 가구소득 300~400만 원대의 20~40대 층으로서 월 20~30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출하는 문화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문화정책은 이들의 문화활동 행태를

고려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적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문화체육센터, 미술관 등은 도시규모나 지역의 위치와 무관하게 전체 문화활동의 83.3%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중에서 도서관은 현재의 이용빈도는 높으나 향후의 선호순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라기보다 생활시설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문화이용 행태와 향유의지를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

첫째, 컴퓨터나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한 문화정보의 제공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응답자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 문화에 대한 정보부족(21.0%)을 들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90% 이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유·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자들의 문화정보 접근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간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문화를 향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기들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련교육을 통해 운용능력을 배양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활동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 문화활동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응답자들은 현재 월평균소득 390만원의 5~6% 정도인 22만 원 가량을 문화활동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문화활동비 지출을 늘릴 의지는 있으나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지 근거리에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무료공연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hapter V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본 장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방안,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만족도 제고방안,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방안 등을 제시한다. 각각의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도입필요성 및 사례, 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1. 개선의 기본방향

관련개념 정립 및 국내외 지역문화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중에서 본 연구의 내용적 대상이 되는 지역 간 문화격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사회적 통합 등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둘째, 지역 간의 문화격차는 인권, 지역주민의 행복 추구, 지역적·사회적 갈등 해소, 지역의 쇠퇴 방지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문화격차는 지역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고 누림으로써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향유만족도를 제고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술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소비층별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한다. 법·제도 개선은 관련 법률 및 계획 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 2.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방안

### 1)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방안

#### (1)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 및 활용사례

면담조사결과, 지역주민들은 영화관(29.7%), 공연장·문예회관(17.2%), 도서관(14.1%), 박물관(10.1%) 등의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군급도시에서는 이러한 문화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른바 “문화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문화시설이 없는 곳은 과학관 70.9%, 미술관 64.8%, 영화관 44.3%, 문예회관 22.6%, 박물관 15.2%로 나타났다.

특히, 84개 군급도시의 91.7%에 해당하는 77개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시설인 영화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도시규모별 문화시설 미입지 현황

구 분	도시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영화관		과학관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특광역시	69	0	0.0	17	24.6	47	68.1	23	33.3	3	4.3	11	15.9	49	71.0
중대도시	25	0	0.0	2	8.0	9	36.0	4	16.0	0	0.0	0	0.0	14	56.0
중소도시	52	0	0.0	3	5.8	36	69.2	7	13.5	1	1.9	14	26.9	35	67.3
군급도시	84	0	0.0	13	15.5	57	67.9	18	21.4	1	1.2	77	91.7	65	77.4
계/평균	230	0	0.0	35	15.2	149	64.8	52	22.6	5	2.2	102	44.3	163	70.9

최근 다양한 기능의 문화시설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집적화한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시설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권을 기반으로 복합문화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다는 정책을 발표<sup>62)</sup>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써 지역의 유희시설이나 노후된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은 영화관 10개소, 음악창작소 4개소를 설치하며, 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체육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코엑스(COEX)나 부산 벡스코(BEXCO)와 같은 복합문화시설에서는 인근의 숙박시설, 쇼핑시설, 교통시설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엑스는 컨벤션 중심의 복합문화시설로서 다양한 전시·체험시설과 영화관, 백화점, 아쿠아리움, 공항 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집적화되어 있고, 벡스코는 전시시설, 숙박시설, 대규모 쇼핑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다.

싱가폴에서는 국제전시장(SICEC<sup>63)</sup>)을 건설하여 복합문화시설로 활용<sup>64)</sup>하고 있다. SICEC는 “More Than Meeting Spac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컨벤션센터를

6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 2,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63)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64) 싱가포르 국제전시장 홈페이지(<http://www.suntecsingapore.com/>)

회의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적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업무, 관광, 위락활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전시장, 박물관, 영화관 등과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을 연계하였다. 전시장은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극장식으로 설계하였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첨단시설들도 설치하였다. 정부에서는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었고,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경공업 제품의 전시회는 SICEC에서, 중공업 제품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는 싱가포르 EXPO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등 유사한 시설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 도시구조 전환계획의 일환으로 오다이바 지구를 지정하고 전략적 거점시설로 “도쿄 국제전시장(Tokyo Big Sight)”을 설치하여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sup>65)</sup>. 국제전시장 내에 전시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철·수상택시 등 대중교통시설과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숙박시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시설은 지자체인 도쿄도에서 건설하고, 운영은 동경국제전본시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5-1> 해외 복합문화시설 활용사례



- 자료 1. 싱가포르 국제전시장 홈페이지(<http://www.suntecsingapore.com/>)  
 2. 도쿄 국제전시장 홈페이지(<http://www.bigsight.jp/>)

6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MICE시설과 인접지역 복합화 추진 방안, 53쪽

영국에서도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집적시킨 복합문화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웨이크필드(Wakefield)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신축하는 도서관에 기존의 박물관을 입지시켰으며, 조지아 지역(Georgian Villa)에서는 문화유 적지와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개인전시관을 연계시켰다.

<그림 5-2> 영국의 복합문화시설 이용사례



- 자료 1. 웨이크필드 도서관 홈페이지(<http://joomla.uproc.lib.mi.us/wakefield/>)  
 2. 핀스버리 문화예술 거점공원 홈페이지(<http://finsburyparkcreativehub.co.uk/>)  
 3. 윌리엄 모리스 갤러리 홈페이지(<http://www.wmgallery.org.uk/>)

## (2) 정책적 개선방안

지역 내 적절한 지점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려는 욕구가 강하므로 문화시설이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들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로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자동차로 30분 이내인 근거리에서는 영화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등을 다수가 자주 이용하고, 자동차로 1시간 이상인 장거리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문예회관 등을 가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콘텐츠들을 이용빈도별로 구분해 보면 자주 이용하는 문화콘텐츠는 영화·비디오 감상, 강연·강좌 교육, 도서관 이용, 체육·스포츠 등이었고, 가끔 이용하는 문화콘텐츠는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등이었다.

<표 5-2> 거리와 빈도에 따른 문화시설 및 문화콘텐츠 구분

이용빈도	주요 문화콘텐츠	관련 문화시설	이동거리
다수가 자주 이용	-강연강좌교육, 영화비디오 감상, 도서관 이용, 체육스포츠 등	영화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근거리
소수가 자주 이용	-공예조각 등	미술관	중거리
소수가 가끔 이용	-문학창작시, 무용발레,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회화서예사진, 전통문화 전수 등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장거리
다수가 가끔 이용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관람 등	문예회관	장거리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들이 근거리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콘텐츠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시설들을 문화시설이나 이와 연계된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면 시설설치에 따른 민원이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기본법에 문화시설의 정의와 아울러 복합문화시설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는 복합문화시설의 위치 선정이나 복합문화시설 내에 입지시켜야 할 문화시설의 종류·콘텐츠의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법 등에서도 관련기관간의 집적화를 통해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sup>66)</sup>”로 정의하는 등 집적화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복합문화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거나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지원하도록

66)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동법 제2조 제19호, 제23조)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 인구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시설이나 유휴공간을 문화시설이나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문화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거나 세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입체적 고밀도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문화산업진흥기 본법에서도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관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30조의2).

## 2)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방안

### (1) 인접지역의 문화시설 이용 필요성 및 사례

면담조사결과, 중소도시와 군급도시에서는 도시규모가 더 큰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 내에 원하는 문화시설이 없어서일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이용하고, 문화시설 주변의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68%)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지역별 문화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지역 간의 교류증진을 통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이나 지방문화원과 같은 일부 문화시설은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만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용요금의 차이를 두는 등 인접지역과의 공동이용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 또는 해당 지역 내의 학교나 직장을 다닌 지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만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문화시설들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문화시설을 시군구별로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외에도 시설의 과다 설치로 인한 이용률 저하와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도시권 공동체를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지자체의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랑파리 프로젝트<sup>67)</sup>”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파리 대도시권을 16개 도시권 공동체와 11개 대도시권으로 구분하고, 공동체 내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계획, 경제·사회·문화, 주택, 공공서비스, 환경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리 대도시권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일 세강(Ile Seguin)섬”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도심지와 배후지역 간의 수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11개 대도시권<sup>68)</sup>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대도시권은 첨단기술거점, 교통·통신거점, 서비스거점 등으로 차별화하고, 인접지역 및 대도시권 간의 공간계획, 경제, 지식, 문화관광, 마케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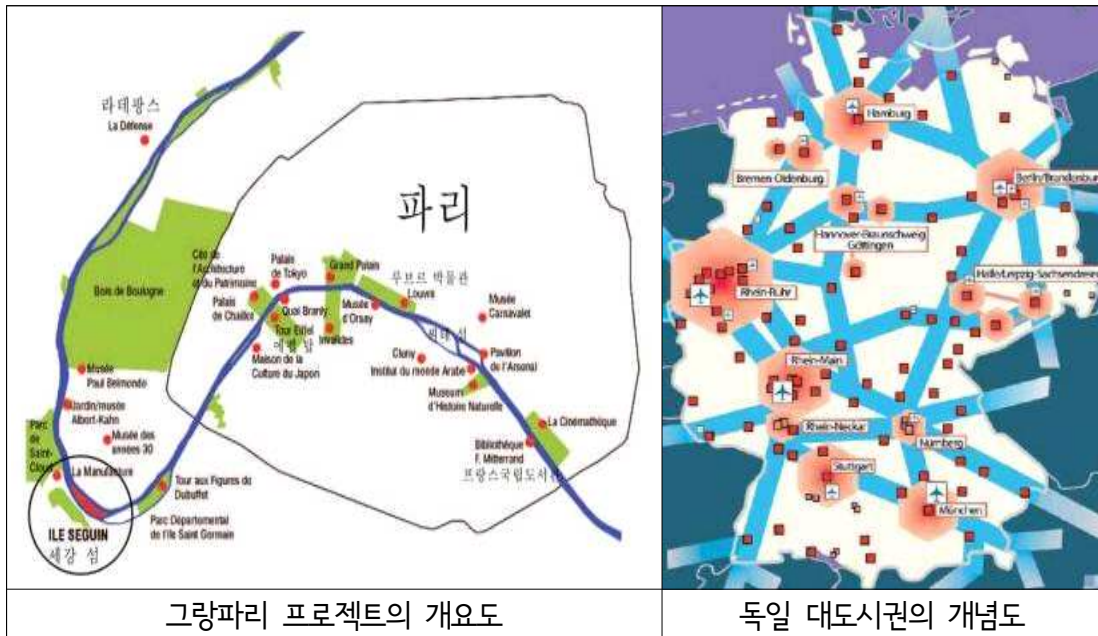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런던의 3개 자치구(Hackney, Haringey, Islington)가 상호 협력하여 핀스버리공원에 극장을 개장하는 등 지역문화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핀스버리공원 창조거점 프로젝트(Finsbury Park Creative Hub Project)”를 추진하였다.

---

67)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고, 파리시민과 세계인들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문화창조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임

68) 뮌헨, 뉘른베르크,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라인-넵카, 라인-마인, 라인-루어, 하노버, 작센드라이엡,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브레멘-올덴부르크

<그림 5-3> 인접지역 문화시설의 공동이용사례



자료 : 최재영, 2007, 파리 도시재생사업과 창조도시 광주 - 일 세강(Ile Seguin)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시사점, Modelvorhaben der Raumordnung, 광주발전연구원

## (2) 정책적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간의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콘텐츠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권 공동체를 형성한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간의 문화시설의 공동이용이 적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징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문화시설 및 문화콘텐츠 현황을 분석하여 인접지역에 비해 특색있고 차별적인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시설 공동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이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도시권 개념에 따라 대도시나 지역의 거점도시에 설치하고, 인접지역과의 공동이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이나 우체국이 지점과 본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문화시설간의 네트워크도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 후지사와시에서는 “생활 속의 도서관”을 목표로 시군구별 소규모 도서관을 마련하고, 거점지역에는 대규모 도서관을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sup>69)</sup>.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에 문화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해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권장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행복생활권에도 도시권 개념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생활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접지역과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생활권의 유형(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생활권), 위치, 거점지역 선정, 도시별 문화시설 및 문화콘텐츠 현황,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적·지역계획적 관점에서 문화시설의 적절한 위치와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한 문화콘텐츠들을 입지시킴으로써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69) 이원태 외, 2004,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69쪽

### 3.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만족도 제고방안

#### 1)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방안

##### (1)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제공

덴마크 코펜하겐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주민서비스와 오케스트라 홍보를 위해 코펜하겐 지하철역이나 중앙역사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게릴라성 플래시몹(flash mob<sup>70)</sup>)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연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즌 곡을 홍보하거나 국제적인 예술가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플래시 몹 공연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다. 또한, 플래시 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영상 조회수가 1천 만 건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파급효과도 컸다<sup>71)</su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플래시 몹 공연 외에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학교를 개최하고, 온라인 공연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4> 게릴라성 문화콘텐츠 제공사례



자료 : 코펜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http://www.copenhagenphil.dk>)

70) 인터넷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끼리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에 공지된 지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행위

71) 유튜브를 이용한 플래시몹 공연([http://www.youtube.com/watch?v=gww9\\_S4PNV0](http://www.youtube.com/watch?v=gww9_S4PNV0))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김해공항에서 게릴라성 공연을 개최하였고,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때 지역의 고고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래시 몹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플래시 몹 공연은 이용자의 행태와 선호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거리의 단순관람형 또는 경험·체험형 문화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플래시 몹 공연은 특정한 문화시설이 아닌 지하철역이나 광장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연하고, 일반인들이 행사의 기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2) 예술인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제공

부산시에서는 중심상권 이동으로 인해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을 활용한 “또따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72)</sup> 또따또가 사업에서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도심 내의 빈 상가를 3년 이내에서 임대해 주거나 건물소유주를 지원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임대공간을 제공받은 예술인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임대가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인들에게 임대함으로써 한정된 문화공간의 활용성도 높이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또따또가 사업은 복합적인 장르를 활용하여 주민과 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자생력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가나자와시에서는 섬유산업 쇠퇴로 인해 폐업한 방직공장의 창고를 시민예술촌으로, 폐교를 미술관으로 각각 개조하여 지역주민들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sup>73)</sup>. 시민예술촌은 4개 동을 각각의 주제에 따라 연습과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 바꾸었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공방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미술관은 지역의 전통공예와 현대예술을 접목시키고, 유명 문화콘텐츠 전시, 유명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시 인구의 3배가 넘는 연간 15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72) 문화적 다양성을 뜻하는 Tolerance와 거리를 뜻하는 한자어인 가(街)를 합성한 용어임

73) 박세훈 외,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그림 5-5>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공사례



자료 : 박세훈 외,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3) 정책적 개선방안

공원, 거리, 지하철역, 광장, 유희공간 등에서의 문화공연은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게릴라성 공연은 대부분 지자체나 언론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향유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무료공연이 체계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고, 후원단체와 문화콘텐츠 제공자를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공방법은 단순관람형, 경험·체험형, 현장탐방형, 교육·강의형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해 주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적 지원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예술인이 생산한 문화콘텐츠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또따또가의 경우에도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지속시키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법적 지원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 진흥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8조 제9호) 활용대상을 공공미술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이 생산한 문화콘텐츠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보방안

### (1)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문화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사례

면담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나 다양한 문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온라인보다 정보제공의 대상이나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수요자를 고려할 때, 거리홍보와 같은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제공방법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정거장·철도역사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공공기관의 게시판 및 인쇄물, 언론매체, 우편·간행물·전단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6> 오프라인을 통한 문화정보 제공사례



자료 1. 광주 버스광고·지하철광고와 세상만평 블로그(<http://blog.daum.net/adlamp/16012486>)

2. 디자인마켓 블로그([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Bg3k](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Bg3k))

온라인을 통해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온라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보유나 활용능력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을 통해 가장 보편적인 정보제공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의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sup>74)</sup>. 또한, 한국문화정보센터와 문화재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공연, 전시, 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7> 온라인을 통한 문화정보 제공사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제공자와 수요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공연 홍보, 무대 뒤 이야기, 실시간 현장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sup>75)</sup>. “연우무대극단”에서는 공연이 제작되는 과정을 SNS에 공유하여

7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75) 서울시립교향악단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SPO>)

관객들에게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sup>76)</sup>. “한국민속촌”에서는 민속촌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SNS에 제공하고, SNS방문자와의 대화를 통해 행사포스터를 선정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77)</sup>.

<그림 5-8> SNS를 이용한 문화정보 제공사례



- 자료 1. 서울시립교향악단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SPO>)  
 2. 연우무대극단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theater.yeonwoo>)  
 3. 한국민속촌 홍보 SNS(<https://twitter.com/koreanfolk>, <https://www.facebook.com/korean-folkvillage>)

## (2) 정책적 개선방안

현재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문화정보는 제공형식, 제공내용, 갱신주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문화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문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SN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정보에 대한 공유와 의견교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정보포털<sup>78)</sup>이나 지역발전포털<sup>79)</sup> 등과 같은 기존 정보제공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6) 연우무대극단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theater.yeonwoo>)

77) 한국민속촌 홍보 SNS(<https://twitter.com/koreanfolk>, <https://www.facebook.com/korean-folkvillage>)

78) <http://www.oneclick.or.kr/index.jsp>

79) [http://www.redis.go.kr/route/main\\_home.do](http://www.redis.go.kr/route/main_home.do)

## 4.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방안

### 1)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용방안

#### (1) 도입 필요성 및 사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상업·문화·교육·복지 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문화시설과 연계된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협력적 거버넌스란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sup>80)</sup>. 또한,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에 문화를 이용하려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에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시 남구의 맛둘레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대구시 남구 맛둘레길은 기존 시가지가 팽창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다. 사업 시행시 주민교육 과정, 설계·시공 과정, 지역활성화 과정을 거치며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축제나 특화거리 공모와 같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들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또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사업추진을, 도시경관과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지역주민 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관리를, 도시닥터<sup>81)</sup>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80) 서순복 외, 2008,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영국 버밍엄 문화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3호

81) 도시활력사업의 발굴, 정책수립, 운영·관리 정책자문, 멘토·조정을 위해 지명된 지역교수 및 실무전문가를 말함(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2조 제4절)

도시대학<sup>82)</sup>은 사업에 대한 교육을 각각 담당하였다. 사업집행 후, 맛돌레길은 하루 2,500명이 방문하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하였으며, 소득과 일자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대구시 남구 맛돌레길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구분	추진체계		지원체계
추진 체계	실무협의체 (총괄 : 도시경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사업별 전담인력지정, 예산·행정지원</li> <li>◦기획조정실,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행정지원국 중 6개 과</li> </ul>
	추진 협의체	좋은 이웃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발굴에서 운영·관리 주도적 역할</li> <li>◦주민, 학교, 2·28기념사업회, 청소년 문화의 집, 상가 등</li> </ul>
		좋은 이웃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발굴, 정책수립, 운영·관리 정책자문</li> <li>◦대학교수·행정·시민단체 및 의회</li> </ul>
	도시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발굴, 정책수립, 운영·관리 정책자문·멘토</li> <li>◦지역교수 및 실무전문가</li> </ul>
지원 체계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사업 추진, 실무자 학습리더 양성, 정보의 공유</li> <li>◦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 연구원 2명</li> </ul>
	주민참여 도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 및 프로그램사업 학습 및 견학</li> <li>◦주민 주도 사업의 시작</li> </ul>

자료 : 홍경구, 2014. 2,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대구시 남구 맛돌레길 사례, 월간 국토

## (2) 정책적 개선방안

관련이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구시 남구 맛돌레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발전사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조정되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구성과 활용을 권장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구성, 운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82) 행정기관이 각종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도시를 재생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교육과정

## 2) 문화시설의 관리방식 개선방안

면담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80% 정도가 이용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인적·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시설이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면서 인적·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와 위탁관리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이나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화시설의 수준이나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 박물관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sup>83)</sup>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 박물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박물관 인증제도(Accreditation Program)와 박물관 평가프로그램(Museum Assess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인증제도”는 매 9년마다 민간 비영리단체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수행되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교부금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크게 자체검사, 현장조사, 박물관 인증위원회 검토 및 결정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체검사에서는 박물관 시설, 운영, 소장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인증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현장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검토, 박물관 운영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최종적으로는 자체검사 및 현장조사자료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박물관 인증여부를 결정받는다.

“박물관 평가프로그램”은 198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박물관의 수준과 운영을

83) 미국 박물관협회 홈페이지(<http://www.aam-us.org/>)

향상시키기 위해 박물관마다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평가받는 제도이며, 평가비용은 선택항목에 따라 무료에서부터 최대 750달러에 이른다. 이 프로그램은 기관평가, 소장품 관리, 공공성, 거버넌스라는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박물관이 평가를 신청한 부문에 대해서만 평가받는다.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조사, 종합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평가항목<sup>84)</sup>은 정량적 지표보다는 서술에 의한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4> 미국 박물관 평가프로그램의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주 요 평 가 내 용
기 관 평 가	◦박물관의 설립목적, 조직구조, 행정, 재정, 소장품 관리, 대외홍보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소장품 관리	◦소장품의 수집, 폐기, 법률사항, 안전성, 목록화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공 공 성	◦박물관 방문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항목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운영방법 등에 대한 평가
거 버 넌 스	◦박물관의 조직구성의 효율성, 역할, 책임 등에 대한 평가

자료 : 미국 박물관협회 홈페이지(<http://www.aam-us.org/>)

<표 5-5> 미국 박물관 평가프로그램의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자체평가	◦박물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현장조사	◦박물관 전문가가 해당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박물관을 평가
종합평가	◦자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자료 : 미국 박물관협회 홈페이지(<http://www.aam-us.org/>)

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박물관(미술관 포함)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8년 “박물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이를 인증제도( accreditation Scheme)로 전환하였다. 인증대상 박물관은 독립 박물관, 지방정부 박물관, 대학 박물관, 국립 박물관, 준국립 박물관 등이며, 2010년 현재 영국 박물관의 75% 가량이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인증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박물관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영국 내 모든 박물관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대상 박물관에서 자격요건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증위원회에서는 4주 이내에 인증준비단계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한다.

84) 평가항목은 공공신뢰 및 의무, 박물관의 임무, 계획 및 평가 달성도, 리더쉽과 조직구성, 소장품 관리, 교육 및 해설, 재정건전성, 시설 및 위험관리 등임

인증준비자격을 부여받은 박물관이 인증위원회에 인증지원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인증자격이 유지되고, 이후에는 인증연장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물관 인증제도를 통과하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간기금을 지원받기 유리하다.

<표 5-6> 영국 박물관 인증질문지의 평가내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박물관의 설립목적	◦박물관 협회의 박물관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
소장품의 보유 정도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이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장기 소장품 보유 여부 등을 평가
운영관리의 적정성	◦박물관 운영 허가여부, 조직 형태 및 운영방법 등을 평가
재정기반의 안정성	◦관련 규정 및 재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2년치 회계장부를 통해 평가
관련규정 준수여부	◦법, 안전성, 윤리, 평등, 환경, 계획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평가
향후 운영계획	◦박물관의 사용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

자료 :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tscouncil.org.uk>)

<표 5-7> 영국 박물관 인증제도의 효과

구분	주요인증효과
실적	◦실적 평가, 성과에 대한 보상, 개선 장려
인지도	◦박물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관리주체와 대중 모두 신뢰를 형성
사람들	◦사용자의 요구와 관심에 초점을 맞춰 개선하고, 조직의 인력을 개발
협력관계	◦박물관 서비스를 검토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을 장려
계획	◦형식을 잘 갖춘 절차와 제도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후원	◦박물관을 국가기준에 맞추어 운영하여 공공 및 민간기금 지원에 유리하도록 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를 형성

자료 :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tscouncil.org.uk>)

## (2) 문화시설 위탁관리 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사례

모든 문화시설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 전문인력 확보, 예산 운영,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관리 및 예산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예산과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업활동수행법<sup>85)</sup>”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공공기관, 민간위탁, 민간과 공공기관의 상호협조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Circular NO. A-76”을 개정하였다. 1998년에는 “연방활동목록 개혁법<sup>86)</sup>”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상업적 성격의 사업리스트를 매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민영화, 민간위탁, 외주화(아웃소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해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많은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민간기관과의 협력(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문화시설의 관리에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방식,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위탁관리방식은 부지나 건물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대신 운영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운영은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토지와 건물을 기부하고,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보어박물관(Bowers Museum)은 지방정부가 문화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87)</sup>. 보어박물관은 1930년대 중반에 사업가인 찰스 보어가 산타아나시(Santa Ana)에 부지와 자금을 기증하여 설립되었고, 시가 직접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박물관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타아나시에서는 비영리 법인인 “보어박물관 법인”을 설립하여 향후 20년 동안 박물관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타아나시가 박물관의 부지, 건물, 소장품의 40%를 소유하는 대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은 산타아나시 산하의 수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족한 비용은 법인에서 미술품 전시를 통한 입장료 수입, 일부 시설물의 활용 수입, 정부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85) Performance of Commercial Activities : Circular No. A-76

86) FAIR ACT : the Federal Activities Inventory Reform Act

87) 보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bowers.org/index.php/support/corporate-sponsors>)

### (3) 정책적 개선방안

#### ①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

문화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며, 문화시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분명한 설립목적 하에 일정한 수준을 항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증 및 평가제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문화시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와 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정받은 문화시설에 한해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인증이나 평가를 위해서는 가칭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근거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마련을 위해 참고할 만한 법규로는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는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2 제1항). 또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인정기관의 지정, 평가인증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을 참고하여 가칭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평가기관의 선정, 평가대상시설,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제도

문화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인력운영의 효율성, 업무의 능률성, 관리의 전문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문화시설을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정부에서 공공서비스를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

는 방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 비영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법률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sup>88)</sup>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계약체결시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위탁관리방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여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을 위한 법규에는 위탁기관의 자격, 역할, 관리·감독방식, 민간으로부터의 기부(토지, 건물, 기부금 등), 문화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방식, 운영비 지원방식, 부대사업(임대·전시)의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88)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3) 지역문화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 지방문화 관련법규 정비방안

##### ① 관련법률 간의 위계 정립

문화체육관광부는 58개 법률에 의해(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예술, 영상·광고, 출판·간행물, 체육·관광, 국정홍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역문화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시켜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국민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문화권) 보장, 문화의 가치확산과 위상제고, 개인의 문화표현 및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조).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야별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분야로는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자원,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경관,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에 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진흥)를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화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에 있어서도 문화기본법(제8조,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제6조 제1항). 따라서 제6조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한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그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1994년 1월 7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9)</sup>.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매 5년마다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이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의 하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2년 8월 14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의 정의에 문화예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제3조)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문화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을 지역문화재단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고, 지방문화예술위원회(제4조) 및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을(제8조) 삭제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4조). 이처럼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의 핵심사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은 사실상 지역문화진흥법에 포함되는 하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2년 8월 14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교육받을 기회를

---

8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동호 각목의 문화시설을 [별표 1]에서 지방문화원을 문화보급·전수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지방문화원은 생활문화시설로 규정

차별없이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규정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한다는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문화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의 하위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문화 관련법률 간의 위계를 정립해 보면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지역문화 관련 법률간의 위계정립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② 관련계획 간의 관계정립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등을 포함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제3항).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11개 분야별<sup>90)</sup>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령 제5조 제5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4항).

이처럼 문화기본법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역문화의 진흥을

90)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교류의 활성화

위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또한,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제6조 제4항).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4항).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처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각각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문화진흥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상위계획인 문화기본법상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도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5조) 이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과 지역문화진흥계획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표 5-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문화관련 시책에 대한 규정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표 5-9> 지역문화 관련법률의 개요 비교

구 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연도	2013.12.30(2014.3.31 시행)	2014.1.28(2014.7.29 시행)	1994.1.7(1994.7.8 시행)	1972.8.14(1972.8.14 시행)	1972.8.14(1972.8.14. 시행)
제정목적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 문화정책의 방향을 규정 -문화의 가치와 위상제고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도모	-지역문화진흥사항 규정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고유문화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국가실현 도모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 -지역문화의 균형적 진흥 도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민족 문화 창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사항 규정
용어정의	-문화 -문화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방문화원(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이 목적)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문화이용권 -문화소외계층 -문화시설의 종류 규정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시설 -문화예술 교육단체·교육사
기본개념	-문화의 다양성·자율·상창조성 -문화의 가치 확산 -문화표현 및 활동의 차별금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삶의 질 추구 -고유문화 보존, 생활문화 활성화	-지방문화원의 육성·설립·사업· 지원 -한국지방문화원 연합회	-문화예술진흥 시책 강구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문화예술의 학습·교육권 차별 금지 및 보장
포괄분야	-문화유산·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자원,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경관, 지역문화 활성화 등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지원 -지역문화 재단·예술위원회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 -문화예술복지 증진 -문화예술위원회·화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주요계획 및 규정	-문화진흥 기본시행계획 수립 · 문화시설·여가시설 조성·활용 ·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문화권 신장 등	-지역문화진흥 기본시행계획 · 문화도시 육성 · 생활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특성화	-지자체의 조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목적)	-문화지구 관리계획(삭제) -문화지구 지정(삭제) -문화강좌 설치기관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학교문화예술 활동·행사 지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인력양성	-문화인력의 양성기반 조성 -문화가치 확산과 진흥교육실시	-지역문화 전문인력		-문화시설의 전문운영인력 양성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원·육성	-문화예술교육사

### ③ 용어정의 명확화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문화진흥을 위한 11개 분야의 하나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제9조 제10호) 지역문화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어 이것이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역문화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외에도 제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자원,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경관 등에 관한 용어정의가 없어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또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문화예술법상의 문화예술이 문화기본법상의 문화예술과 같은 용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 법률에 필요한 용어들만을 정의하다보니 법률 간의 용어정의가 불분명하고, 그 관계도 모호하여 상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에 문화예술, 지역문화, 생활문화 등의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법규 간의 위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아울러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자원,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경관 등에 대한 용어정의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기본법상 문화의 정의와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 생활문화의 정의가 서로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지역문화의 정의 중 지역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정책의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문화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sup>91)</sup>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sup>92)</sup> 및 제2항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이를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의 하위 법령이고,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 상당히 축소·변경되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sup>93)</sup>”로 규정(법 제2조 제5호, 령 제2조)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일부 법률에 규정된 시설들을<sup>94)</sup> 문화예술교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따라서 문화에 관한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들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관련 법률마다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의 대상이 문화시설의 대상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는 등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규정도 있다. 따라서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위 법령이나 관련 법률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92)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그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9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9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외하고 문화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들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반시설<sup>95)</sup>에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sup>96)</sup>.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문화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시설<sup>97)</sup>로 규정하고 있다(제96조).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등을 문화예술진흥법(또는 문화기본법)에서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문화시설 확충규정 개선방안

면담조사결과,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은 영화관(29.7%), 공연장·문예회관(17.2%), 도서관(14.1%)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 해보고 싶어하는 문화콘텐츠는 연극·뮤지컬, 음악·콘서트, 영화·비디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시설들은 도시규모나 지역의 위치와 무관하게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95) 공공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96)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는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공공체육, 연구, 사회복지,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이 있음(령 제2조 4호)

97)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또한, 문화시설 미입지 현황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도서관이 없는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이 없는 군급도시는 전체 84개 중 77개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화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공공영화관을 설치하여 영화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영화는 그 특성상 신작관람에 대한 욕구가 크고, 문화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군급지역은 인구 수가 적어 민간의 영화관 유치가 쉽지 않다. 때문에 영화관은 교통이 편리해야 하며,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야 하고, 대형 스크린을 갖추고 신작영화를 상영하는 개봉관이어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2001년 예능실연가 단체협의회에서 연령, 성별, 주거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당시 일본은 박물관법과 도서관법을 운영되고 있었지만 극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극장과 음악당이 대관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자원조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후, 전국의 공공극장을 활성화하여 공연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극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2009년에는 “사회의 활력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가칭)극장법 제언”을 통해 극장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극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극장, 음악당 등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극장법)<sup>98)</sup>”을 마련하여 극장과 음악당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극장법은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을 지역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일본 문화청의 거점형성사업지원 프로그램과도 유사하다. 이 법에서는 극장의 설립목적인 공연기획과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극장운영주체, 예술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극장과 음악당의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

98) 2102년 6월 27일, 법률 제49호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관리자제도를 마련하여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시설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행정비용도 절감시켰다. 현재, 일본 공공문화시설의 40% 정도가 지정관리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영업능력이 향상되고 관객 중심의 의식이 제고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극장법 사례는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군급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영화나 공연활동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화관의 특성과 군급도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급지역의 영화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지자체별로 교통여건이 유리하고 인근의 편의시설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곳에 영화관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지역여건 상 복합문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영화관을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의 영화관 설치를 유도·장려하기 위해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고, 영화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화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갈되어 가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일반회계)조달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sup>100)</sup>.

99)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경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 진흥사업,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100) 윤정국, 2014. 9.14, 문예진흥기금 안정화 없이 문화융성 없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kyoon&logNo=220121893697>)

셋째, 국민들의 일상적 수요가 많은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극장법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신도시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sup>101)</sup> 이상의 개발사업<sup>102)</sup> 시 학교용지의 확보·조성·개발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sup>103)</sup>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문화시설의 용지확보 또는 증축을 위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화시설 용지확보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적률 상향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문화도시·문화지구·시범도시 관련규정 개선방안

### ① 관련규정 현황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분야별<sup>104)</sup>로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제2조 제6호).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도시 조성사

101)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법 제3조 제1항)

102)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법 제2조 제2호)

10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법 제2조 제3호)

10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분야(령 제11조)

업에 필요한 경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7조, 령 제15조).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제2조 제7호). 또한,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특광역시 제외)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sup>105)</sup>을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3년마다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령 제20조) 구체적 지원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4항).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등이 해당된다(령 제19조).

시범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제127조 제1항).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는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 기후변화 등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27조 제1항, 령 제126조 제1항).

시범도시는 기준<sup>106)</sup>에 적합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

105)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령 제16조 제2항),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령 제16조 제3항)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령 제126조 제2항,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법 제127조 제2항, 령 제129조 제1항), 시군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령 제129조 제4항).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계획(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령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sup>107)</sup>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제1항 제10호, 령 제43조 제4항 제1호).

## ② 관련규정 비교 및 개선방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문화지구와 관련된 다른 법규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범도시를 들 수 있다. 시범도시를 통한 문화도시의 조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의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지정목적에 있어 시범도시는 도시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며,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문화도시는 문화부문으로 특화되어 있다. 지정방법에 있어 시범도시는 시범도시·지구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절차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주민이나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성계획(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요청하면 관련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승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보조용자)

106)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시범도시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할 것

107)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법 제2조 제5호).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축소·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종합해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주무부처의 업무영역에 따라 지정도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도시나 지구지정의 중복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화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도시와 시범도시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법 제3조 제5호).

따라서 문화도시나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조항들을 토대로 주무부처간의 업무협의를 충실히 하여 각각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 문화도시의 육성,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제6조 제3항).

둘째, 중앙행정기관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면적 1km<sup>2</sup> 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구획 등을 지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를 주제로 하는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등한 규정 하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5-10> 문화도시, 문화지구, 시범도시의 비교

구 분	문화도시	문화지구	시범도시
지정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지정목적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육성, 특화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자원 및 문화적 특성 보존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지정조건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확보	-전통문화관련 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조성계획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 관광,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교육, 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 기후변화등 분야별로 지정
지정방법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로 구분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로 구분	-시범도시·지구단위 등으로 지정
지정절차	-주민·단체기관의 의견수렴 -문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시도지사 협의 및 승인신청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후 승인 -승인 1년후 도시문화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지정	-주민의견수렴, 지자체의 조례 제정 -문화지구 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요청 -시도지사 승인(1년 이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후 승인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필요시 공모) 또는 중앙 행정기관장·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지정 -주민·지자체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국토부장관이 지정 -시범도시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	-조성사업비, 전문인력양성·지원비, 협력체계 구축비, 홍보비 중 일부를 문체부장관이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지구내 권장문화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공고후 3년 마다 추진실적 평가후 우수 문화지구에 대해 필요한 지원	-국토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가 계획수립비, 사업시행비 중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 -추진실적 평가후 사업조정, 지원 축소·확대

## 5. 개선방안 종합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들을 정리하면 <표 5-11>과 같다.

<표 5-11> 개선방안 종합

구 분	기본방향	정책방안	개선방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방안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근거리에 있는 편의시설들과 연계</li> <li>○ 문화기본법에 문화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하위법령에서 복합문화시설의 위치 선정, 시설 내 입지시켜야 할 문화시설의 종류와 콘텐츠 선정방법 등을 규정</li> <li>○ 복합문화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적률 상향, 세금 면제·할인 등 문화시설 유인 조항을 마련</li> </ul> </li> </ul>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li> <li>○ 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낮은 문화시설은 지역거점을 형성하고, 인접지역 문화시설과의 연계네트워크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인적 곤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파악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li> <li>- 문화기본법에 문화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조례를 개정·마련</li> </ul> </li> <li>○ 행복생활권 내 문화시설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생활권의 유형, 위치, 거점지역 선정, 문화관련 현황, 문화시설의 접근성, 편의시설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i> </ul> </li> </ul>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 만족도 제고방안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연이 체계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고, 후원단체와 문화콘텐츠 제공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li> <li>○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완하고, 예술인이 생산한 문화콘텐츠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li> </ul> </li> </ul>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문화정보의 통합적 제공과 관리를 위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보의 제공형식, 제공내용, 갱신주기 등</li> </ul> </li> <li>○ 온라인을 이용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문화정보 공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활용교육을 강화</li> <li>- 문화정보 공유와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SNS 서비스를 활용</li> </ul> </li> </ul>

(계속)

구 분	기본방향	정책방안	개선방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방안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를 이용한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용과 활성화를 권장</li> <li>○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구성, 운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침·조례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절차를 지원</li> </ul>
		문화시설의 관리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의 인증이나 평가를 위한 가칭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관의 선정, 평가대상시설,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 시기,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li> </ul> </li> <li>○ 문화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의 자격, 역할, 관리·감독방식, 민간으로부터의 기부, 문화시설의 소유권·운영방식, 부대사업 시행 등을 규정</li> <li>-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기존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li> </ul> </li> </ul>
		지역문화관련 법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간의 위계 재정립 및 용어정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간의 법적 위계를 재정립</li> <li>- 문화에 대한 관련 법률 간의 용어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li> </ul> </li> <li>○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문화시설 설치시 영화관 유치를 지원·장려</li> <li>- 문화예술기금을 확충하고, 영화사업에의 활용규정을 마련</li> <li>- 개발사업 시행시 문화시설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li> </ul> </li> <li>○ 문화도사·문화지구·시범도시 관련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 간의 협조를 위한 규정을 마련</li> </ul> </li> </ul>



chapter VI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미를 간략히 조명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지역의 범위와 도시의 규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의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 주요 결론

지난 20세기가 과학과 지식으로 대표되는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생명 존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문화는 국가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수출, 세수 확보 등과 같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에서도 4대 국정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으로 설정하는 등 국민행복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 및 문헌, 법규 등을 토대로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의와

해소필요성 그리고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의 범위와 도시의 규모에 따른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와 문화향유 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적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통계분석, 지역주민 면담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도 제시하였다.

## 2)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면담조사결과 군급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인 영화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시설의 유형별 규모, 이용빈도, 이동거리, 현재의 시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설치하여야 할 문화시설, 인접지역과의 공동이용방안을 고려해야 할 문화시설, 거점지역에 특화시켜 설치하여야 할 문화시설을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과 같이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점지역에 대규모 도서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반면, 박물관과 같이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낮은 문화시설은 시설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에 특화시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이용행태와 선호도를 고려한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소규모의 단순한 콘텐츠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군급도시에는 문화시설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 각종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문화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이때, 규모도 크고 깨끗하고 편리하며 주변의 편의시설과도 연계되어 가족단위의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면담조사결과 어디서 언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손쉽게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문화정보들을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무료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삶의 여유를 느끼고 새로운 문화활동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 사업에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시설의 위탁관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문화시설의 관리방식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제·개정된 문화관련 법령들 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기반도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 연구의 성과

문화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정의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해소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국토와 지역차원에서 문화의 중요성과 활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관점을 정립하고, 통계자료 분석과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실증적인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 및 문헌, 법규, 조사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의 지역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사·분석결과와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정책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활하고 심도깊은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였으나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역별 통계자료가 몇몇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논리를 구성하거나 통계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과 인력으로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역의 문화향유기회나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적 관점에서는 문화시설 사각지대의 공간적 특성분석이나 문화관련 지역·지구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통 관심사인 도시재생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대효과, 정책대안의 마련과 같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층적 관점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무관심층이나 문화 매니아층과 같이 다양한 문화소비층을 고려한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건축용어사전, 2011, 현대건축관련용어 편찬위원회, 성안당
- 김세훈 외, 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1-8
- 김인수, 2000, 도시환경과 문화시설,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제3호, p.130.
- 라도삼, 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자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R
- 류정아 외, 2012, 지역문화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31
- 류정아 외, 2013,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 2,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12.31.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연도별 과학관 현황
- 박노동 외, 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2-25
- 박세훈 외,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1-45
- 박용치, 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120~147
- 박은실 외, 2013, 지역상생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 박은실, 2005,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17:11~39
- 서순복 외, 2008,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  
3:241-267

- 서우석·김정은, 2010.12,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010년 12월(특집)
- 성제환 옮김(David Throsby 저), 2001, 문화경제학(Economics and Culture), 한울아카데미 p21
- 심응섭, 2004, 21세기를 맞이한 지방문화 육성전략, 지방정부연구, 8, 2:27-49
- 양정필 외, 2006, 문화시설의 건립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
- 영화진흥위원회, 2014, 2013년 한국영화산업 통계보고서
- 이도선 외, 2008,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24호), 2008. 11:25-51
- 이동기, 2007,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전북발전연구원 2007-R-04
- 이병훈, 2010,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속성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 2:193~210
- 이원태 외, 2004,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25
- 전지훈 외, 2014, 공동체 활동과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연구 :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503~534
- 조권중, 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PR
- 지역발전위원회, 2008, 제1차 지역발전정책 보고대회
- 최재영, 2007, 파리 도시재생사업과 창조도시 광주 -일 세강(Ile Seguin)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시사점, 광주발전연구원 2010-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3.6, 지역문화융성 대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층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11.12., “지역사회, 지역문화” 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한상우 외, 2009, 경상남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2009-18
- 행정자치부, 2014, 2013년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3.12.31. 기준)

홍경구, 2014. 2,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대구시 남구 맞돌레길 사례,  
월간 국토, pp.44-53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997, Regional Cultural Policy of the Caribbean  
Community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Regulation 2010, reg. 123

Perloff H.S. etc., Region,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Baltimore : Resources  
for the future, 1960, p. 4.

Richardson H.W., Regional Economic Growth, London : Macmillian, 1973, p. 6.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regional/leed/cultureandlocaldevelopment.htm>)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광주 버스광고·지하철광고와 세상만평 블로그(<http://blog.daum.net/adlamp/16012486>)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다음사전(<http://dic.daum.net/>)

도쿄 국제전시장 홈페이지(<http://www.bigsight.jp/>)

디자인마켓 블로그([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Bg3k](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Bg3k))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미국 박물관협회 홈페이지(<http://www.aam-us.org/>)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보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bowers.org/>)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서울시립교향악단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SPO>)

싱가폴 국제전시장 홈페이지(<http://www.suntecsingapore.com/>)

연우무대극단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theater.yeonwoo>)

영국 DCMS 홈페이지(<https://www.gov.uk/>)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tscouncil.org.uk>)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웨이크필드 도서관 홈페이지(<http://joomla.uproc.lib.mi.us/wakefield/>)  
 윌리엄 모리스 갤러리 홈페이지(<http://www.wmgallery.org.uk/>)  
 유튜브를 이용한 플래시몹 공연([http://www.youtube.com/watch?v=gww9\\_S4PNV0](http://www.youtube.com/watch?v=gww9_S4PNV0))  
 윤정국, 2014. 9.14, 문예진흥기금 안정화없이 문화융성없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kyoon&logNo=220121893697>)  
 일본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지역발전포털([http://www.redis.go.kr/route/main\\_home.do](http://www.redis.go.kr/route/main_home.do))  
 코펜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http://www.copenhagenphil.dk>)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핀스버리 문화예술 거점공원 홈페이지(<http://finsburyparkcreativehub.co.uk/>)  
 한국민속촌 홍보 SNS(<https://twitter.com/koreanfolk>)  
 한국민속촌 홍보 SNS(<https://www.facebook.com/koreanfolkvillage>)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정보포털(<http://www.oneclick.or.kr/index.jsp>)  
 한일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http://www.kjc.or.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rcps.egov.go.kr:8081/>)  
 호주정부 홈페이지(<http://www.australia.gov.au/>)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연법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지원 조례

# SUMMARY

Keywords: Cultural Disparity, Opportunity of Cultural Enjoyment, Satisfaction of Cultural Enjoyment, Cultural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policy directions to relieve the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inter-regions. In order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e analyzed the disparity in opportunities and satisfaction of cultural enjoyment by the regional size. Also we propos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disparity in opportunities of cultural enjoyment was analyzed by using the average(absolute disparity) and coefficient of variation(relative disparity) of statistical data related to cultural facilities.

Results show medium-sized cities have better cultural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size cities, even they have greater scale in cultural facilities. Also, they show less disparities various among comparing other sized cities. The disparity in satisfaction of cultural enjoyment was analyzed b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in five selected regions. From the results of interviews, policies which consider the site, scale, type of cultural facilities, cultural demand, the behaviour and intention to use in cultural enjoyment should be needed.

Three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in order to relieve the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inter-regions:

- i ) expanding cultural facilities to allow for better opportunity.
- ii ) enhancing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to bring about greater satisfaction.

iii) strengthening of regional cultural enjoy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se policy directions, we proposed policy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it should eliminate the blind regions of cultural facilities by expanding the complex cultural facilities. To this end, it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use frequency and the access time to cultural facilities by local residents. Also complex cultural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associated with various amenities facilities. In addition, “the Fundamental Law of Culture” should be modified such as the definition of complex cultural facilities,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promote the local culture.

Second, sharing cultural facilities of adjacent regions is needed. For this, the plans should be considered to create network and share cultural facilities by selection Cultural Hub Regions which have large size and low demand.

Third, it should provided the demand tailored cultural contents. To this end, it should supply the contents which are independent on time and place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n the cultural enjoyment and to be motivated for the new cultural enjoyment.

Fourth, the diversity of cultural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secured. To this end, the standard for integrated providing and management of cultural information of national level. In addition, it should be enabled to share the cultural informations between providers and consumers through online.

Fifth, the utilization of regional cultural governance should be strengthened. By adapting the regional cultural governance in urban regener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regional residents can pursue the projects smoothly and adjust the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Sixth, the regulation of management practices of cultural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To this end, it should provide the regulations about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and the building management on commission of cultural facilities.

Finally, it should improve the law and policies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culture. To this end, it should re-establish a hierarchy between the regional culture related laws and planning. Also the definition of culture-related terms should be clarified.



## 부록

### [ 차례 ]

1. 도시규모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	1
2. 지역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	2
1) 시도별 .....	2
2) 수도권-비수도권 .....	6
3) 경기 남·북부 .....	7
4) 서울 강남·북 .....	8
5) 행복생활권별 .....	9
3. 지역주민 면담조사 .....	14
1) 조사양식 .....	14
2) 조사결과 .....	18



## [ 표 차 례 ]

〈표 부록- 1〉 도시규모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	1
〈표 부록- 2〉 시도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	2
〈표 부록- 3〉 수도권-비수도권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	6
〈표 부록- 4〉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	7
〈표 부록- 5〉 서울 강남-강북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	8
〈표 부록- 6〉 행복생활권별 시군 구성 .....	9
〈표 부록- 7〉 행복생활권 유형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	13
〈표 부록- 8〉 응답자 인적사항 .....	18
〈표 부록- 9〉 응답자의 성별 .....	18
〈표 부록-10〉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	19
〈표 부록-11〉 응답자의 가구원 구성 분포 .....	19
〈표 부록-12〉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	19
〈표 부록-13〉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 .....	19
〈표 부록-14〉 응답자의 고용유형별 구성 .....	20
〈표 부록-15〉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분포 .....	20
〈표 부록-16〉 응답자의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분포 .....	20
〈표 부록-17〉 응답자의 가구소득 및 문화활동비 지출 .....	21
〈표 부록-18〉 응답자의 자가용 보유율 및 운용능력 .....	21
〈표 부록-19〉 응답자의 스마트폰 보유 및 운용 능력 .....	21
〈표 부록-20〉 응답자의 컴퓨터 보유 및 운용 능력 .....	21
〈표 부록-21〉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 .....	22
〈표 부록-22〉 문화인식 및 문화정책 체감도 .....	23
〈표 부록-23〉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지도 .....	23
〈표 부록-24〉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 .....	23
〈표 부록-25〉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지도 .....	23
〈표 부록-26〉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정도에 대한 체감도 .....	24
〈표 부록-27〉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	24
〈표 부록-28〉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	25

〈표 부록-29〉 문화활동별 빈도 .....	26
〈표 부록-30〉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수단 .....	27
〈표 부록-31〉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소요시간 .....	27
〈표 부록-32〉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 .....	27
〈표 부록-33〉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행태 .....	27
〈표 부록-34〉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동반자 .....	27
〈표 부록-35〉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만족도 .....	28
〈표 부록-36〉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불만족 이유 .....	28
〈표 부록-37〉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응답 .....	28
〈표 부록-38〉 응답자의 인접 시군구 문화시설 이용 경험 .....	29
〈표 부록-39〉 응답자의 인접 시군구 문화시설 이용 내역 .....	30
〈표 부록-40〉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	31
〈표 부록-41〉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	32
〈표 부록-42〉 향후에 해보고 싶은 문화활동 .....	33
〈표 부록-43〉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한 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34
〈표 부록-44〉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한 달에 할애할 수 있는 비용	34
〈표 부록-45〉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이동시간 .....	34
〈표 부록-46〉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때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 .....	34
〈표 부록-47〉 문화활동시 선호하는 교통수단의 변화 비교 .....	34

## [ 그림 차례 ]

〈그림 부록-1〉 중추도시생활권(20개) .....	10
〈그림 부록-2〉 도농연계생활권(13개) .....	11
〈그림 부록-3〉 농어촌생활권(21개) .....	12



## 1. 도시규모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표 부록-1> 도시규모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도시규모	구 분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특광역시 (자치구)	계	2,263	808	2,713	2,035	9,688	8,424	3,229	17,144	1,526	1,429
	표준편차	15.08	8.66	86.34	48.22	164.35	166.20	41.41	213.62	11.39	26.00
	평 균	32.80	11.71	39.32	29.49	140.41	122.09	46.80	248.47	22.12	20.72
	변이계수	0.460	0.739	2.196	1.635	1.171	1.361	0.885	0.860	0.515	1.255
중대도시	계	1,515	603	1,624	1,249	6,903	5,194	2,751	12,432	520	387
	표준편차	24.98	10.62	38.84	39.15	273.12	156.01	59.72	296.09	10.46	12.04
	평 균	60.62	24.12	64.95	49.96	276.12	207.76	110.03	497.27	20.78	15.46
	변이계수	0.412	0.440	0.598	0.784	0.989	0.751	0.543	0.595	0.504	0.779
중소도시	계	856	616	1,331	1,159	6,198	4,688	2,155	9,486	789	616
	표준편차	7.35	7.58	21.98	19.73	96.01	97.92	40.49	158.58	9.62	13.04
	평 균	16.46	11.85	25.60	22.29	119.19	90.15	41.45	182.42	15.17	11.85
	변이계수	0.447	0.640	0.859	0.885	0.805	1.086	0.977	0.869	0.634	1.101
군급도시	계	461	572	869	1,015	3,619	2,816	945	4,201	582	429
	표준편차	3.34	3.78	14.37	11.44	50.73	25.12	8.40	57.81	6.01	4.81
	평 균	5.48	6.81	10.35	12.08	43.08	33.52	11.25	50.01	6.93	5.11
	변이계수	0.610	0.555	1.389	0.946	1.178	0.749	0.747	1.156	0.868	0.941

## 2. 지역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 1) 시도별

<표 부록-2> 시도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시도별	구 분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서울시	계	1,020	384	1,698	975	2,387	4,090	1,104	8,989	641	509
	표준편차	13.20	12.28	138.31	55.79	115.21	246.80	19.66	294.53	14.07	17.61
	평 균	40.78	15.36	67.92	39.00	95.48	163.60	44.17	359.57	25.64	20.35
	변이계수	0.324	0.800	2.036	1.430	1.207	1.509	0.445	0.819	0.549	0.866
경기도	계	1,209	490	1,251	1,062	4,063	3,920	2,602	10,263	654	427
	표준편차	31.16	9.05	36.52	27.51	246.64	117.58	73.36	281.40	13.86	13.51
	평 균	39.01	15.81	40.35	34.26	131.06	126.45	83.92	331.08	21.10	13.78
	변이계수	0.799	0.573	0.905	0.803	1.882	0.930	0.874	0.850	0.657	0.981
인천시	계	284	100	184	218	846	736	425	1,719	166	95
	표준편차	20.36	4.94	12.94	14.51	74.31	40.84	20.61	99.19	8.75	8.31
	평 균	28.44	10.00	18.40	21.80	84.60	73.60	42.49	171.94	16.63	9.45
	변이계수	0.716	0.494	0.704	0.666	0.878	0.555	0.485	0.577	0.526	0.880
부산시	계	354	107	252	213	3,083	1,350	534	2,446	346	479
	표준편차	11.76	3.65	15.39	12.06	243.27	114.91	29.41	127.95	10.98	43.22
	평 균	22.12	6.69	15.77	13.31	192.69	84.38	33.38	152.89	21.63	29.92
	변이계수	0.532	0.545	0.976	0.906	1.263	1.362	0.881	0.837	0.508	1.444

(계속)

시도별	구 분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대구시	계	251	83	227	385	1,517	745	510	1,615	167	106
	표준편차	18.10	5.71	23.24	97.56	125.31	63.29	87.36	145.46	9.35	10.06
	평 균	31.32	10.38	28.35	48.13	189.63	93.13	63.72	201.91	20.87	13.21
	변이계수	0.578	0.550	0.820	2.027	0.661	0.680	1.371	0.720	0.448	0.762
광주시	계	147	61	154	111	1,098	649	228	1,027	93	79
	표준편차	13.46	4.97	32.56	25.35	202.37	91.56	17.41	100.32	9.30	9.13
	평 균	29.38	12.20	30.75	22.20	219.60	129.80	45.59	205.39	18.55	15.75
	변이계수	0.458	0.407	1.059	1.142	0.922	0.705	0.382	0.488	0.501	0.580
대전시	계	152	63	151	116	350	454	398	989	90	46
	표준편차	11.29	4.83	14.27	8.53	137.29	37.09	82.39	69.07	9.45	3.82
	평 균	30.49	12.60	30.17	23.20	70.00	90.80	79.64	197.73	18.06	9.19
	변이계수	0.370	0.383	0.473	0.368	1.961	0.408	1.035	0.349	0.523	0.416
울산시	계	115	35	74	80	662	512	136	693	95	149
	표준편차	6.93	2.45	17.89	14.58	151.18	145.34	8.05	97.66	7.63	37.65
	평 균	22.95	7.00	14.88	16.00	132.40	102.40	27.14	138.52	19.06	29.89
	변이계수	0.302	0.350	1.203	0.911	1.142	1.419	0.297	0.705	0.400	1.260
강원도	계	154	184	306	356	1,845	1,018	326	1,837	138	96
	표준편차	8.98	7.36	15.29	18.86	80.08	49.44	21.62	123.98	4.57	4.90
	평 균	8.55	10.22	17.00	19.78	102.50	56.56	18.12	102.07	7.69	5.35
	변이계수	1.051	0.720	0.899	0.953	0.781	0.874	1.193	1.215	0.595	0.914

(계속)

시도별	구 분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충북도	계	157	120	230	176	1,340	647	286	1,127	84	75
	표준편차	17.83	7.77	20.76	14.90	146.47	63.43	31.32	129.45	4.18	5.33
	평 균	13.05	10.00	19.13	14.67	111.67	53.92	23.86	93.90	6.98	6.26
	변이계수	1.366	0.777	1.085	1.016	1.312	1.176	1.313	1.379	0.598	0.850
충남도	계	203	144	345	289	1,394	954	376	1,867	165	130
	표준편차	13.85	5.89	29.36	24.73	93.55	62.57	28.49	142.59	6.01	6.87
	평 균	13.53	9.60	23.01	19.27	92.93	63.60	25.04	124.48	11.03	8.67
	변이계수	1.024	0.613	1.276	1.284	1.007	0.984	1.138	1.145	0.545	0.793
전북도	계	187	138	304	260	1,830	1,095	479	1,517	107	106
	표준편차	17.33	7.16	26.82	26.79	166.49	86.50	47.44	175.52	6.24	13.11
	평 균	13.38	9.86	21.73	18.57	130.71	78.21	34.21	108.39	7.64	7.60
	변이계수	1.295	0.726	1.234	1.442	1.274	1.106	1.387	1.619	0.816	1.724
전남도	계	191	179	300	302	1,613	1,118	484	2,316	234	211
	표준편차	7.95	3.51	10.80	8.60	104.67	39.27	19.82	129.87	8.93	14.50
	평 균	8.68	8.14	13.62	13.73	73.32	50.82	22.01	105.25	10.65	9.61
	변이계수	0.916	0.431	0.793	0.626	1.428	0.773	0.900	1.234	0.839	1.510
경북도	계	270	205	384	319	2,081	1,241	511	2,092	185	173
	표준편차	13.07	5.53	16.91	13.32	105.54	42.31	21.79	106.73	4.83	6.55
	평 균	11.73	8.91	16.71	13.87	90.48	53.96	22.20	90.94	8.05	7.50
	변이계수	1.114	0.621	1.012	0.961	1.167	0.784	0.982	1.174	0.600	0.873

(계속)

시도별	구 분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경남도	계	332	188	378	318	2,089	1,169	518	2,690	207	162
	표준편차	26.09	8.81	26.45	17.73	132.97	75.50	41.34	188.90	7.20	7.70
	평 균	18.44	10.44	20.99	17.67	116.06	64.94	28.79	149.43	11.51	9.00
	변이계수	1.415	0.843	1.260	1.003	1.146	1.163	1.436	1.264	0.626	0.856
제주도	계	58	110	291	259	129	1,384	139	2,033	37	16
	표준편차	19.49	0.00	0.66	45.96	91.22	50.91	41.95	217.67	3.96	1.18
	평 균	29.19	55.00	145.60	129.50	64.50	692.00	69.49	1,016.42	18.48	8.06
	변이계수	0.668	0.000	0.005	0.355	1.414	0.074	0.604	0.214	0.214	0.146

## 2) 수도권-비수도권

<표 부록-3> 수도권-비수도권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구 분	시군구수 (개)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총 계	230		2,599	6,537	5,458	26,408	21,122	9,080	43,263	16.6	7.9
수도권	66		974	3,133	2,255	7,296	8,746	4,131	20,972	21.5	9.3
표준편차		24.23	10.05	89.54	39.50	184.75	173.27	55.63	271.97	13.50	14.98
평균		38.08	14.76	47.47	34.17	110.55	132.52	62.59	317.76	22.14	15.61
변이계수		0.636	0.681	1.886	1.156	1.671	1.308	0.889	0.856	0.610	0.960
비수도권	164		1,625	3,405	3,203	19,112	12,376	4,950	22,291	13.7	7.0
표준편차		16.11	7.86	24.72	29.84	140.54	98.57	38.08	168.86	8.65	18.21
평균		15.74	9.91	20.76	19.53	116.54	75.46	30.18	135.92	11.92	11.16
변이계수		1.023	0.793	1.191	1.528	1.206	1.306	1.262	1.242	0.726	1.631
시군구 당	230		11	28	24	115	92	39	188	17.1	7.8
수도권	66		15	47	34	111	133	63	318	21.2	9.4
비수도권	164		10	21	20	117	75	30	136	13.6	6.8

### 3) 경기 남·북부

<표 부록-4>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구 분	시군구수 (개)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총 계											
경기도 계	31		490	1,251	1,062	4,063	3,920	2,602	10,263	20.9	9.7
-남부지역	22		351	938	762	2,904	3,092	2,030	7,995	22.8	10.5
표준편차		31.73	8.72	35.92	27.48	243.19	127.90	77.76	296.93	15.01	13.50
평 균		41.54	15.95	42.64	34.64	132.00	140.55	92.28	363.39	23.77	14.78
변이계수		0.764	0.547	0.842	0.793	1.842	0.910	0.843	0.817	0.631	0.914
-북부지역	9		139	313	300	1,159	828	571	2,269	16.3	7.6
표준편차		30.62	10.36	39.56	29.21	269.93	83.78	60.40	235.87	7.85	14.03
평 균		32.82	15.44	34.77	33.33	128.78	92.00	63.49	252.10	14.56	11.34
변이계수		0.933	0.671	1.138	0.876	2.096	0.911	0.951	0.936	0.539	1.237
시군구 당											
경기도 계	31		16	40	34	131	126	84	331	20.7	9.7
-남부지역	22		16	43	35	132	141	92	363	22.7	10.4
-북부지역	9		15	35	33	129	92	63	252	16.8	7.6

#### 4) 서울 강남북

<표 부록-5> 서울 강남-강북의 문화향유기회 여건

구 분	시군구수 (개)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총 계											
서울시 계	25		384	1,698	975	2,387	4,090	1,104	8,989	23.4	9.2
-강남지역	11		148	1,016	265	989	997	533	3,532	23.9	13.3
표준편차		11.31	6.56	196.76	22.02	111.59	47.76	25.09	263.07	16.82	17.90
평 균		47.40	13.45	92.34	24.09	89.91	90.64	48.50	321.13	24.90	22.51
변이계수		0.239	0.488	2.131	0.914	1.241	0.527	0.517	0.819	0.675	0.795
-강북지역	14		236	682	710	1,398	3,093	571	5,457	23.1	7.7
표준편차		12.53	15.49	68.09	70.97	121.98	320.39	14.18	323.55	12.12	17.86
평 균		35.58	16.86	48.73	50.71	99.86	220.93	40.78	389.77	26.22	18.64
변이계수		0.352	0.919	1.397	1.399	1.221	1.450	0.348	0.830	0.462	0.958
시군구 당											
서울시 계	25		15	68	39	95	164	44	360	24.0	9.2
-강남지역	11		13	92	24	90	91	48	321	24.7	13.4
-강북지역	14		17	49	51	100	221	41	390	22.9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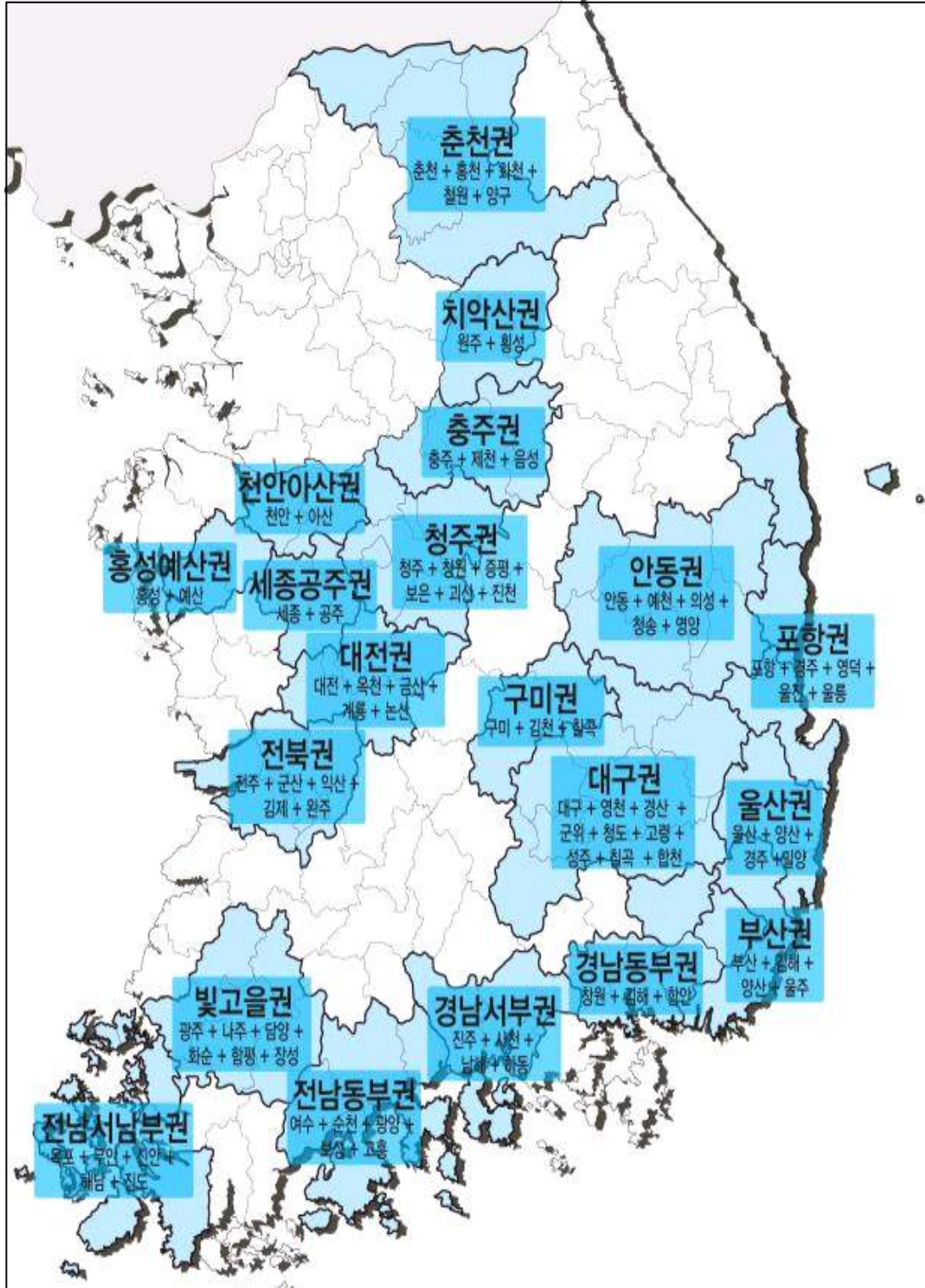
## 5) 행복생활권별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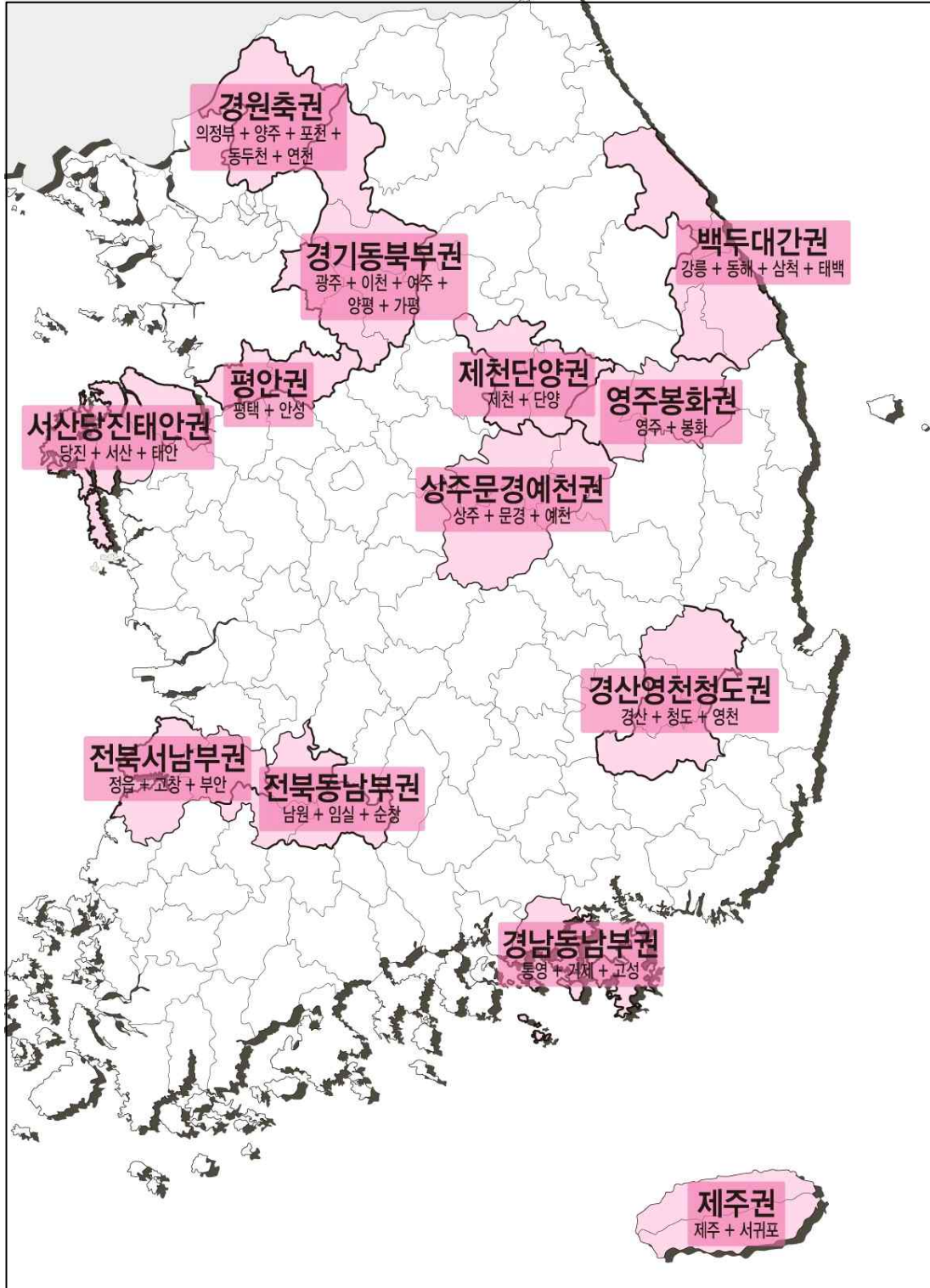
<표 부록-6> 행복생활권별 시군 구성

구분	유형	시군구 구성	구분	유형	시군구 구성
경기1	도농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전남4	농어촌	영암+장흥+강진+완도
경기2	도농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전남5	농어촌	장성+영광+함평
경기3	도농	평택+안성	전남6	농어촌	담양+곡성+구례
강원1	중추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전북1	중추	전주+군산+익산+김제+원주
강원2	중추	원주+횡성	전북2	도농	정읍+고창+부안
강원3	도농	강릉+동해+삼척+태백	전북3	도농	남원+임실+순창
강원4	농어촌	영월+평창+정선	전북4	농어촌	무주+진안+장수
강원5	농어촌	속초+고성+양양	대구	중추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강원6	농어촌	인제+양구			
대전	중추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경북1	중추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세종	중추	세종+공주	경북2	중추	구미+김천+칠곡
충남1	중추	천안+아산	경북3	중추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2	중추	홍성+예산	경북4	도농	영주+봉화
충남3	도농	당진+서산+태안	경북5	도농	상주+문경+예천
충남4	농어촌	공주+부여+청양	경북6	도농	경산+청도+영천
충남5	농어촌	논산+계룡+금산	경북7	농어촌	의성+군위
충남6	농어촌	보령+서천	경북8	농어촌	성주+고령
충북1	중추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경북9	농어촌	울진+영양+영덕
충북2	중추	충주+제천+음성	부산	중추	부산+김해+양산+울주
충북3	도농	제천+단양	울산	중추	울산+양산+경주+밀양
충북4	농어촌	옥천+보은+영동	경남1	중추	창원+김해+합안
충북5	농어촌	음성+진천+증평+괴산	경남2	중추	진주+사천+남해+하동
광주	중추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경남3	도농	통영+거제+고성
전남1	중추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경남4	농어촌	창녕+의령+밀양+합천
전남2	중추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경남5	농어촌	거창+함양+산청
전남3	농어촌	나주+화순	제주	도농	제주+서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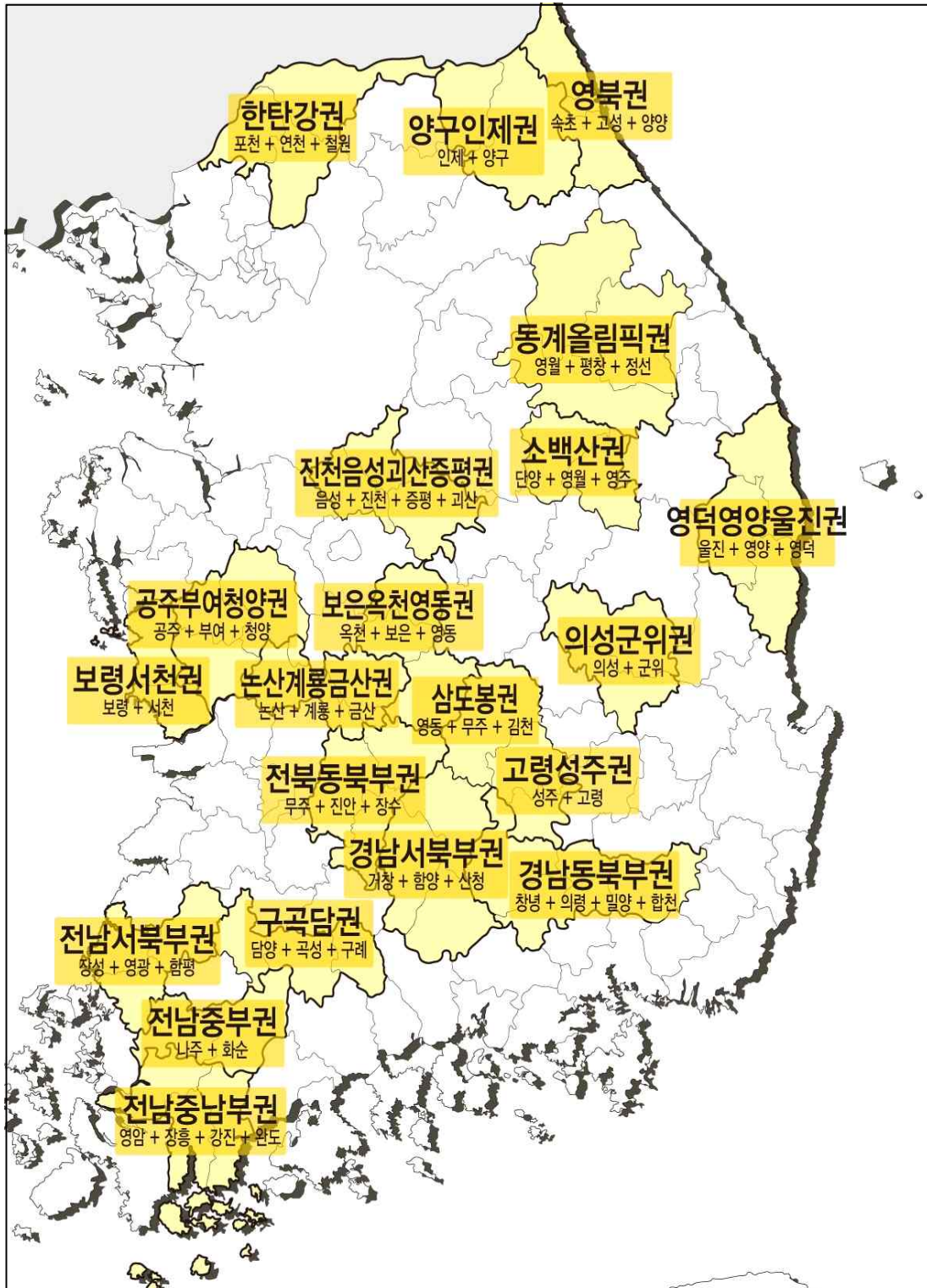
<그림 부록-1> 중추도시생활권(20개)



<그림 부록-2> 도농연계생활권(13개)



<그림 부록-3> 농어촌생활권(21개)



(2) 행복생활권 유형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표 부록-7> 행복생활권 유형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구 분	시군구수 (개)	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시설 개소 수 (개)	문화시설 면적 (만㎡)	운영중인 프로그램수 (개)	연간 공연일수 (일)	문화시설 직원수 (명)	연간 운영예산 (억 원)	연간 이용객 및 관람객 수 (만 명/년)	시설개소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프로그램 당 관람객수 (만 명/년개)
총 계	210		2,023	5,995	3,988	21,896	14,731	7,870	35,358	17.5	8.9
중추도시	118		1,173	2,112	2,405	15,673	9,252	2,905	12,831	10.9	5.3
표준편차		22.64	8.36	29.86	20.95	164.76	79.37	42.75	191.93	7.90	13.39
평 균		21.01	12.25	27.61	20.90	153.10	85.70	39.26	177.99	11.87	11.05
변이계수		1.078	0.682	1.081	1.002	1.076	0.926	1.089	1.078	0.665	1.211
도농연계	40		492	1,808	884	3,254	3,531	2,356	10,337	21.0	11.7
표준편차		11.35	11.90	38.00	31.27	90.67	160.15	27.91	246.63	7.03	9.64
평 균		14.41	13.19	28.26	23.88	87.81	97.53	31.49	175.86	11.24	9.33
변이계수		0.788	0.902	1.345	1.310	1.033	1.642	0.886	1.402	0.625	1.034
농 어 촌	52		358	2,074	699	2,969	1,948	2,609	12,190	34.1	17.4
표준편차		1.98	4.69	5.12	14.50	60.36	36.17	4.13	74.96	4.63	6.08
평 균		4.59	7.04	9.07	13.30	59.93	39.00	9.76	57.24	6.76	5.50
변이계수		0.432	0.666	0.565	1.090	1.007	0.928	0.424	1.310	0.686	1.106
시군구 당	210		40	118	78	429	289	154	693	17.3	8.9
중추도시	118		59	106	120	784	463	145	642	10.9	5.4
도농연계	40		38	139	68	250	272	181	795	20.9	11.7
농 어 촌	52		20	115	39	165	108	145	677	33.9	17.4

### 3. 지역주민 면담조사

#### 1) 조사양식

##### [지역주민 면담조사 양식]

지역명 :  -

#####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서의 문화향유기회 및 만족도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조사자 연락처

조사자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연락처 : 사무실 : , FAX :

휴대폰 : , e-mail :

##### ☐ 응답자 인적사항

거주지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 )읍·면·동										
성 별	남( )	여( )	연 령	19( )년생	거주년도	( )년 부터					
학 력	무 학( ), 초등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직 업	학 생( ), 주 부( ), 사무직( ), 자영업( ), 서비스( ), 기능직( ), 일용직( ), 농림어( ), 전문직( ), 공무원( ), 무 직( ), 기 타( )										
교통통신	자 가 용	유( ), 무( )	스마트폰	유( ), 무( )	컴 퓨 터	유( ), 무( )					
(운용능력)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가족구성	총 ( )인			다문화 가정	(○, ×)			기초생활수급	(○, ×)		
가구소득	( )만원/월		고용유형	정규직( )	비정규직( )	문화활동비	( )만원/월				

## ①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정책의 체감도

1.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세 개만 고른다면? ( , , )				
①예술(음악·미술)	②전시·관람	③영화·연극	④축제·행사	⑤창작(조각·공예)
⑥문화재	⑦문화시설	⑧역사문화유산	⑨여행·여가활동	⑩대중문화
⑪일반생활양식	⑫교양있는 삶	⑬스포츠	⑭문학(사·독서)	⑮기타
2. 문화바우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				
①전혀 모름	②잘 모름	③보통	④조금 앎	⑤매우 잘 앎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				
①전혀 모름	②잘 모름	③보통	④조금 앎	⑤매우 잘 앎
4.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보통	④높음	⑤매우 높음
5.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매우 아님	②아님	③보통	④나아짐	⑤매우 나아짐
6.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세 개만 고른다면? ( , , )				
①문화시설 확충	②문화정보 제공	③프로그램 개선	④문화활동비 지원	⑤무료공연 확대
⑥순회공연 확대	⑦문화예술인 양성	⑧시설접근성 개선	⑨전문인력 확보	⑩기타

## ② 문화향유경험 [작년 1년 동안]

1. 가장 자주 이용했던 문화시설을 방문횟수가 높은 순서대로 세 개만 고른다면?				
순위(횟수)	1위( ), ( )회/년	2위( ), ( )회/년	3위( ), ( )회/년	
①공연장·문예회관	②영화관	③음악당	④박물관	⑤미술관
⑥화랑(회화·서예)	⑦조각공원	⑧도서관	⑨마을문고	⑩문화의 집
⑪복지회관	⑫문화체육센터	⑬지방문화원	⑭국악원	⑮전수회관
⑯종합시설	⑰과학관	⑱기타		
2. 택에서 가장 방문횟수가 많았던(1위 시설) 문화시설까지 어떻게 가십니까? ( )				
①도보(걸어서)	②자전거	③버스·택시·지하철	④자가용	⑤기타
3. 택에서 가장 방문횟수가 많았던(1위 시설) 문화시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				
①5분 이내	②10분 이내	③30분 이내	④1시간 이내	⑤1시간 이상
4.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거주 동리·마을	②거주 읍면동	③거주 시군구	④인접 시군구	⑤원거리 시군구

5. 가장 자주했던 문화활동을 활동빈도가 높은 순위대로 세 개만 고른다면?				
순위(횟수)	1위(     ), (     )회/년	2위(     ), (     )회/년	3위(     ), (     )회/년	
①영화·비디오	②음악·콘서트	③연극·뮤지컬	④무용·발레	⑤공예·조각
⑥박물관 관람	⑦미술관 관람	⑧도서관 이용	⑨회화·서예·사진	⑩강연·강좌·교육
⑪체육·스포츠	⑫전통문화 전수	⑬문학창작시	⑭과학기술 체험	⑮기타
6. 가장 자주하는 문화활동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단순관람형	②경험·체험형	③현장탐방형	④강의·교육형	⑤교류·참여형
7. 가장 자주하는 문화활동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				
①혼자서	②가족과	③친구와	④동호회에서	⑤기타

<b>③ 문화향유 만족도 [작년 1년 동안]</b>				
1.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     )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2. 주로 이용하시는 문화시설이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     )				
①교통이 불편해서	②요금이 비싸서	③기다려야 해서	④작고 좁아서	⑤시설이용 불편
⑥외판 곳이어서	⑦편의시설 부족	⑧직원 불친절	⑨더러워서	⑩기타
3. 인접한 다른 시군구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1) 그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     )				
2) 그 시설은 어느 시군구에 있습니까? (     )				
3) 그 시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				
4) 다른 시군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				
①매우 반대	②반대	③보통	④찬성	⑤매우 찬성
5.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순위대로 세 개만 고른다면? (     ,     ,     )				
①시간이 없어서	②시설이 멀어서	③이용료가 비싸서	④몸이 불편해서	⑤정보를 몰라서
⑥교통·주차불편	⑦경험이 없어서	⑧자녀 때문에	⑨동행자가 없어서	⑩기타
6.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만 고른다면? (     ,     ,     )				
①시간·작정·신적 여유로움		②경제적 안정		③신체적 건강함
④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⑤지역 내에 문화시설 확충		⑥문화시설로의 접근성 개선
⑦원만한 인간관계		⑧개인의 문화향유 의지		⑨무료·순회공연 확충
⑩문화정보제공, 홍보 확대		⑪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		⑫기타(     )

**④ 문화향유 의지 및 수요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1. 앞으로 반드시 해보고 싶은 문화활동을 세 개만 고른다면? (       ,       ,       )				
①영화비디오	②음악콘서트	③연극뮤지컬	④무용·발레	⑤공예조각
⑥박물관 관람	⑦미술관 관람	⑧도서관 이용	⑨회화·서예·사진	⑩강연·강좌·교육
⑪체육·스포츠	⑫전통문화 전수	⑬문학창작시	⑭과학기술 체험	⑮기타
2. 원하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시겠습니까? (       )				
①반나절	②1일	③3일	④5일	⑤틈날 때 마다
3. 원하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겠습니까? (       )				
①5만원 이하	②5~10만원 이하	③10~20만원 이하	④20~30만원 이하	⑤30만 원 이상
4. 문화활동을 하러갈 때 한 번에 최대한 할애할 수 있는 이동시간은? (       )				
①5분 이내	②10분 이내	③30분 이내	④1시간 이내	⑤1시간 이상
5. 문화활동을 하러 갈 때 가장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은? (       )				
①도보(걸어서)	②자전거	③버스·택시·지하철	④자가용	⑤기타

-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조사결과

### (1) 응답자 인적사항

<표 부록-8> 응답자 인적사항

변 수	구 분	빈 도	구성비(%)	변 수	구 분	빈 도	구성비(%)
성 별	남	104	46.22	자 가 용	유	154	68.44
	여	121	53.78		무	71	31.56
	계	225	100.00		계	225	100.00
연 령	10대	3	1.33	스마트폰	유	213	94.67
	20대	44	19.56		무	12	5.33
	30대	80	35.56		계	225	100.00
	40대	64	28.44	컴 퓨 터	유	207	92.00
	50대	30	13.33		무	18	8.00
	60대	4	1.78		계	225	100.00
	계	225	100.00	가족구성	1인	27	12.00
학 력	무 학	0	0.00		2~4인	153	68.00
	초등교	2	0.89		5인 이상	45	20.00
	중학교	3	1.33	계	계	225	100.00
	고등교	40	17.78	가구소득	100 이하	7	3.11
	대학교	167	74.22		101~200	41	18.22
	대학원	13	5.78		201~300	52	23.11
	계	225	100.00		301~400	50	22.22
직 업	학 생	10	4.44		401~500	44	19.56
	주 부	17	7.56		501~600	8	3.56
	사무직	50	22.22		601~700	9	4.00
	자영업	7	3.11		701 이상	14	6.22
	서비스	20	8.89		계	225	100.00
	기능직	1	0.44	문화활동비	5 이하	40	17.78
	일용직	2	0.89		6~10	57	25.33
	농림어	2	0.89		11~ 30	89	39.56
	전문직	8	3.56		31~50	28	12.44
	공무원	88	39.11		51~70	5	2.22
	무 직	0	0.00		71 이상	6	2.67
	기 타	20	8.89		계	225	100.00
	계	225	100.00				

<표 부록-9> 응답자의 성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	평 균
1	남	14	18	31	20	21	104	46.2	20.8
2	여	31	28	14	25	23	121	53.8	24.2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10>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10대(19세)	3	0	0	0	0	3	1.3	0.6
2	20대(20~29)	17	9	9	3	6	44	19.6	8.8
3	30대(30~39)	13	20	20	16	11	80	35.6	16.0
4	40대(40~49)	11	13	8	16	16	64	28.4	12.8
5	50대(50~59)	1	4	8	8	9	30	13.3	6.0
6	60대(60~69)	0	0	0	2	2	4	1.8	0.8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평균 연령	31.4	37.0	37.4	41.9	42.8	38.1		

<표 부록-11> 응답자의 가구원 구성 분포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1인	7	4	7	6	3	27	12.0	5.4
2	2인	1	5	3	6	4	19	8.4	3.8
3	3인	6	10	9	6	5	36	16.0	7.2
4	4인	23	20	20	16	19	98	43.6	19.6
5	5인	6	3	5	9	9	32	14.2	6.4
6	6인	1	3	1	2	4	11	4.9	2.2
7	7인	1	1	0	0	0	2	0.9	0.4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12>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초등교	0	0	0	0	2	2	0.9	0.4
2	중등교	2	0	1	0	0	3	1.3	0.6
3	고등교	13	7	4	8	8	40	17.8	8.0
4	대학교	26	37	39	35	30	167	74.2	33.4
5	대학원	4	2	1	2	4	13	5.8	2.6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13>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학 생	4	3	2	0	1	10	4.4	2.0
2	주 부	12	0	0	3	2	17	7.6	3.4
3	사무직	6	18	8	8	10	50	22.2	10.0
4	자영업	3	0	1	1	2	7	3.1	1.4
5	서비스	14	0	3	2	1	20	8.9	4.0
6	기능직	0	0	0	1	0	1	0.4	0.2
7	일용직	0	1	1	0	0	2	0.9	0.4
8	농림어	0	0	0	1	1	2	0.9	0.4
9	전문직	2	0	3	0	3	8	3.6	2.0
10	공무원	0	22	25	27	14	88	39.1	17.6
11	무 직	0	0	0	0	0	0	0.0	0.0
12	기 타	4	2	2	2	10	20	8.9	4.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14> 응답자의 고용유형별 구성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정 규 직	24	33	29	30	24	140	62.2	28.0
2	비정규직	15	10	14	11	16	66	29.3	13.2
3	사 업	4		1	1	3	9	4.0	2.3
4	학 생	2	3	1	0	0	6	2.7	1.2
5	농 업	0	0	0	1	1	2	0.9	0.4
6	주 부	0	0	0	2	0	2	0.9	0.4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15>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분포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100만 원	4	0	1	1	1	7	3.1	1.4
2	200만 원	6	9	9	7	10	41	18.2	8.2
3	300만 원	9	5	14	9	15	52	23.1	10.4
4	400만 원	7	9	10	15	9	50	22.2	10.0
5	500만 원	7	15	9	7	6	44	19.6	8.8
6	600만 원	3	2	2	1	0	8	3.6	2.0
7	700만 원	3	3	0	1	2	9	4.0	1.8
8	800만 원	2	2	0	2	1	7	3.1	1.4
9	900만 원								
10	1000만 원	4	1	0	2	0	7	3.1	2.3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평균소득	436.2	433.7	336.2	406.2	336.6	390.2		

<표 부록-16> 응답자의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분포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0만 원	2	0	0	0	3	5	2.2	1.0
2	5만 원	4	10	6	6	9	35	15.6	7.0
3	10만 원	11	11	10	15	10	57	25.3	11.4
4	20만 원	13	13	15	13	10	64	28.4	12.8
5	30만 원	8	3	7	3	4	25	11.1	5.0
6	40만 원	1	0	0	0	3	4	1.8	0.8
7	50만 원	3	6	6	7	2	24	10.7	4.8
8	60만 원	2	0	0	0	0	2	0.9	0.4
9	70만 원	0	2	0	0	1	3	1.3	0.6
10	80만 원	0	0	1	0	0	1	0.4	0.2
11	90만 원	0	0	0	0	0	0	0.0	0.0
12	100만 원	1	1	0	1	2	5	2.2	1.3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평균지출	22.6	22.5	22.1	21.3	21.4	22.0		

<표 부록-17> 응답자의 가구소득 및 문화활동비 지출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평 균
월평균 문화활동비	22.6	22.5	22.1	21.3	21.4	22.0
월평균 가구소득	436.2	433.7	336.2	406.2	336.6	390.2
문화활동비 비율(%)	5.18	5.18	6.57	5.24	6.36	5.64

<표 부록-18> 응답자의 자가용 보유율 및 운용능력

	자가용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 균
1	유	22	30	31	40	31	154	68.4	30.8
2	무	23	16	14	5	13	71	31.6	14.2
	계	45	46	45	45	44	225	100.0	45.0

	운용능력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 균
1	상	11	16	18	16	15	76	33.8	15.2
2	중	14	18	20	26	21	99	44.0	19.8
3	하	20	12	7	3	8	50	22.2	10.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19> 응답자의 스마트폰 보유 및 운용 능력

	스마트폰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 균
1	유	44	44	44	43	38	213	94.7	42.6
2	무	1	2	1	2	6	12	5.3	2.4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운용능력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 균
1	상	31	21	16	11	13	92	40.9	18.4
2	중	13	24	25	29	24	115	51.1	23.0
3	하	1	1	4	5	7	18	8.0	3.6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20> 응답자의 컴퓨터 보유 및 운용 능력

	컴퓨터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 균
1	유	37	44	41	44	41	207	92.0	41.4
2	무	8	2	4	1	3	18	8.0	3.6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운용능력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 균
1	상	21	14	11	11	14	71	31.6	14.2
2	중	16	32	30	30	23	131	58.2	26.2
3	하	8	0	4	4	7	23	10.2	4.6
	계	45	46	45	45	44	225	100.0	

## (2)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정책의 체감도

<표 부록-21> 문화하면 떠오르는 것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	예술(음악미술)	16	2	4	22	16.3	13	3	4	20	14.5	15	7	1	23	17.0	16	5	2	23	17.0	16	4	3	23	17.4	76	21	14	111	16.4
2	전사관람	7	8	6	21	15.6	7	6	2	15	10.9	4	3	3	10	7.4	7	10	5	22	16.3	4	4	3	11	8.3	29	31	19	79	11.7
3	영화연극	14	14	5	33	24.4	18	13	6	37	26.8	19	11	3	33	24.4	15	9	8	32	23.7	13	12	7	32	24.2	79	59	29	167	24.7
4	축제행사	1	4	8	13	9.6	6	3	5	14	10.1	1	7	4	12	8.9	2	7	2	11	8.1	1	5	5	11	8.3	11	26	24	61	9.0
5	창작(조각공예)	1	0	0	1	0.7	0	0	0	0	0.0	0	0	0	0	0.0	0	0	2	2	1.5	0	2	0	2	1.5	1	2	2	5	0.7
6	문화재	1	0	0	1	0.7	0	1	1	2	1.4	2	2	3	7	5.2	0	2	2	4	3.0	1	2	2	5	3.8	4	7	8	19	2.8
7	문화시설	1	5	1	7	5.2	1	8	1	10	7.2	1	2	3	6	4.4	1	2	5	8	5.9	2	3	3	8	6.1	6	20	13	39	5.8
8	역사문화유산	1	2	3	6	4.4	0	2	2	4	2.9	0	4	2	6	4.4	1	1	1	3	2.2	1	1	2	4	3.0	3	10	10	23	3.4
9	여행여가	0	4	6	10	7.4	0	8	7	15	10.9	1	5	7	13	9.6	1	6	5	12	8.9	0	7	5	12	9.1	2	30	30	62	9.2
10	대중문화	1	1	1	3	2.2	0	1	7	8	5.8	0	2	5	7	5.2	0	3	5	8	5.9	0	0	6	6	4.5	1	7	24	32	4.7
11	일반생활양식	0	0	0	0	0.0	0	0	1	1	0.7	0	0	0	0	0.0	0	0	0	0	0.0	0	0	1	1	0.8	0	0	2	2	0.3
12	교양있는 삶	0	1	2	3	2.2	0	0	2	2	1.4	0	1	3	4	3.0	1	0	0	1	0.7	2	1	2	5	3.8	3	3	9	15	2.2
13	스포츠	1	4	7	12	8.9	1	0	8	9	6.5	1	1	5	7	5.2	1	0	6	7	5.2	4	1	3	8	6.1	8	6	29	43	6.4
14	문학(사독서)	1	0	2	3	2.2	0	1	0	1	0.7	1	0	5	6	4.4	0	0	2	2	1.5	0	2	2	4	3.0	2	3	11	16	2.4
15	기타	0	0	0	0	0.0	0	0	0	0	0.0	0	0	1	1	0.7	0	0	0	0	0.0	0	0	0	0	0.0	0	0	1	1	0.1
	계	45	45	45	135	100	46	46	46	138	100	45	45	45	135	100	45	45	45	135	100	44	44	44	132	100	225	225	225	675	100

<표 부록-22> 문화인식 및 문화정책 체감도

변 수	구 분	빈 도	(%)	변 수	구 분	빈 도	(%)
문화바우처 제도 인지도	전혀모름	41	18.22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매우 낮음	23	10.22
	잘 모름	81	36.00		낮 음	92	40.89
	보 통	39	17.33		보 통	83	36.89
	조 금 앞	49	21.78		높 음	26	11.56
	매우 잘 앞	15	6.67		매우 높음	1	0.44
	계	225	100.00		계	225	100.00
문화권 인지도	전혀모름	17	7.56	과거에 비해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 정도	매우 아님	7	3.11
	잘 모름	54	24.00		아 님	43	19.11
	보 통	53	23.56		보 통	67	29.78
	조 금 앞	71	31.56		나 아 짐	98	43.56
	매우 잘 앞	30	13.33		매우 나아짐	10	4.44
	계	225	100.00		계	225	100.00

<표 부록-23>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전혀 모름	10	10	8	6	7	41	18.2	8.2
2	잘 모름	23	18	10	17	13	81	36.0	16.2
3	보 통	7	7	6	10	9	39	17.3	7.8
4	조금 앞	3	8	15	9	14	49	21.8	9.8
5	매우 잘 앞	2	3	6	3	1	15	6.7	3.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척도점수	2.2	2.5	3.0	2.7	2.8	2.6		

<표 부록-24> 문화권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전혀 모름	5	4	4	1	3	17	7.6	3.4
2	잘 모름	15	15	9	8	7	54	24.0	10.8
3	보 통	10	12	9	15	7	53	23.6	10.6
4	조금 앞	11	9	16	14	21	71	31.6	14.2
5	매우 잘 앞	4	6	7	7	6	30	13.3	6.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척도점수	2.9	3.0	3.3	3.4	3.5	3.2		

<표 부록-25>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레	계	(%)	평 균
1	매우 낮음	3	1	2	4	13	23	10.2	4.6
2	낮 음	9	20	18	24	21	92	40.9	18.4
3	보 통	24	22	17	14	6	83	36.9	16.6
4	높 음	8	3	8	3	4	26	11.6	5.2
5	매우 높음	1	0	0	0	0	1	0.4	0.2
	계	45	46	45	45	44	225		
	척도점수	2.9	2.6	2.7	2.4	2.0	2.5		

<표 부록-26>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정도에 대한 체감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	평 균
1	매우 아님	2	1	2	0	2	7	3.1	1.8
2	아 님	10	6	5	6	16	43	19.1	8.6
3	보 통	16	10	14	13	14	67	29.8	13.4
4	나 아 짐	15	26	21	25	11	98	43.6	19.6
5	매우 나아짐	2	3	3	1	1	10	4.4	2.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척도점수	3.1	3.5	3.4	3.5	2.8	3.3		

<표 부록-27>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	문화시설 확충	25	3	4	32	23.7	31	3	3	37	26.8	20	2	2	24	17.8
2	문화정보 제공	4	8	8	20	14.8	9	10	4	23	16.7	11	5	1	17	12.6
3	프로그램 개선	3	8	2	13	9.6	2	6	7	15	10.9	6	3	9	18	13.3
4	문화활동비 지원	4	8	5	17	12.6	0	9	4	13	9.4	1	12	2	15	11.1
5	무료공연 확대	3	11	6	20	14.8	1	6	12	19	13.8	2	7	4	13	9.6
6	순화공연 확대	0	1	11	12	8.9	0	4	2	6	4.3	1	2	6	9	6.7
7	문화예술인 양성	2	1	2	5	3.7	0	1	3	4	2.9	3	7	4	14	10.4
8	시설접근성 개선	1	4	5	10	7.4	3	6	8	17	12.3	0	6	9	15	11.1
9	전문인력 확보	3	1	2	6	4.4	0	1	3	4	2.9	1	1	8	10	7.4
10	기타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계	45	45	45	135	100	46	46	46	138	100	45	45	45	135	100

(계속)

	구 분	서귀포					구 려					계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	문화시설 확충	21	2	4	27	20.0	24	3	4	31	23.5	121	13	17	151	22.4
2	문화정보 제공	8	11	1	20	14.8	4	6	5	15	11.4	36	40	19	95	14.1
3	프로그램 개선	7	6	4	17	12.6	3	5	5	13	9.8	21	28	27	76	11.3
4	문화활동비 지원	1	7	3	11	8.1	3	7	7	17	12.9	9	43	21	73	10.8
5	무료공연 확대	4	6	7	17	12.6	2	10	6	18	13.6	12	40	35	87	12.9
6	순화공연 확대	2	4	6	12	8.9	4	3	3	10	7.6	7	14	28	49	7.3
7	문화예술인 양성	1	5	3	9	6.7	1	3	2	6	4.5	7	17	14	38	5.6
8	시설접근성 개선	1	4	6	11	8.1	2	2	8	12	9.1	7	22	36	65	9.6
9	전문인력 확보	0	0	11	11	8.1	1	5	3	9	6.8	5	8	27	40	5.9
10	기타	0	0	0	0	0.0	0	0	1	1	0.8	0	0	1	1	0.1
	계	45	45	45	135	100	44	44	44	132	99.2	225	225	225	675	100

### (3) 문화향유 경험

<표 부록-28>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
1	공연장·문화회관	1	9	8	18	3	15	6	24	9	11	11	31	3	10	10	23	4	4	5	13	20	49	40	109	17.2
2	영 화 관	33	6	3	42	31	8	0	39	23	10	3	36	27	5	4	36	16	15	4	35	130	44	14	188	29.7
3	음 악 당	1	2	2	5	0	0	2	2	1	2	1	4	0	0	0	0	1	0	0	1	3	4	5	12	1.9
4	박 물 관	1	4	6	11	1	1	10	12	1	3	9	13	2	9	5	16	0	5	7	12	5	22	37	64	10.1
5	미 술 관	1	3	7	11	0	0	3	3	1	0	4	5	1	3	5	9	1	3	1	5	4	9	20	33	5.2
6	화랑(회화,서예)	1	1	0	2	1	0	0	1	1	0	1	2	0	0	0	0	0	0	1	1	3	1	2	6	0.9
7	조각공원	0	1	3	4	0	1	2	3	0	1	0	1	0	0	2	2	2	0	1	3	2	3	8	13	2.1
8	도 서 관	2	5	3	10	8	10	4	22	4	8	5	17	6	8	4	18	15	4	3	22	35	35	19	89	14.1
9	마을문고	2	0	0	2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1	3	0	1	4	0.6
10	문화의 집	0	0	0	0	0	0	0	0	1	0	1	2	0	0	0	0	0	1	0	1	1	1	1	3	0.5
11	복지회관	0	0	0	0	0	0	2	2	0	2	0	2	0	2	0	2	1	2	1	4	1	6	3	10	1.6
12	문화체육센터	1	3	2	6	1	7	6	14	3	4	2	9	3	2	1	6	1	5	3	9	9	21	14	44	7.0
13	지방문화원	0	0	0	0	0	0	0	0	0	1	1	2	0	1	1	2	0	1	3	4	0	3	5	8	1.3
14	국 악 원	0	0	1	1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	1	0	0	3	3	0.5
15	전수회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1	4	3	0	1	4	0.6
16	종합시설	0	1	2	3	0	1	4	5	1	1	2	4	0	0	3	3	0	1	0	1	1	4	11	16	2.5
17	과 학 관	2	4	3	9	0	0	0	0	0	0	0	0	2	0	1	3	0	0	0	0	4	4	4	12	1.9
18	기타	0	2	1	3	0	2	3	5	0	1	1	2	1	1	2	4	0	0	1	1	1	6	8	15	2.4
	계	45	41	41	127	46	45	42	133	45	44	42	131	45	41	38	124	44	41	33	118	225	212	196	633	100

<표 부록-29> 문화활동별 빈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1위		2위		3위		계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응답	횟수
1	영화·비디오	32	18	7	6	2	2	41	26	26	11	14	5	1	6	41	22	27	11	8	8	4	10	39	29
2	음악·콘서트	0	0	7	5	6	2	13	7	1	3	7	5	4	2	12	10	2	10	4	4	7	3	13	17
3	연극·뮤지컬	1	2	9	6	7	3	17	11	1	15	6	4	4	2	11	21	2	4	3	6	8	3	13	13
4	무용·발레	0	0	0	0	2	4	2	4	0	0	0	0	0	0	0	0	1	10	0	0	0	0	1	10
5	공예·조각	1	8	1	1	1	5	3	14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6	박물관 관람	4	7	2	5	2	2	8	14	1	5	1	2	2	3	4	10	0	0	5	7	2	3	7	10
7	미술관 관람	0	0	2	5	4	2	6	7	0	0	7	5	5	2	12	7	1	10	3	2	3	3	7	15
8	도서관 이용	4	8	4	11	7	5	15	24	8	15	0	0	7	2	15	17	4	16	5	6	4	6	13	28
9	회화·서예·사진	0	0	1	10	0	0	1	10	0	0	0	0	0	0	0	0	1	10	0	0	1	2	2	12
10	강연·강좌·교육	2	3	2	5	3	3	7	11	0	0	5	4	7	3	12	7	2	29	4	8	4	3	10	40
11	체육·스포츠	1	5	8	7	4	15	13	27	8	26	5	7	4	5	17	38	4	15	11	8	6	5	21	28
12	전통문화 전수	0	0	1	2	0	0	1	2	0	0	0	0	0	0	0	0	1	24	1	3	1	1	3	28
13	문학·창작·시	0	0	0	0	0	0	0	0	0	0	0	0	1	2	1	2	0	0	0	0	0	0	0	0
14	과학기술 체험	0	0	0	0	0	0	0	0	0	0	0	0	1	2	1	2	0	0	0	0	1	1	1	1
15	기타	0	0	0	0	2	3	2	3	1	10	0	0	6	3	7	13	0	0	0	0	1	2	1	2
	계	45	51	44	63	40	46	129	160	46	85	45	32	42	32	133	149	45	139	44	52	43	43	132	234

<표 부록-30>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수단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도 보	6	11	3	4	11	35	15.6	7.0
2	자전거	1	0	2	0	1	4	1.8	0.8
3	버스·택시·지하철	17	15	6	4	5	47	20.9	9.4
4	자가용	21	20	34	37	27	139	61.8	27.8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31>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의 이동소요시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5분 이내	1	1	1	2	3	8	3.6	1.6
2	10분 이내	8	10	6	10	11	45	20.0	9.0
3	30분 이내	28	26	29	23	11	117	52.0	23.4
4	1시간 이내	6	7	8	8	12	41	18.2	8.2
5	1시간 이상	2	2	1	2	7	14	6.2	2.8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32>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지역적 범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거주 동·마을	4	3	3	2	4	16	7.1	3.2
2	거주 읍면동	6	12	2	4	9	33	14.7	6.6
3	거주 시군구	19	14	24	27	6	90	40.0	18.0
4	인접 시군구	15	16	13	12	21	77	34.2	15.4
5	원거리 시군구	1	1	3	0	4	9	4.0	1.8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33>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행태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단순 관람형	29	32	27	29	25	142	63.1	28.4
2	경험·체험형	15	11	12	7	11	56	24.9	11.2
3	현장 탐방형	0	2	2	5	5	14	6.2	3.5
4	강의·교육형	1	1	4	2	3	11	4.9	2.2
5	교류·참여형	0	0	0	2	0	2	0.9	0.4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34> 주로 하는 문화활동의 동반자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혼자서	5	3	2	3	6	19	8.4	3.8
2	가족과	20	26	24	27	19	116	51.6	23.2
3	친구와	18	16	18	12	11	75	33.3	15.0
4	동호회에서	0	1	0	2	8	11	4.9	2.2
5	기타	2	0	1	1	0	4	1.8	0.8
	계	45	46	45	45	44	225	100.0	

#### (4) 문화향유 만족도

<표 부록-35>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만족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	평균
1	매우 불만족	0	0	0	0	1	1	0.4	0.2
2	불 만 족	3	2	3	4	4	16	7.1	3.2
3	보 통	23	23	24	26	27	123	54.7	24.6
4	만 족	16	19	17	15	11	78	34.7	15.6
5	매우 만족	3	2	1	0	1	7	3.1	1.4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척도점수	3.4	3.5	3.4	3.2	3.2	3.3		

<표 부록-36>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불만족 이유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	평균
1	교통이 불편해서	4	8	3	8	16	39	17.3	7.8
2	요금이 비싸서	14	12	13	11	4	54	24.0	10.8
3	기다려야 해서	2	6	3	2	2	15	6.7	3.0
4	작고 좁아서	1	2	2	0	2	7	3.1	1.4
5	시설이용 불편	2	1	2	3	4	12	5.3	2.4
6	외판 곳이어서	1	0	1	1	1	4	1.8	0.8
7	편의시설이 부족	9	4	4	8	6	31	13.8	6.2
8	기 타	3	2	8	2	2	17	7.6	3.4
9	불만족 없음	9	11	9	10	7	46	20.4	9.2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37>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응답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	평균
1	매우 반대	0	0	0	1	0	1	0.4	0.2
2	반 대	2	1	1	3	6	13	5.8	2.6
3	보 통	11	10	17	9	11	58	25.8	11.6
4	찬 성	29	31	25	27	17	129	57.3	25.8
5	매우 찬성	3	4	2	5	10	24	10.7	4.8
	계	45	46	45	45	44	225	100.0	
	척도 점수	3.7	3.8	3.6	3.7	3.7	3.7		

<표 부록-38> 응답자의 인접 시군구 문화시설 이용 경험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공 연 시 설	공 연 장	3	11.5	8	27.6	3	10.0	1	4.8	1	3.2	16	11.7
	영 화 관	10	38.5	14	48.3	18	60.0	4	19.0	25	80.6	71	51.8
	음 악 당	1	3.8	·	·	1	3.3	1	4.8	·	0.0	3	2.2
전 시 시 설	관 람 장	·	·	·	·	2	6.7	·	0.0	·	0.0	2	1.5
	미 술 관	·	·	·	·	1	3.3	1	4.8	·	0.0	2	1.5
	박 물 관	8	30.8	1	3.4	1	3.3	3	14.3	3	9.7	16	11.7
	전 시 회	1	3.8	1	3.4	·	·	·	·	·	0.0	2	1.5
도 서 시 설	도 서 관	·	·	·	·	·	·	1	4.8	·	0.0	1	0.7
지 정 시 설	지방문화원	·	·	·	·	·	·	1	4.8	·	0.0	1	0.7
	체육 시설	·	·	1	3.4	1	3.3	3	14.3	1	3.2	6	4.4
종 합 시 설	문예 회관	1	3.8	2	6.9	1	3.3	6	28.6	·	0.0	10	7.3
과 학 관	과 학 관	·	·	·	·	1	3.3	·	·	·	0.0	1	0.7
기 타 시 설	공 원	1	3.8	2	6.9	·	·	·	·	·	0.0	3	2.2
	교육 시설	1	3.8	·	·	1	3.3	·	·	1	3.2	3	2.2
계	(%)	26	100.0	29	100.0	30	100.0	21	100.0	31	100.0	137	100.0
시설종류 수	(개)	8	·	7	·	10	·	9	·	5	·	14	·
응답자 비율	(%)	·	57.8	·	63.0	·	66.7	·	46.7	·	70.5	·	60.9
전 체 비율	(%)	·	11.6	·	12.9	·	13.3	·	9.3	·	13.8	·	60.9
영화관+공연장+박물관 +문예회관의 계		22	48.9	25	54.3	23	51.1	14	31.1	29	65.9	113	50.2

<표 부록-39> 응답자의 인접 시군구 문화시설 이용 내역

구 분		이동시간								이용지역			이용한 이유							
		계	(%)	30분	(%)	60분	(%)	2시간	(%)	2시간 이상	(%)	이용지역	계	없어서	프로다양	시설우수	가까워서	자녀때문	공연수준	기타
공 연 장	대 전	3	18.8					2	12.5	1	6.3	서울시	3		1				2	
	남양주	8	50.0			7	43.8	1	6.3			서울시	8	3	3				2	
	경 주	3	18.8			2	12.5	1	6.3			대구시	3		3					
	서귀포	1	6.3			1	6.3		0.0			제주시	1		1					
	구 례	1	6.3			1	6.3					순천시	1	1						
	소 계	16	100.0			11	68.8	4	25.0	1	6.3									
박 물 관	대 전	8	50.0	3	18.8	2	12.5	2	12.5	1	6.3	공주시	8		2		1	4		1
	남양주	1	6.3					1	6.3			서울시	1		1					
	경 주	1	6.3			1	6.3					대구시	1			1				
	서귀포	3	18.8			3	18.8					제주시	3	1		1		1		
	구 례	3	18.8			2	12.5			1	6.3	전주시	3		1	1		1		
	소 계	16	100.0	3	18.8	8	50.0	3	18.8	2	12.5									
문예회관	대 전	1	10.0			1	10.0					대전서구	1							1
	남양주	2	20.0	2	20.0							구리시	2		1		1			
	경 주	1	10.0					1	10.0			부산시	1						1	
	서귀포	6	60.0			6	60.0					제주시	6	3	3					
	구 례																			
	소 계	10	100.0	2	20.0	7	70.0	1	10.0											
영 화 관	대 전	10	14.1	8	11.3	2	2.8					대전서구	10	3		3	4			
	남양주	14	19.7	10	14.1	4	5.6					구리시	14	3	2	5	2			2
	경 주	18	25.4	9	12.7	9	12.7					대구시	18	1	5	9	2			1
	서귀포	4	5.6			4	5.6					제주시	4	1	2	1				
	구 례	25	35.2	20	28.2	4	5.6	1	1.4			순천시	25	25						
	소 계	71	100.0	47	66.2	23	32.4	1	1.4											
계	대 전	22	19.5	11	9.7	5	4.4	4	3.5	2	1.8		22							
	남양주	25	22.1	12	10.6	11	9.7	2	1.8				25							
	경 주	23	20.4	9	8.0	12	10.6	2	1.8				23							
	서귀포	14	12.4			14	12.4						14							
	구 례	29	25.7	20	17.7	7	6.2	1	0.9	1	0.9		29							
총계		113	100.0	52	46.0	49	43.4	9	8.0	3	2.7		113	41	25	21	10	6	5	5

<표 부록-40>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	시간이 없어서	13	3	9	25	19.2	24	3	5	32	23.4	14	3	6	23	17.0	16	5	6	27	20.8	11	6	7	24	19.2	78	20	33	131	19.9
2	시설이 떨어져서	11	7	4	22	16.9	10	13	4	27	19.7	14	8	3	25	18.5	13	8	1	22	16.9	19	10	3	32	25.6	67	46	15	128	19.5
3	이용료가 비싸서	10	10	2	22	16.9	4	10	5	19	13.9	7	17	5	29	21.5	4	9	6	19	14.6	5	3	7	15	12.0	30	49	25	104	15.8
4	몸이 불편해서	1	0	0	1	0.8	0	0	0	0	0.0	0	0	2	2	1.5	0	0	0	0	0.0	0	0	0	0	0.0	1	0	2	3	0.5
5	정보를 몰라서	7	13	8	28	21.5	5	12	8	25	18.2	6	10	14	30	22.2	8	8	12	28	21.5	8	12	7	27	21.6	34	55	49	138	21.0
6	교통.주차불편	1	6	5	12	9.2	2	4	14	20	14.6	2	3	3	8	5.9	0	5	4	9	6.9	0	6	8	14	11.2	5	24	34	63	9.6
7	경험이 없어서	0	2	6	8	6.2	0	0	4	4	2.9	1	2	5	8	5.9	2	1	5	8	6.2	0	1	7	8	6.4	3	6	27	36	5.5
8	자녀때문에	1	1	4	6	4.6	1	2	1	4	2.9	0	2	2	4	3.0	1	5	2	8	6.2	0	2	0	2	1.6	3	12	9	24	3.7
9	동행자가 없어서	0	1	4	5	3.8	0	2	2	4	2.9	0	0	2	2	1.5	0	2	4	6	4.6	1	1	1	3	2.4	1	6	13	20	3.0
10	기타	1	0	0	1	0.8	0	0	2	2	1.5	1	0	3	4	3.0	1	0	2	3	2.3	0	0	0	0	0.0	3	0	7	10	1.5
	계	45	43	42	130	100	46	46	45	137	100	45	45	45	135	100	45	43	42	130	100	44	41	40	125	100	225	218	214	657	100

<표 부록-41> 만족스러운 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	시간적·정신적 여유로움	24	5	3	32	23.7	29	2	2	33	23.9	27	2	3	32	23.7	30	1	2	33	24.4	17	5	5	27	20.5	127	15	15	157	23.3
2	경제적 안정	11	13	2	26	19.3	7	23	2	32	23.2	13	14	1	28	20.7	3	18	1	22	16.3	9	12	2	23	17.4	43	80	8	131	19.4
3	신체적 건강함	0	2	2	4	3.0	1	3	3	7	5.1	1	1	2	4	3.0	2	5	3	10	7.4	2	3	5	10	7.6	6	14	15	35	5.2
4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5	7	4	16	11.9	1	7	11	19	13.8	2	9	8	19	14.1	5	1	9	15	11.1	7	4	6	17	12.9	20	28	38	86	12.7
5	지역내 문화시설 확충	2	9	4	15	11.1	5	3	4	12	8.7	1	8	3	12	8.9	3	7	2	12	8.9	4	10	3	17	12.9	15	37	16	68	10.1
6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개선	2	3	5	10	7.4	3	3	9	15	10.9	1	4	7	12	8.9	2	5	5	12	8.9	2	2	7	11	8.3	10	17	33	60	8.9
7	원만한 인간관계	0	0	1	1	0.7	0	0	2	2	1.4	0	1	2	3	2.2	0	2	5	7	5.2	1	1	1	3	2.3	1	4	11	16	2.4
8	개인의 문화향유 의지	0	2	6	8	5.9	0	0	2	2	1.4	0	1	6	7	5.2	0	1	6	7	5.2	1	4	0	5	3.8	1	8	20	29	4.3
9	무료·순화공연 확충	0	2	7	9	6.7	0	3	4	7	5.1	0	1	7	8	5.9	0	2	5	7	5.2	1	0	5	6	4.5	1	8	28	37	5.5
10	문화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1	1	6	8	5.9	0	2	4	6	4.3	0	4	6	10	7.4	0	2	5	7	5.2	0	3	4	7	5.3	1	12	25	38	5.6
11	문화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	0	1	5	6	4.4	0	0	3	3	2.2	0	0	0	0	0.0	0	1	2	3	2.2	0	0	6	6	4.5	0	2	16	18	2.7
12	기타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계	45	45	45	135	100	46	46	46	138	100	45	45	45	135	100	45	45	45	135	100	44	44	44	132	100	225	225	225	675	100

(5) 문화향유 의지 및 수요

<표 부록-42> 향후에 해보고 싶은 문화활동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려					계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위	2위	3위	계	(%)
1	영화.비디오	6	1	2	9	6.7	4	1	4	9	6.5	3	0	2	5	3.7	5	2	5	12	8.9	6	3	1	10	7.6	24	7	14	45	6.7
2	음악.콘서트	15	4	4	23	17.0	15	11	1	27	19.6	11	10	5	26	19.3	17	6	5	28	20.7	13	8	6	27	20.5	71	39	21	131	19.4
3	연극.뮤지컬	8	13	4	25	18.5	15	14	2	31	22.5	14	9	3	26	19.3	10	16	4	30	22.2	11	12	3	26	19.7	58	64	16	138	20.4
4	무용발레	0	1	2	3	2.2	2	1	0	3	2.2	1	3	6	10	7.4	2	0	1	3	2.2	1	1	1	3	2.3	6	6	10	22	3.3
5	공예조각	2	0	2	4	3.0	1	2	0	3	2.2	0	1	3	4	3.0	1	2	2	5	3.7	2	0	1	3	2.3	6	5	8	19	2.8
6	박물관 관람	1	1	2	4	3.0	0	2	1	3	2.2	1	1	0	2	1.5	0	1	0	1	0.7	0	1	2	3	2.3	2	6	5	13	1.9
7	미술관 관람	4	4	2	10	7.4	1	3	3	7	5.1	0	6	0	6	4.4	0	4	2	6	4.4	0	4	4	8	6.1	5	21	11	37	5.5
8	도서관 이용	0	1	0	1	0.7	1	0	1	2	1.4	0	0	0	0	0.0	0	1	2	3	2.2	1	1	2	4	3.0	2	3	5	10	1.5
9	화화서예사진	4	1	0	5	3.7	0	3	3	6	4.3	3	2	0	5	3.7	1	1	4	6	4.4	1	3	1	5	3.8	9	10	8	27	4.0
10	강연강좌교육	0	4	7	11	8.1	0	5	10	15	10.9	6	3	8	17	12.6	2	4	5	11	8.1	1	6	5	12	9.1	9	22	35	66	9.8
11	체육스포츠	3	3	9	15	11.1	5	2	9	16	11.6	3	7	8	18	13.3	4	4	7	15	11.1	4	4	8	16	12.1	19	20	41	80	11.9
12	전통문화전수	2	5	4	11	8.1	1	1	4	6	4.3	1	2	5	8	5.9	2	2	4	8	5.9	2	1	5	8	6.1	8	11	22	41	6.1
13	문학창작시	0	3	3	6	4.4	0	1	0	1	0.7	1	0	3	4	3.0	0	1	1	2	1.5	0	0	2	2	1.5	1	5	9	15	2.2
14	과학기술체험	0	4	3	7	5.2	1	0	7	8	5.8	1	1	2	4	3.0	1	1	2	4	3.0	2	0	2	4	3.0	5	6	16	27	4.0
15	기타	0	0	1	1	0.7	0	0	1	1	0.7	0	0	0	0	0.0	0	0	1	1	0.7	0	0	1	1	0.8	0	0	4	4	0.6
	계	45	45	45	135	100	46	46	46	138	100	45	45	45	135	100	45	45	45	135	100	44	44	44	132	100	225	225	225	675	100

<표 부록-43>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한 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반나절	8	6	1	6	2	23	10.2	4.6
2	1일	5	12	5	6	12	40	17.8	8.0
3	3일	14	11	16	14	12	67	29.8	13.4
4	5일	5	8	8	5	4	30	13.3	6.0
5	틈날때 마다	13	9	15	14	14	65	28.9	13.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44>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한 달에 할애할 수 있는 비용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5만원 이하	4	5	2	7	6	24	10.7	4.8
2	5~10만원	18	16	16	13	16	79	35.1	15.8
3	10~20만원	12	17	15	16	14	74	32.9	14.8
4	20~30만원	6	4	5	7	4	26	11.6	5.2
5	30만원 이상	5	4	7	2	4	22	9.8	4.4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45>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이동시간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5분 이내	1	0	0	1	1	3	1.3	0.6
2	10분 이내	1	1	3	1	0	6	2.7	1.2
3	30분 이내	12	10	4	12	9	47	20.9	9.4
4	1시간 이내	17	19	22	16	19	93	41.3	18.6
5	1시간 이상	14	16	16	15	15	76	33.8	15.2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46>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때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

	구 분	대 전	남양주	경 주	서귀포	구 례	계	(%)	평균
1	도 보	7	6	6	6	9	34	15.1	6.8
2	자전거	0	3	2	0	3	8	3.6	1.6
3	버스, 택시, 지하철	13	19	8	3	5	48	21.3	9.6
4	자가용	25	18	29	36	27	135	60.0	27.0
	계	45	46	45	45	44	225	100.0	

<표 부록-47> 문화활동시 선호하는 교통수단의 변화 비교

구 분	도 보	자전거	버스·택시·지하철	자가용
현 재	15.6%	1.8%	20.9%	61.8%
향 후	15.1%	3.6%	21.3%	60.0%

국토연 2014-1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지 은 이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발 행 인 김경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4년 12월 31일

발 행 2014년 12월 3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7,000원

ISBN 979-11-85948-08-9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506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